

# 새국어생활



# 새국어생활

2013년 제23권 제3호 · 가을

국립국어원 2013-02-03  
정간위 심의필 95-13-4-21

**새국어생활 Saegugeosaenghwal**  
**제23권 제3호(2013. 가을) Vol. 190**

인쇄일·발행일 2013년 9월 30일

펴낸이	민현식
편집위원	강현화·시정곤·이정복·정호성·최경봉·한규희
기획	김아영
제작·편집	커뮤니케이션북스(주)
펴낸 곳	국립국어원( <a href="http://www.korean.go.kr">www.korean.go.kr</a> )
주소	157-857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번지)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54, Geumnanghwa-ro, Gangseo-gu, Seoul, Korea
전화	(02) 2669-9775
전송	(02) 2669-9777

ISSN 1225-7168

## 차례

### 특집. 한글 다시 보기

- 한글날은 어떻게 다시 공휴일이 되었는가?      3  
이건범
- 한민정음 창제 정신과 우리의 문자 생활 실태      19  
박용찬
- 한글의 보편성을 생각하며      39  
로버트 파우저
- 한글 서체 산업의 발전      45  
송성재
- 한글 글꼴의 조형적 변천      55  
박병천

### 지금 이 사람

- 이론과 자료가 만나는 국어학 연구를 위하여  
-서강대학교 서정목 교수를 만나다      95  
권창섭

### 문학 속 우리말

- 서정이 품어 낸 우리말의 숨결      116  
오태호

**삶과 우리말**

중앙아시아 고려말을 찾아 떠난 여정 133

이기갑

**세계의 언어 정책**

중국의 소수 민족 어문 정책 142

이종열

국립국어원 소식 157



한글 다시 보기



## 한글날은 어떻게 다시 공휴일이 되었는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작가

한글날이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세계의 흐름을 뒤쫓아 2004년부터 주 5일제 시행에 들어가 노동 시간이 줄어든 사정을 감안한다면 참으로 뜻밖의 일이다.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외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물론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기업인, 특히 대기업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가며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든 데는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생각이 많이 바뀐 사정이 크게 작용하였다. 문화 국가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경제 논리를 넘어선 것이다.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만들자는 운동에 앞장섰던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서는 두 가지 운동 논리를 개발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첫째, 한글날을 왜 굳이 공휴일로 만들어야 하는가? 둘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는 없는가?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말과 한글을 사랑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주 불거져 나오는 질문이었다.

첫 질문의 답은 언어문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기념일 문화

를 연결하여 찾으려 했다. 특히 아이들이 반드시 챙기는 ‘밸런타인데이’처럼 전 국민에게 익숙한 기념일 문화의 효과에서 도움을 받았다. 둘째 질문의 답은 한글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과 한국 경제의 앞날에 미칠 영향에서 찾고자 했다. 여기서는 한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잡아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유럽의 근대사에 기댔다. 이런 논리가 어떠한 실천과 맺어져 국민의 마음을 끌어모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먼저 한글날의 역사부터 짚어 보자.

## 1. 언어와 문화의 가치를 깨달아 간 역사

2005년에 한글날이 국경일로 정해지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네 날이었다. 1949년 10월 1일에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4대 국경일을 정하였으며, 이 네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한글날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기념해 왔고 미 군정 당시에도 공휴일이었지만 국경일에는 끼지 못했다.

한글날은 1926년에 처음으로 기념식을 갖고 기념하기 시작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한 1446년 이후 여덟 번째 회갑, 즉 480돌이 된 때였다. 조선어연구회(현 한글학회)와 신민사가 공동 주최하여 ‘식도원’이라는 요릿집에서 식을 치렀다. 당시 기념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하여 꽤 성대하였다고 한다. 이날은 양력 10월 9일이 아니라 11월 4일이었다. 이날이 음력으로 9월 29일이었는데, 음력 9월에 <<훈민정음>>을 책자로 완성했다는 실록의 기록에 따라 음력 9월 29일을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로 잡은 것이다. 기념식을 거행하는 중에 이날을 부를 이름을

‘가갸날’로 결정하였다. 이후 ‘한글’이라는 이름이 점차 널리 쓰이게 되면서 한글날로 부르게 되었다.

조선헌학회 회원이었던 이극로의 기록에 따르면 1930년대에 들어서 양력 중심으로 생활이 바뀌자 한글날도 1932년부터 양력 10월 29일로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이 날짜는 율리우스력으로 계산한 것이었는데, 양력은 1582년 이후 그레고리력으로 바뀌었으므로 양력 계산을 그레고리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1934년부터는 10월 28일에 한글날 기념식을 열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는 기념식을 거행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한글이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1945년 해방 뒤부터 10월 9일에 공개적으로 한글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1940년 7월에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 ‘9월 상한’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 훈민정음이 음력 9월 상순에 반포된 것으로 보고 9월 상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계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던 것이다. 1949년 6월 4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124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한글날은 공휴일로 정해졌으나 그 지위는 기념일이었다.

한글날은 왜 건국 직후 국경일이 되지 못했을까. 건국 초기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일제에 맞선 삼일절과 해방된 광복절, 헌법을 만든 제헌절, 우리 민족이 최초로 나라를 세웠다고 전해지는 개천절 등 대한민국이라는 근대 국가 수립에 정통성을 부여한 날만이 국경일로 정해진 것이다. 언어와 문화가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라는 자각은 적었다. 비록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공문서의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대한민국 법률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만들 만큼 공식적으로는 한글을 중시하였지만, 1970년 전

까지 한국의 문자 생활에서는 한자가 훨씬 더 힘을 발휘했다. 아직은 문화 역량의 값어치를 높이 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1991년부터 노태우 정부는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한글날과 국군의 날을 공휴일에서 빼 버렸다. 이런 결정의 배경도 앞의 사정과 맞닿아 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노동 운동이 급성장하면서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에 힘겨루기가 심해지자 노동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인 것인데, 한글날이 그 대상이 된 것이다. 즉, 국민 의식이 문화는 경제 성장의 희생양이 되어도 좋다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복원하려는 노력은 계속 이어졌지만 1997년 말 외환 위기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웠다.

이에 국어 운동계에서는 전략을 바꾸어 한글날을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국경일로 만들자는 목표 아래 2001년부터 ‘한글날 국경일 범국민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국민운동을 펼친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류가 번져 나가기 시작하자 한글날의 지위를 높이려는 노력은 차차 힘을 얻어 가고, 마침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005년 10월 5일 ‘한글날 국경일 지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리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05년 11월 30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개정안은 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문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바, 이는 쉽지 않았다.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행정 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2005년 6월에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는 제외되는 상황이었기에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지는 주장의 설득력이 약했던 것이다. 결국 소규모로 전개되던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운동은 한글날이 국경일로 기념된 첫해인 2006년부터 6년이 지난 2012년에서야 ‘한글날 공휴일 추진 범국민 연합’이라는 조직 결성과 함께 대규모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 2012년 12월 24일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국민과 국회의 한글날 공휴일 지정 여론이 그만큼 크게 일었던 것이다.

## 2. 한글날 모른다고 뭐 그리 문제인가?

2006년부터 한글날이 국경일이 된 뒤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가운데 한글날이 며칠인지 모르는 사람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였다. 2009년 11.9%에서 2011년 37%로 늘었으며, 특히 한글날 공휴일을 경험하지 못한 20대와 청소년 중에서 모르는 비율이 60%가 넘게 나타날 정도였다. 이런 까닭에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들어 국민이 한글날을 기억하고 한글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자는 국어 운동계의 주장이 이어졌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글날에 관해 교육을 잘 시킬 일이지 반드시 공휴일로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글날은 그저 하나의 정보 차원에서 아느냐 마느냐 수준으로 여길 일이 아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 문화에서 가장 뛰어나고 자랑할 만한 유산이지만 단지 기념해야 할 유물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한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현재와 미래의 살아 있는 생필품이다. 그런데 외국어와 어려운 말, 폭력적인 말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는 상황이기에 사회 전체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특별히 기려야 할 계

기를 만들 필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한글은 매우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 사라지거나 훼손될 위험이 적지만 한글로 적어야 할 우리말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 구분 없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 용어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컨센서스, 매니페스토, 학력 블라인드, 거버넌스 등 헤아릴 수 없는 외국어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다. 국민의 머슴을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왜 국민이 알아듣기 힘든 말과 글을 사용하겠는가? 늘 의식적으로 머슴 자세를 지키려는 긴장감이 없고, 그 긴장감을 풀어놓아 줄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장치가 바로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이었다. 필자는 국민에게 익숙한 기념일 문화에 비유하여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아이들이 있어 먹었다가는 낭패 보는 날들이 있다.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가 그렇다. 제과 업체의 상흔을 비판하는 말도 많지만, 반드시 나쁜 면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남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한다. 기념일이란 그 사건이나 사람과 나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장치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되살려 민주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되짚는 장치로 만들어야 한다.”

《경향신문》, 2012년 5월 18일

한글이 민주적 의사소통의 토대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한글의 소중함을 단순히 유산의 차원에 묶어 두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글의 창제 정신은 국민이

소통하는 데에 겪는 어려움을 풀겠다는 애민 정신이었다. 우리네 말을 잘 다듬는 일은 민족 문화 발전이라는 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필자는 그 시야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로 넓혀야 한다고 본다. 어떠한 시민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에서 배제당해선 안 된다. 여기서 언어가 중요하다. 정치나 행정의 절차, 또는 참여 기회에 구멍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필자는 공적인 언어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봐야 한다고 믿는다.

필자는 이런 논리 구조로 2012년 3월에 서울 시민 발언대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고 여러 차례 글도 썼다. 거리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면 늘 밸런타인데이 이야기를 빗대어 설득하였다. 한글과 경제, 한글과 민주주의, 언어 환경과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장치가 바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인 것이다.

### 3.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추진 운동의 흐름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만들자는 운동은 이 대의에 공감하는 여러 갈래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오랫동안 국어 운동의 일선에서 한글 사랑, 국어 사랑을 실천해 오신 원로 선배들의 전통적인 관점, 필자처럼 한글날을 언어 환경 개선의 장치로 만들자는 관점, 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만드는 데에 함께 힘을 보탠다는 관점 등이다. 이 세 갈래의 흐름은 서로 대립하지 않았다. 모두 한글 사랑을 밑바탕에 깔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강조점을 약간씩 달리했을 뿐이다. 세 흐름은 2012년 3월 거대한 하나의 물줄기로 모이게 된다.

운동의 발원지는 국어 단체 쪽이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몇 년 동

안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주장해 온 국어 단체들이 2012년 2월에 세 차례 회의를 거쳐 ‘한글날 공휴일 추진 범국민 연합’을 결성하여 이 운동을 추진하기로 굳게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도 함께 있었다. 당시 국민의 여론이 매우 좋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적극 찬동하는 입장이라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면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하여 국어 단체와 시민 단체, 교육 단체, 학부모 단체, 노동 단체, 문화 단체 등을 널리 모으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얻고 있는 사회 원로들을 모셔 2012년 3월 말에 범국민 기구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다. 추진 실무에서는 이대로(한말글문화협회 대표), 오동춘(깊신문화회 회장), 송환웅(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이진범(한글문화연대 정책 위원), 김한빛나리(한글학회 부장), 이인범(한글문화연대 사무국장), 안재웅(세종대왕기념사업회 부장) 등이 앞장섰고, 전체 사무국 역할은 한글문화연대가 맡았다. 한편으로 한글문화연대는 4월 총선에 나선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의견 조사에 들어갔다.

2012년 3월 28일 아침 10시에 ‘한글날 공휴일 추진 범국민 연합’(줄여서 ‘한글날연합’)은 한글학회 얼마글 교육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이어 11시에 세종로 정부 청사 뒷문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등의 국어 단체와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국어교사모임,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국작가회의, 흥사단 등 46개의 단체가 결집하였으며, 한말글문화협회 이대로 대표가 ‘한글날연합’의 상임 대표를 맡았다. 공동 대표는 고경희(한글문화연대 대표), 고영희(대한기술사협회 회장), 김영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종남(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반재철(흥사단 이사장), 이강택(전국언론노동조합 위

원장), 이수호(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시영(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용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종건(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정의용(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차재경(한글사랑운동본부 회장) 등 12인이 맡았으며, 짚신문화회 오동춘 회장이 감사를 맡았다.

또한 김석득(전 연세대학교 부총장), 김종택(한글학회 회장), 박종국(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 교수), 엄기원(한국아동문학연구회 회장), 임창열(《경기일보》 대표 이사 회장, 전 경제부총리) 등 30명의 사회 원로로 고문단을 꾸렸다. 그리고 김수업(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김명영(한림대학교 교수, 전 한글문화연대 대표), 노회찬(전 국회의원), 박선영(국회의원), 성낙수(외솔회 회장), 신기남(국회의원),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101인으로 자문단을 꾸렸다.

한글날연합의 지도 위원인 김종일(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 대표), 류종열(홍사단 부이사장), 리의도(춘천교육대학교 교수), 송현(시인, 한글문화원 원장),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대표),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등 76인과 추진위원 413인이 활동을 시작했다. 실무를 맡은 집행 위원회는 고운맘(스님), 송환웅(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문성근(홍사단 기획국장), 이진범, 김한빛나리, 안재응, 이인범, 길양희(외솔회 간사), 김종범(《E교육신문》 편집장) 등 9인으로 구성하여 이대로 상임 대표와 함께 운동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을 맡았으며, 한글문화연대가 한글날연합의 사무국 구실을 하기로 했다.

한글날연합은 출범 선언문에서 “한글은 사람 존중과 민주주의의 철학을 담고 있는 글자”이고 “이 철학과 정신은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의 헌법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 국민 누구나 글자를 익히고 쓸 수 있게 되어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한글의 가치를 규정하였다. 이어진 기자 회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9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해 빨리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한글을 더욱 빛나게 하고, 국민 자긍심을 드높여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밑바탕을 다져라!”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19대 총선 246개 선거구 여야 후보 492명을 대상으로 한글문화연대가 조사한 설문 결과도 발표하였다. 492명 가운데 41.7%인 205명이 조사에 응하였는바, 여야를 떠나 96.1%가 공휴일 지정에 찬성하였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한글날연합은 2012년 4월부터 10월 까지 광화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아홉 차례 거리 서명 운동을 벌였으며, 참가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 운동과 온라인 서명 운동도 함께 펼쳤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2012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국민 여론에서 84%가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설가 이외수 씨가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들자고 트위터에 올린 글은 삼시간에 3,000회 이상 재전송되었다. 2012년 5월 9일, 한글날연합은 행정안전부(지금의 안전행정부)에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추진을 공개적으로 묻는 기자 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담당자에게 요구 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9월 18일에는 행정안전부에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국민 청원서를 내면서 7만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한글날 공휴일 여론이 거세지자 10월 9일 한글날 경축식장에서 경축 행사 직전에 국어 단체 대표들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국무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반대하던 이전의 태도와는 달라진 첫 의사 표명이었다.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지금의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심사, 가결 하였다. 비야흐로 한글날연합의 운동이 목표를 이룰 듯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이다.

#### 4.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역시 걸림돌은 경제, 아니 대기업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앞장서서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일하는 날이 하루 줄면 그만큼 생산과 수출이 줄어 한국 경제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단골 논리를 앞세우면서, 필자는 두 가지 각도에서 경총의 논리를 깨뜨려 갔다. 첫째는 그들의 경제 논리에 역시 경제 논리로 맞서는 방법, 다른 하나는 경제 논리만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가치와 품격을 강조하는 방법이었다.

경총의 논리 가운데 일반 국민에게도 설득력이 있던 것은 ‘노는 날이 늘어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다. 이 논리에는 세 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노는 날이 정말로 많은지 어떤지 국민들이 모른다. 둘째, 휴일 수와 경제 간에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른다. 셋째, 경제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경총이 둘러대고 있다. 필자는 한글날연합 출범 전부터 이 논리의 맹점을 짚기 위해 대한민국의 연중 평균 노동 시간이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였다. 또한 한글날연합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상생

을 거부하는 대기업의 전횡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에 모두 목소리를 모았으며,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대기업의 대표 단체가 그들의 생존을 방패 삼아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반대한다는 허구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논리적인 비판만으로는 경총의 권위를 흔들기에 부족하였다. 이에 한글문화연대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각도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도록 주문하는 색다른 시위를 기획하였다. 2012년 10월 23일 오전 11시에 한글문화연대 대표인 필자가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에서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 명석 위에 꿰어앉아 ‘도끼 상소’를 벌인 것이다. 원래 도끼 상소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려던 시점에 최만리 일파가 한글 반포를 반대하며 벌인 것이었다. 최만리는 자신의 한글 반포 반대가 잘못된 것이라면 도끼로 자신의 머리를 부수어도 좋다고 상소를 올렸는데, 필자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일이 이 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잘못된 일이라면 내 머리를 도끼로 쳐도 좋다고 경총이라는 ‘경제 권력’에 상소하는 모양을 취했다. 일방적인 비난과 공격이 아니라 울면서 사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도끼 상소는 수많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퍼졌고, 경총이 지나치게 대기업의 욕심만 차리는 게 아니냐는 여론을 일으키는 데에 지렛대가 되었다.

도끼 상소 이틀 뒤인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안전부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장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였다. 이런 분위기를 굳히기 위해 한글문화연대는 10월 30일에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정부 종합 청사 앞에서 한글날 공휴일 굳히기 떡을 돌렸다. 1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어 재석 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89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다. 같은 날 경총은 행정안전부에 ‘한글날 공휴일 지정 관련 경영계 건의서’를 보내 반대 뜻을 밝히며, 기존 공휴일 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공휴일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맞서 한글날연합은 11월 5일 경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은 조작과 거짓으로 자신의 욕심을 가리고 있는 가면을 벗어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경총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11월 8일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예고 기간은 12월 18일까지 40일이었다. 이 기간 동안 심각한 반대나 갈등이 없었다면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될 것이었다. 국민 여론을 잘 지켜야 하는 경기 종료 5분 전이었던 셈이다. 필자는 한편으로는 경총의 논리를 정확하게 반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계를 설득하는 두 가지 글을 써서 마지막 수비에 나섰다.

우리나라의 연중 노동 시간이 2011년 기준으로 2,200시간인데,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의 평균 연중 노동 시간은 1,800시간이었다. 400시간을 하루 8시간에 주 5일로 셈해 보면 두 달 넘게 더 일을 하는 꼴이니, 우리는 1년 열두 달이 아니라 열네 달 일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경총은 휴일 숫자를 조작해 가면서 국민을 헐박하고 있었다. 연차 휴가를 포함해 1년에 134일 이상을 쉬니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휴일을 갖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한글날 하루 더 늘면 경제에 타격이 오고,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힘들어진다는 논리였다. 토요일, 일요일이 52주니까 104일이 일하지 않는 날이고, 법정 공휴일은 15일, 연차 휴가는 15일에서 25일 사이라서 134~144일을 쉰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었다. 필자는 이를 정교하게 계산하여 입법 예고 다음 날인 11월 9일에 “대기업의 한글 사용료는 얼마일까”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반박 글을 실었다.

“이건 숫자 조작이다. 경총은 빨간 날이 아닌 노동절까지 포함시켜 공휴일을 하루 늘려 놓았고, 그나마도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평균 4일 정도 있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5일을 빼면 실질적인 공휴일은 10일이다. 또 우리나라 연차 휴가일 수 평균은 15.3일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날은 절반이 채 안된다. 나머지를 꼭 돈으로 보전해 주지도 않는다. 후하게 계산해도 연차 휴가는 8일이다. 다시 더해 보자.  $104+10+8=122$ . 경총 주장보다 12일이 적다. 이는 경제 5단체가 10년 전에 주 5일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내놓았던 선진국의 휴일 수 126.6일보다도 4일 이상 적은 수치다.

10년 전에도 경제 단체들은 일할 날이 줄면 경제가 망한다고 겁주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따진다면 연중 노동 시간이 1,50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북유럽 나라들은 왜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을까? 가장 긴 시간 일하는 나라의 휴일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 마술의 요령은 그저 ‘거짓말’일 뿐이다. 그리고 그 속내는 추한 이기심이다.

(출입)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사랑, 우정, 긍지, 의리, 정의, 열정 등등 있으면 가난해도 삶이 풍요롭고, 없으면 돈이 많아도 삶이 구차해지는 그런 것들 말이다. 난 경총을 비롯한 경제 단체들의 태도에서 가장 못마땅한 게 이 부분이다. 문화와 자긍심을 돈으로 재려하는 그 천박함을 감추기 위해 이 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연민을 보내는 위선 말이다. 그렇게 나라가 걱정되면 세금 제대로 내고,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 등을 치는 짓

부터 그만두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해야 마땅하다.

그래, 나도 친박하게 물어보자. 당신들이 매일 작성하는 보고서와 서류, 당신의 자녀들과 주고받는 문자까지 모두 한글로 쓰고 있다. 그 사용료는 누구에게 얼마나 지불할 셈인가?”

《경향신문》, 2012년 11월 9일

한글날 공휴일 공방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달려 인쇄 업체들은 2013년 10월 9일을 빨강계 인쇄해야 할지 어떨지 헷갈리고 있었다. 이에 한글문화연대는 다양한 크기로 빨간색 ‘9’를 인쇄한 붙임 딱지를 만들어 11월 22일부터 시민들에게 나눠 주기 시작했다. 2012년 12월 24일, 마침내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

## 5. 한글, 성장의 발판에서 경제의 품격으로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니라 문화를 판다는 말처럼 세계 시장에서 문화가 만들어 내는 마케팅 효과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대기업들이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문한다. 서구의 종교 개혁은 라틴어 성서를 자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변두리 언어였던 영어와 독일어의 품격을 높이며 학문과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져 마침내 산업 혁명을 잉태한다. 우리 경제와 한글의 관계도 이런 각도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이다.

“6.25전쟁 뒤에야 보통 교육이 자리 잡은 한국이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성장한 이유 중 하나도 한글이라는 문자였다. 어느 나라 글자보다 익히기 쉬운 한글이라는 축복 덕분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고, 양질의 노동력이 산업 현장과 손쉽게 결합했다. 이런 점에서 한글은 분명 경제 성장의 발판이었다.

이제 한류 시대가 오면서 한글의 지위가 달라지고 있다. 세계인에게 한글은 문맹 퇴치의 상징을 넘어서서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시각적 상징이 되고 있다. 세계인의 눈길은 그 존재조차 몰랐던 변두리 언어인 한국말과 한글에 쏠리기 시작했고 관심은 폭발적이다.

(출입)

한글이 과학과 애민 사상의 융합이고 한국이 한글날을 공휴일로 기린다는 사실은 외국인에게 분명 문화 충격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 충격은 세계인이 구찌의 장인 정신에서 느끼는 신뢰나 일본 애니메이션의 정신세계에 갖는 호기심과는 차원이 다른 가치, 즉 ‘사람 사랑’의 향기를 맡도록 자극할 것이다. 한글을 소중히 생각하고 발전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세계인은 한국 상품에서 가격이나 품질보다 품격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제 효과는 기업이 붓는 마케팅 비용에 비할 바가 아니리라.”

《조선일보》, 2012년 12월 13일

이렇듯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듦으로써 우리나라는 국내 언어 환경의 개선을 점진하는 장치를 얻었으며, 세계 속에서 품격 있는 문화 국가라는 지위를 개척한 것이다.

## 훈민정음 창제 정신과 우리의 문자 생활 실태

박용찬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1

우리는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이라 하여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한글)의 반포일을 기념하고 있다.<sup>1)</sup> 이렇듯 우리가 한글날을 제정하여 한글 반포일을 기념하는 것은 한글이 우리 고유의 문자일 뿐만 아니라 한글 창제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우리말을 아주 쉽게 그리고 더할 수 없이 완벽하게 적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한글 없이는 우리말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생각을 온전하게 글로 표현해 낼 수 없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우리의 문자 생활에서 한글이 소홀히 대접받

---

1) ‘한글날’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이 1443년(세종 25년) 창제하여 1446년(세종 28년) 반포한 한글을 보급하고 연구할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1926년 11월 4일 ‘가갸날’로 정해 처음으로 한글을 기념하기 시작하다가 1928년에 그 명칭을 ‘한글날’로 바꾸고 1945년에 기념일 날짜를 지금처럼 10월 9일로 변경하였다. 한편 1949년에 공휴일로 지정되고 1982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1991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2006년에 국경일로 승격되었지만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2013년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냄으로써 한글날이 명실상부하게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고 있으며 외국 문자에 밀려 그 사용 영역이 점차 축소돼 가고 있다. 젊은 세대나 몇몇 전문 분야의 문자 생활 및 언어생활에서는 로마자의 남용 양상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대 간 및 계층 간의 언어 차이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 있다. 이는 세대 간 및 계층 간 의사소통의 단절과 상호 이해의 결여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의 서문을 통해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취지 및 창제 정신을 알아보고, 외국 문자(특히 로마자)를 남용하고 있는 우리 문자 생활의 실태를 방송 프로그램명, 기업명, 대중가요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로마자 남용이 훈민정음의 창제 취지와 창제 정신에 비추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이 장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 취지와 창제 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훈민정음이 1443년 12월에 창제되었다는 사실은 아래에 제시한 《세종실록》 25년 계해(癸亥, 1443년) 12월조의 기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于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한문 원문)

(1) 이달 왕(세종)이 친히 언문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다. 그 글자는 옛 전자(篆字)를 본떴는데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뉘고 그것을

합쳐야 글자를 이룰 수 있다. 무릇 문자(한자)와 우리나라의 말을 모두 적을 수 있다. 글자가 비록 간략하나 조합해 쓰면 무궁하다. 이를 훈민정음이라 일컫는다.(번역문)

위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새 문자의 창제자가 세종이라는 사실,<sup>2)</sup> 창제된 문자의 글자 수가 스물여덟 자라는 사실, 옛 전자(篆字)를 본떠서 창제했다는 사실,<sup>3)</sup>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음소 문자로 만들었고 그 글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도록 했다는 사실, 문자(한자)와 우리말을 모두 적기 위해 새 문자를 창제했다는 사실,<sup>4)</sup> 음소 문자를 음절 단위를 모아쓰도록 함으로써 그 글자의 수효가 스물여덟에 불과하지만 수많은 음절을 적을 수 있다는 사실, 새 문자의 명칭이 ‘훈민정음’이라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훈민정음의 창제 취지와 관련하여, 문자(한자)뿐만 아니라 우리말을 모두 적기 위해서 새 문자를 창제했다는 사실과 새 문자의 명칭이 ‘훈민정음(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라는 사실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새 문자로서 훈민정음을

---

2) 현재 학계에서는 세종이 직접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는 친제설(親制說), 세종의 명으로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는 명제설(命制說), 세종이 주도해서 집현전 학자 및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는 협찬설(協贊說) 등 세 가지 설이 대립하고 있다.

3) 이전에 《세종실록》의 ‘字倣古篆’이라는 기록에 입각해 옛 전자(篆字)를 본떠 훈민정음의 글자를 만들었다는 ‘고전모방설(古篆模倣說)’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1940년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이후로 학계에서는 이 주장을 배제하고 있다.

4) 여기서는 ‘문자’는 ‘한자’를 가리키고, ‘한자’를 적는다는 것은 ‘한자음’을 적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훈민정음을 창제·반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종은 집현전 학자에게 명해 우리나라 한자음의 표준을 정해 한글로 정리한 《동국정운》(1448)을 편찬토록 했다.

창제했다는 것은 우리말과, 우리말을 적은 훈민정음으로 백성들의 의사 표현 더 나아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새 문자의 명칭이 ‘훈민정음(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라는 사실은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새 문자를 창제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우리말과 우리글로 백성들의 의사 표현, 더 나아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세종이 새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취지는 세종 자신이 직접 쓴, 아래 《훈민정음》의 서문에 좀 더 분명하게 잘 요약돼 있다.

- (1) 나랏 말쑥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씩 이런 전츠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홍 배 이셔도 믹츄내 제 프들 시러 퍼디 몯 홍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호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 字를 땡 마노니 사람마다 히여 수히 니겨 날로 뿌메 便安키 호고져 홍 썩르미니라.(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予 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언해문 및 한문 원문)
- (2)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히 나날이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현대어 역문)

《훈민정음》의 서문을 통해 세종은 먼저 우리말이 중국어와 다르고 중국어를 적는 데 사용한 한자가 우리말을 적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그 결과 한자를 익히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 생각을 글로 전혀 표현할 수 없음을 파악하고, 그리하여 스물여덟 글자로 이루어진 쉬운 새 문자를 만들어 한자를 익히지 못한 백성도 쉽게 익혀 자기 생각을 글로 아무 어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말이 중국어와 다르고 중국어를 적는 데 사용한 한자가 우리말을 적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언급한 것은 한자가 중국어를 적기에 적합하지만 우리말을 적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우리말을 적기에 적합한, 한자 아닌 새 문자 창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한자는 중국인의 의사 표현에 유익했는지 모르지만, 중국어보다 음절 구조가 훨씬 복잡한 우리말을 온전히 적기에 부적합했고, 그 결과 한자를 통한 우리의 의사 표현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한 것이다. 우리의 완전한 의사 표현을 위해서 한자 아닌, 우리말로 적기에 적합한 새 문자의 창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자를 익히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 생각을 글로 전혀 표현할 수 없음을 언급한 것은 당시의 조선 사회에서 양반(또는 사대부) 계급을 제외한 일반 백성의 대부분이 한자를 아예 모르거나, 배우더라도 익히기가 쉽지 않아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그들이 자기 생각을 글로 전혀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을 파악한 것이다. 일반 백성의 대부분은 문자를 통한 원활한 의사 표현이 불가능했고 문자 생활의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어리석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자는 양반 계급의 전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sup>5)</sup> 세종은

---

5) 양반(또는 사대부) 계급은 일반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기 어려운 한자를 제격에 맞는 문자로 여겼고 그 한자를

이렇게 문자 생활을 영위할 기본 여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백성을 안타깝게 여겼다.

한편으로 당시의 조선 사회는 실제로 쓰는 말과 그 말을 적은 글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언문불일치(言文不一致)의 언어생활을 하고 있었다. 한자를 어릴 때부터 익혀서 일상적으로 부려 썼던 양반 계급의 경우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구어)은 우리말인 한국어였지만 글로 쓰는 말(문어)은 중국어였고, 중인 계급의 경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제한적으로나마 이두와 구결을 사용하여 우리말을 적었다고는 하나<sup>6)</sup>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구어)과 글로 쓰는 말(문어)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 밖의 계급인 상인, 천민에게는 문자를 통한 의사 표현의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자를 아는 계급은 언문불일치의 언어생활을 하고, 한자를 전혀 모르는 계급은 문자를 통한 언어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언문불일치의 언어생활을 하는 양반이나 중인 계급도 자기의 생각을 글로 자유자재로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어떤 계급의 사람이건 당시의 일반 백성 모두 다 자기의 생각을 글로 자유자재로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었던 현실을 세종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스물여덟 글자로 이루어진 쉬운 새 문자를 만들어 한자를 익히지 못한 백성도 쉽게 익혀 자기 생각을 글로 아무 어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

일반 백성에게 널리 보급하려 하지도 않았다.

6) 이두는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따라 배열한 뒤 우리말의 조사와 어미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적는 표기법을 가리키고, 구결은 한문을 읽을 때 한문의 단어나 구절 사이에 우리말의 조사와 어미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적어 넣는 표기법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두와 구결은 둘 다 얼마간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지극히 불완전한 우리말 표기법이였다.

록 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것은 우리말을 적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배우기도 쉬운 새 문자의 창제를 통해 일반 백성에게도 의사 표현의 길을 열어주어 일반 백성 누구나 문자를 통한 언어생활을 일상적으로 편하게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해 주려 했음을 밝힌 것이다.

세종은 한자가 우리말을 적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배우기도 어렵고 일반 백성 대부분이 한자를 익히지 못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 우리말을 적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는 새 문자를 창제하였다. 우리말의 음절 및 음소를 정밀하게 관찰하여 우리말의 음소(자음 17개, 모음 11개)를 찾아내어 그 음소들 각각에 일대일 대응하는 글자 스물여덟 개를 만들어, 스물여덟 개의 글자만으로도 우리말을 완벽하게 적기에 거의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또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 음소들 간의 유기적 관계까지도 대응 글자들의 모양에 반영시킴으로써 글자만 보고도 그 글자의 소릿값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일반 백성이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게 했다.<sup>7)</sup>

결국 세종은 우리말을 적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는 새 문자인 훈민정음으로 일반 백성이 일상적으로 자기 생각을 글로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문자를 통한 언어생활, 즉 문자 생활의 한 측면이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에는 글로 표현된 남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

7) 자음은 그것을 다섯 부류로 나눈 후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각 부류의 기본자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 모음 또한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음소를 구성하는 음성적 특징인 변별 자질 등을 글자에 반영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훈민정음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계를 갖춘 문자가 되었다.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세종은 일반 백성이 서로의 생각을 글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일반 백성이 훈민정음으로 문자 생활을 일상적으로 편하게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그리고 세종은 단순히 문자 생활의 편이성만 고려해서 새 문자를 창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양반(또는 사대부) 계급이 일반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세종은 일반 백성도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하여 새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한자 또는 한문으로만 가능했던 지식 습득을,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로도 가능케 함으로써 당시의 지식 및 정보를 대중화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새 문자의 명칭이 ‘훈민정음(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라는 데서도 그것을 얼마간 추정해 볼 수 있다. 세종이 새 문자인 훈민정음을 통해 일반 백성 누구나 당시의 지식과 정보를 쉽게 배워서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라면 지나친 추정일까?

이상으로 우리는 《세종실록》의 훈민정음 창제 기록과 세종 자신이 직접 쓴 《훈민정음》의 서문을 통해 훈민정음 창제 취지를 알아보았다.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이 문자 생활을 일상적으로 편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창제 취지의 밑바탕에는 한자가 우리말을 적는 데 적합하지 않아 우리말을 적기에 적합하도록 새 문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주정신이, 일반 백성이 자기 생각을 글로 전혀 표현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도록 새 문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애민 정신 또는 민본 사상이, 일반 백성이 새 문자로 문자 생활을 일상적으로 편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는 점에서

실용 정신 등이 깔려 있다. 《훈민정음》의 서문에는 그 밖에도 훈민정음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에 대한 세종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백성을 위해 창제된 훈민정음은 한글로 그 이름이 바뀌어 우여곡절을 겪으며 우리말을 적는 우리 고유의 문자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우리말은 우리의 감정 및 사고, 지식 및 정보, 문화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우리말은 단지 전달 수단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감정 및 사고, 지식 및 정보,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도 마찬가지이다. 한글에도 우리의 감정 및 사고, 지식 및 정보,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말과 한글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준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말과 한글을 통해서만 제대로 규정될 수 있다. 한글은 편리한 문자 생활의 수단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 3

우리는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잡지, 각종 광고물 등을 통해 문자로 적힌, 수많은 글을 보며 살아간다. 건물명, 상표명 및 상품명, 안내판 등을 통해서도 짧은 글 또는 문자를 항상 볼 수 있다. 이렇게 수많은 글 또는 문자를 접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누리집, 블로그, 트위터 등에 빈번하게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우리 언어생활의 중심이 말하기, 듣기 중심에서 읽기, 쓰기 중심으로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문자 생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종이 우리의 문자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제한 한글이 최근 들어 수난을 겪고 있다. 우리의 문자 생활에서 한글이 소홀히 대접받고, 외국 문자(특히 로마자)의 범람으로 그 사용 영역이 점차 축소돼 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문자 생활에서 아래 (3)과 같은 글은 더 이상 그리 어색해 보이거나 부자연스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오히려 외국 문자를 배제하고 한글만 쓴 (3')의 글이 더 어색해 보일 정도다.

(3) Colorful 대구의 I-WISH 아파트에 살고 있는 P 씨는 평소 LG TV로 Mnet의 <슈퍼스타K5>나 tvN의 <SNL코리아>를 즐겨 시청하고, SK텔레콤에서 출시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4로 Daum에서 2NE1, SS501, f(x), 2PM 등의 노래를 MP3 파일로 내려받아 듣고, KB국민카드로 그 주에 개봉한 SF 영화를 예매해 CGV에 가서 영화를 관람한다.

(3') 컬러풀 대구의 아이위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 씨는 평소 엘지 티브이로 엠넷의 <슈퍼스타케이파이브>나 티브이엔의 <에스엔엘코리아>를 즐겨 시청하고, 에스케이텔레콤에서 출시한 삼성전자의 갤럭시에스포로 다음에서 투에니원, 더블에스오공일, 에프엑스, 투피엠 등의 노래를 엠피스리 파일로 내려받아 듣고, 케이비국민카드로 그 주에 개봉한 에스에프 영화를 예매해 시지브이에 가서 영화를 관람한다.

젊은 세대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기성세대는 위 (3)의 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제대로 읽어 내기조차 어렵다. 이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언어생활, 특히 문자 생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로마자를 남용하고 있는 문자 생활의 실태를 방송 프로그램명, 기업명, 대중가요 등을 통해 좀 더 확인해 보기로 하자. 먼저 2013년 9월 9일(월)부터 9월 15일(일)까지 방송된 지상파 방송 3사(4채널)의 정규 방송 프로그램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로마자 사용 실태는 표 1과 같다.

표 1 제목에 로마자를 사용한 지상파 프로그램

채널	프로그램 총수	로마자 사용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명
KBS 1TV	85개	26개 (30.6%)	KBS 걸작 다큐멘터리, KBS 글로벌 24, KBS 뉴스, KBS 뉴스 12, KBS 뉴스 5, KBS 뉴스 7, KBS 뉴스 9, KBS 뉴스광장, KBS 뉴스 라인, KBS 오늘의 경제, KBS 중계석, KBS 청소년 기획 위기의 아이들, KBS 파노라마, KBS 네트워크, KBS 바둑왕전, KBS 스포츠 중계석, KBS 특선 다큐, TV 동화 빨간 자전거,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TV 소설 사랑아 사랑아, TV 쇼 진품 명품, 한국 현대사 증언 TV 자서전, 취재 파일 K, T 타임, 강연 100℃, K-SORI 악동
KBS 2TV	64개	7개 (10.9%)	KBS 뉴스 타임, KBS 스포츠 타임, KBS 아침 뉴스 타임, TV 유치원, TV소셜 은희, VI 특공대, 비바 K-리그
MBC	75개	26개 (34.7%)	MBC 100분 토론, MBC 경제 뉴스, MBC 뉴스, MBC 뉴스 24, MBC 뉴스 데스크, MBC 뉴스 투데이, MBC 다큐스페셜, MBC 생활 뉴스, MBC 여성 토론 워드, MBC 월드 리포트, MBC 이브닝 뉴스, MBC 정오 뉴스, MBC 파워 매거진, MBC 네트워크 특선, MBC 스포츠, MBC 플러스 특선, 키즈 CSI 과학 수사대, TV 속의 TV, TV 특종 놀라운 세상, 바비킴 이루마의 TV 예술 무대, 섹션 TV 연예 통신,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찾아라! 맛있는 TV, PD 수첩, 경제 매거진 M, 불만 제로 UP
SBS	67개	20개 (29.9%)	SBS 12 뉴스, SBS 5 뉴스, SBS 8 뉴스, SBS 8 뉴스, SBS 가이드, SBS 골프, SBS 뉴스, SBS 뉴스 퍼레이드, SBS 생활 경제, SBS 스페셜, SBS 애니갤러리, SBS 인기 가요, SBS 컬처 클럽, SBS 토론 공감, TV 동물농장, 열린 TV 시청자 세상, 한밤의 TV연예, 궁금한 이야기 Y, 스타다큐 K팝 히어로 2, 서바이벌 오디션 I'm Super Model
계	291개	79개 (27.2%)	

지상파 방송 3사(4채널)의 프로그램 79개가 그 제목에 로마자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었다. 이는 전체 291개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27.2%를 차지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에서 그대로 노출된 로마자는 KBS, MBC, SBS, CSI, TV, PD, VJ, K, M, T, Y, ℃, K-SORI, UP, I'm Super Model 등이다. KBS, MBC, SBS, CSI처럼 로마자 두자어로 된 회사명이나 기관명(고유 명사)은 거의 예외 없이 로마자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TV, PD, VJ처럼 로마자 두자어로 된 일반 명사도 로마자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한편 K(←Korean, Key, Knowledge, Kindness 등에서 첫 글자를 딴 것), M(Money, Marketing, Management, Man 등에서 첫 글자를 딴 것), T(←Tea), Y(←Why) 등처럼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로마자로 제시하거나 UP, I'm Super Model처럼 영어 단어나 문장을 로마자 그대로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서 로마자 노출은 로마자 두자어의 사용, 영어의 남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을 통해 로마자 두자어로 된 회사명이나 기관명 등의 고유 명사에서 거의 예외 없이 로마자를 그대로 노출시켰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번에는 기업명을 통해 이러한 실태를 좀 더 확인해 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기업 이름에서 로마자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sup>8)</sup> 공식적인 기업 이름은 네이버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전체 100개 기업 가운데 34개의 기업이 그 이름에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CJ, E1, GS, IBK, KB, KT, KT&G, LG, LIG, LS, SK, S-Oil, STX

---

8) 우리나라 100대 기업은 2012년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표 2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이름에 로마자를 사용하는 기업

로마자 사용 기업 수	기업명
34개 (34%)	CJ그룹, CJ제일제당, E1, GS, GS건설, GS글로벌, GS리테일, IBK기업은행, KB금융그룹, KT, KT&G, LG, LG디스플레이, LG상사,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손해보험, LS그룹, SK, SK가스, SK네트웍스,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SK텔레콤, SK하이닉스, S-Oil, STX, STX조선해양, STX팬오션, 삼성SDI, 아모레G

처럼 대부분 로마자 두자어로 된 이름이다.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100대 기업 가운데 포스코, 이마트 등도 POSCO, emart처럼 로마자를 사용한 이름이 널리 쓰이고,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도 로마자 두자어로 된 이름인 켄코(KEPCO), 코가스(KOGAS) 등이 더 널리 쓰인다.

이러한 로마자의 남용 양상은 대중가요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국내의 대표적인 음악 전문 사이트인 멜론(www.melon.com)의 ‘시대별 차트’에서 2012년도 가요 차트 100위권에 올라 있는 대중가요를 대상으로 가수명 및 곡명에서 로마자 사용 실태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공식적인 가수 이름에서 로마자 사용 실태는 표 3과 같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가수를 검색했을 때 먼저 제시된 것을 그 가수의 공식적인 가수 이름으로 삼았다.

46명의 가수가 자기 이름을 로마자로 적고 있었다. 전체 66명 가운데 69.7%를 차지하여, 2012년 시대별 차트 100위에 드는 가수의 대부분이 자기 이름을 로마자로 적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9)</sup> 로마자로 적는 가수 이름은 대부분 영어식으로 작명되었고, 이 가운데 10cm, 2AM,

9) 한 가수가 부른 두 곡 이상의 곡이 100위권에 오르기도 하고, 둘 이상의 가수가 함께 부른 곡이 100위권에 오르기도 하여, 실제 100위권에 오른 곡을 부른 가수의 총수는 66명이다.

표 3 멜론 '시대별 차트' 2012년 100위 가수 이름의 로마자 사용 실태

로마자를 사용한 가수명	로마자 사용하지 않은 가수명
10cm(10센치), 2AM(투에이엠), 2NE1(투애니원), 4minute(포미닛), Ailee(에일리), Beast(비스트), Bigbang(빅뱅), Block B(블락비), Boa(보아), Busker Busker(버스커 버스커), CNBLUE(씨엔블루), Davichi(다비치), December(디셈버), Dynamic Duo(다이나믹 듀오), Epik High(에픽 하이), f(x)(에프엑스), FTISLAND(에프티아일랜드), G.NA(지나), Gain(가인), G-Dragon(지드래곤), Geeks(긱스), Hanna(한나), Hyuna(현아), Infinite(인피니트), IU(아이유), John Park(존박), Juniel(주니엘), K Will(케이윌), Kara(카라), Lyn(린), Mighty Mouth(마이트 마우스), Miss A(미쓰에이), Orange Caramel(오렌지 카라멜), Primary(프라이머리), Psy(싸이), Secret(시크릿), Seven(세븐), Shinee(샤이니), Sistar(씨스타), Sunnyhill(써니힐), T-Ara(티아라), Teen Top(틴탑), Urban Zakapa(어반 자카파), Verbal Jint(버벌진트), Wonder Girls(원더걸스), Zia(지아)	나얼, 노을, 로이킴, 박진영, 백지영, 별, 소녀시대, 소유, 양요섭, 양파, 용감한 녀석들, 울랄라 세션, 이승기, 이정, 이하이, 정준영, 허각, 현승, 형돈이와 대준이, 효린
46명(69.7%)	20명(30.3%)

2NE1, 4minute, f(x), Juniel, Hanna 등은 로마자로 적은 이름만 쓰고 '10센치', '투에이엠', '투애니원', '포미닛', '에프엑스', '주니엘', '한나'처럼 한글로 적은 이름은 거의 또는 아예 쓰지도 않았다.

2012년도 가요 차트 100위권에 올라 있는 대중가요 제목에서 로마자 사용 실태는 표 4와 같다.

전체 100곡의 대중가요 가운데 총 41곡이 그 제목에 로마자를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로마자만 사용한 경우(31곡)도 있고 로마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한 경우(10곡)도 있지만 로마자만 사용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로마자를 사용한 대중가요의 제목 대부분은 영어를 쓰고 있었는데, 단순히 영어 단어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영어의 구나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대중가요 가운데 몇몇은 가사 내용의 50%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들어 우리의 대

표 4 멜론 '시대별 차트' 2012년 100위 대중가요 제목의 로마자 사용 실태

곡명에서 로마자를 사용한 대중가요	곡명에서 로마자를 사용하지 않은 대중가요	기타
2HOT, BAD BOY, BLUE, DAY BY DAY, Electric Shock, Falling, FANTASTIC BABY, Good Boys, Heaven, Hey You, I Don't Care, I Love You, I Need You, Ice Cream, illa illa(일라 일라), Like this, LOVE DAY, Lovey-Dovey, Loving U(러빙유), Midnight(별 헤는 밤), Missing You, MONSTER, Officially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ou Too, Only One, Pandora, POISON, SEXY LOVE, She's Gone, Sherlock-셜록(Clue+ Note), STILL ALIVE, Touch, Trouble Maker, Twinkle, Volume Up, 거기서 거기(Without You), 너뿐이야(You're The One), 니가 필요해(I Need You), 립스틱(LIPSTICK), 이러지 마 제발(Please Don't...), 크레용(Crayon)	강남 스타일, 곰 인형, 굿모닝, 귀여워, 그xx, 그걸 마주하는 건 힘들어(그마힘), 그리워 그리워, 꽃송이가, 나 혼자,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나쁜 놈, 난리 나, 남자 없이 잘 살아, 남자도 우나요, 내가 노래를 못해도, 너도 나처럼, 너랑 나, 널 사랑하겠어, 니가 싫어, 널 리리 맘보, 되돌리다, 떠나간다, 뜨거운 안녕, 말리꽃, 먼지가 되어, 목소리, 미치겠어, 바람 기억, 벚꽃 엔딩, 베짚이 찬가, 보여줄게, 사랑은 다 그런 거 래요, 생각날 거야, 서쪽 하늘, 소나기(주르르루), 씨스루,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밤이야, 아프다,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애상, 어땀을까, 여수 밤바다, 외로움 증폭 장치(브래드 드림 한판 쉬기), 우리 사랑했잖아, 이럴 줄 알았어, 이상형, 정말로 사랑한다면, 지독하게, 첫사랑, 추격자, 춤다, 충분히 예뻐, 피어나, 하루 끝, 하지 못한 말, 휘파람	1, 2, 3, 4 (원, 투, 쓰리, 포), ?(물음표)
41개(41%)	57개(57%)	2개(2%)

중가요가 외국에서 '케이팝(K-pop)'이라 불리며 지속적인 한류의 확산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목과 가사가 로마자로 도배돼 있다시피 한 케이팝이 우리의 진정한 대중가요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영어권 팝송의 변종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이상으로 방송 프로그램명, 기업명, 대중가요 등을 통해 몇몇 전문 분야에서 로마자가 남용되고 있는 문자 생활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분야별로 얼마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로마자의 남용 양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그리고 로마자의 남용 양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표 5 공문서 작성 시 한자와 외국 문자의 사용을 규제하는 관련 법령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 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 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 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살펴본 방송 프로그램명, 기업명, 대중가요 등의 몇몇 분야에 그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고, 이러한 사정은 더욱 악화될 듯하다.

우리나라는 표 5에 제시한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국어기본법’(법률 제7368호) 제14조 및 2005년 7월 27일 제정된 ‘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73호) 제11조를 통해 공공 기관의 공문서 작성 시 한자 및 외국 문자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sup>10)11)</sup> 공공 기관에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 기관 및 공문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극히 사적인 글쓰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문

10) 우리나라는 1948년 10월 9일 “대한민국의 공문서(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자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이 법률은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국어기본법’ 제14조로 승계되었다. 이때 조항 내용에 ‘한자’ 외에 ‘다른 외국 문자’를 더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11) 문자 생활적 측면에서 외국 문자인 로마자 외에 한자의 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문자 생활 양상(한자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로마자 사용 및 남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했다.

자 생활에서는 이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 프로그램명, 기업명, 대중가요 등도 이 규정의 준용 대상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공문서에서 외국 문자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자 생활에서 로마자의 남용은 아주 심각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로마자의 남용은 앞의 용례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특정 분야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해한다. 이는 세종이 문자 생활의 편이성과 지식 및 정보의 대중화를 염두에 두고 새 문자를 창제하려 했던 정신에 크게 반한다. 문자 생활의 편이성과 지식 및 정보의 대중화는 일반 백성이 새 문자인 훈민정음으로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모든 지식과 정보를 쉽게 습득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자 생활에서 로마자의 남용은 외래어, 외국어(특히 영어)의 남용과 깊이 관련된다. 우리말로 정착된 외래어에서 더 나아가 우리말로 정착되지도 않은 영어 단어나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그것을 로마자로 아무렇지 않게 쓰는 데까지 이르렀다. 외래어, 외국어의 남용은 젊은 세대, 전문 분야 또는 집단(전문가 계층)에서 더 두드러진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엔 계급 간 언어생활의 차이가 큰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세대 간, 계층 간(전문가 계층과 비전문가 계층) 언어생활의 차이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세대 간 및 계층 간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세종이 계급 차이에 상관없이 일반 백성 모두가 문자를 통한 언어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정신에 크게 반하는 것이리라.

그리고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말과 한글이 언어생활 또는

의사소통의 수단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로마자 같은 외국 문자나 영어 같은 외국어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로마자나 영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할지라도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그것을 어떻게 발전적·합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 4

이상으로 우리는 《훈민정음》의 서문을 통해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취지 및 창제 정신을 알아보고, 로마자를 남용하고 있는 최근 문자 생활의 실태를 방송 프로그램명, 기업명, 대중가요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세종은 자주정신, 애민 정신 또는 민본 사상, 실용 정신을 바탕으로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도 문자 생활을 일상적으로 편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문자 생활의 편이성), 그리고 일반 백성 누구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쉽게 배워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식과 정보의 대중화)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한편 최근 들어 우리의 문자 생활에서 외국 문자(특히 로마자)를 남용해 쓰는 양상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고 로마자의 남용이 외국어(특히 영어)의 남용과 깊이 관련돼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로마자 및 영어의 남용 양상은 세대 및 계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로마자 및 외래어, 영어의 남용이 세대 간, 계층 간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로마자

및 영어의 남용은 세종이 계급 차이에 상관없이 일반 백성 모두 문자를 통한 언어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취지 및 정신에도 크게 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글에서는 주로 로마자 남용에 초점에 맞추어 우리 문자 생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어쩌면 이는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점일 수 있다. 그 밖의 문자 생활의 다양한 양상 및 우리 문자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은 시대 변화 및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현 시대에 걸맞게 재해석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 문자 생활의 문제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강신항(1990), 《훈민정음연구》(증보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고영근(2010), 《표준 중세국어문법론》(제3판), 집문당.  
박창원(2005), 《훈민정음》, 신구문화사.  
안병희(2007), 《훈민정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기문(1998), 《국어사개설》(신정판), 태학사.

## 한글의 보편성을 생각하며

로버트 파우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한글로 글 쓰는 것은 쉽지만, 한글에 대해 글 쓰는 것은 어렵다. 한글의 독창성 및 과학성은 널리 알려져 있어서 새로운 쓸거리를 찾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한글이 창제된 15세기 이후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한국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새로운 쓸거리를 찾아본다면 한글의 독창성 및 과학성보다는 한글의 보편성을 통해서 한글을 새로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글의 보편성을 생각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한글의 역사를 보자. 많은 언어는 한글과 같은 ‘맞춤형 문자’는 아니지만 인접해서 영향을 주는 ‘문명 원어(文明 原語)’에서 문자를 빌려 쓴다. 이 과정에서 원어의 모습이 바뀌기도 한다. 영어에서 사용하는 로마자는 라틴어와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 반면 한자에서 나온 일본의 히라가나는 변화가 많은 사례 중 하나다. 한글은 이러한 문자들과 달리 언어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 특성에 알맞게 구성한 문자다. 이것은 찾기 어려운 사례다. 그리고 세계의 주요 언어 중 ‘맞춤형 문자’가 있는 언어는 한국어밖

에 없다는 것 역시 독특하다면 독특하다.

15세기 중반에서 말까지 한글은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그 후 한자의 강력한 힘에 밀려 쇠퇴하고 20세기 초까지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물론 시조, 가사, 고전 소설 등 많은 문학 작품에서 한글이 사용됐지만, 한문으로 쓴 시, 소설, 문집 등에 비해 적은 양이었다. 인접 ‘문명 원어’인 한자가 한국의 언어생활 및 문자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17세기에 로마자에서 파생한 ‘꾸옥응으’라는 문자를 도입하기 전까지 한자를 사용했고 전쟁이 없었던 일본 에도 시대에는 한문이 사무라이 계층의 필수 교양이 되었다. 유럽에선 ‘문명 원어’인 라틴어가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고 중세까지 거의 모든 집필 활동이 라틴어로 이루어졌다. ‘문명 원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언어는 영향을 덜 받는데, 십나라인 일본과 영국이 적절한 사례이다. 아랍어권은 고전 아랍어로 집필 활동을 오래 해 왔고 오늘날도 이슬람 신자는 코란을 고전 아랍어로 읽는다.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문명 원어’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언어는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자국어 집필 활동이 주변 국가보다 늦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어 역시 일본어 및 베트남어에 비해서 중국어 및 한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자국어 집필 활동이 늦었다. 조선은 ‘소중화(小中華)’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국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탈중화(脫中華)’, ‘반일’, ‘독립’으로 이어지는 20세기 역사 속 한글의 역할이다. 19세기 말에 중국 문명의 영향이 약해지고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이 커지면서 탈중화가 시작돼 한글은 15세기 말 이후 처음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의 힘이 커져 결국 조선은 식민지가 되었고 한글은 반일의 상징으로 급부상했다. ‘내선일체(內鮮一體)’ 정책을 도입한 일제의 의도는 한국을

문화적으로 흡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 가운데서도 한국어로 집필 활동은 가능했기 때문에 한글은 한국 문화를 지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세기는 ‘민족주의의 세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민족주의 바람이 전 세계에 불었다. 이런 민족주의적 분위기에서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아일랜드의 독립운동과 아일랜드어, 유태인의 이스라엘 건국과 히브리어가 대표적인 사례다. 20세기 말에도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언어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상해 자국어를 지키고 키우려는 운동도 확산됐다. 이런 맥락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반일은 자연스럽게 20세기에 쉽게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20세기는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독립의 세기였다. 20세기 초엔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많은 나라가 식민지였지만, 20세기 말에 식민지는 거의 남지 않았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유럽에서 발생한 양차 세계 대전, 자발적 독립운동, 민주주의의 확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반일은 문화를 지키는 중요한 도구였지만,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있었다. 즉, 독립이 없으면 문화를 지키는 것은 어렵고 성공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와 같은 외세에서 독립하는 것이 중요했고 분단 후에도 남북한은 국민의 결속을 위해 민족주의를 활용해 왔다.

이렇게 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독립 심리 속에서 한글의 독창성은 독립의 상징도 되었다. 자국어가 남의 언어와 다르다며 남의 언어보다 우수하다는 사고는 차별성을 강조해 독립을 정당화하는 사고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8세기에 프랑스가 강한 독립 국가로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프랑스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속에 프랑스어의 우수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영국도 비슷하게 18세기에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자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755년에 새뮤얼 존슨의 영어 사전이 출간되었다. 역사상 첫 영어 사전이었다.

남북한은 독립된 국가로서 언어 정책을 도입했는데 한글이 이 정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가장 쉬운 예는 한글 전용 정책이다. 분단 이후 남북한에서는 한글 전용이 추진되었는데, 북한은 바로 도입했고 남한은 1960년대 말에 도입했다. 자국어인 한국어는 '남의 글자'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언어다. 한글 전용 외에도 남북한에서 마치 18세기 프랑스와 영국처럼 한글을 통해 자국어의 우수성을 호소하고, 사전 편찬을 많이 지원했으며, 나아가 국어 순화 정책도 도입했다. 이렇게 보면 한글이 한국의 독립을 합리화하는 '차별성' 및 '우수성'의 중요한 상징인데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가까운 과거'를 포함한 한글의 역사는 보편적이다. '문명 원어' 그늘 밑에서 많은 영향을 받다가 독립된 국가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면서 자랑스러운 독립어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한국의 경우 한문을 통해 '문명 원어'의 영향을 강하게, 그리고 길게 받았고,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프랑스와 영국보다 늦었고 일본보다도 다소 늦고 압축됐지만, 그래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 왔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현재의 보편성이다. 즉,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사는지, 한글이 이 시대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1990년대에서 찾을 수 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민족주의가 한시적으로 다시 유행했지만, 이후에 컴퓨터 및 인터넷의 보급으로 '세계화' 또는 '글로벌화'가 급격히 부상했다. 불과 50년 전에는 서로 싸우

던 유럽 국가들이 유로라는 공동 통화를 도입하고 자본은 국가에서 독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민족을 기반으로 형성된 국가의 구분은 느슨해졌다. 국가는 ‘브랜드’로 변해 ‘국가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급격히 이루어졌는데, 적응하지 못한 나라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북한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 강대국인 일본도 어려움도 겪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1990년대 말에 외환 위기라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됐지만, 그 과정 속에 한국은 급속히 ‘글로벌화’를 포용했고,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퇴색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이 정보 기술(IT) 강국이 되어 한류 및 케이팝(K-Pop) 열풍으로 대중문화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급성장했다. 2000년대 말에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주요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 한글도 브랜드로 변해 또 하나의 한류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386세대가 나이를 먹으면서 ‘글로벌화’에 관심이 있는 세대가 등장해 한글 전용, 국어 순화와 같은 이슈는 젊은 사람 사이에서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했고 ‘한글의 우수성’은 국가 브랜드의 코드로서 단순히 소비되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글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즉, 한류를 수출할 수 있으면 한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가 브랜드가 되어 그 브랜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독특한 위치를 갖춰야 하는 현실에서 한글이 오히려 보편성을 벗어나 독특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글로벌화’ 시대에 영어의 힘이 커지면서 자국어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국가 브랜드에서 언어의 역할은 약해졌다. 국가 브랜드는 남이 살 수 있는 상품, 남이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문화에서 형성

되는데 문자가 브랜드화된 것은 찾기 어렵다. 흥미롭게도 한글은 오랫동안 다른 문자와 비슷한 보편적 과정을 통해 변했지만, 최근 들어 '브랜드 문자'가 되었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글은 내적으로, 즉 한 민족의 공동체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소비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되었다. 이제 세계의 수많은 문자 중 첫 번째 '포스트모던 문자'로서 등장해 문자사의 새로운 창을 열었다. 이것은 바로 이 시대 한글의 독창성이 아닌가 싶다.

## 한글 서체 산업의 발전

송성재 호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한글날 즈음에 보도되는 관련 기사들 중에는 한글 표기와 함께 우리 말 바로 쓰기에 대한 내용이 섞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말과 글, 혹은 말과 글자의 혼동에서 오는 풍경이다. 같은 의미를 담은 언어지만 글자에 초점을 맞추자면 말은 잠시 접어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글자에서 다시 한 번 표기를 위한 규칙과 구분하여 모양을 다루는 영역, 그중에서도 제자의 원리나 필법보다 형태와 스타일에 관련된 부분이 디자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도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독특한 모양이나 장식적인 것을 디자인이라고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의 교정이다.

글자 디자인은 언어와 소통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국내 유명 디자이너가 붓으로 쓴 한글 무늬를 활용해 해외 패션쇼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는 뉴스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한글 디자인으로 오해한다. 옷에 쓰인 한글은 의미 전달보다 단순한 무늬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인들은 물론 이를 취재한 한국의 기자 누구도 글자의 내용이나 옷과 글의 연관성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후 여러 가지 일상 제품에서 한글을 활용한 것을 종종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한

글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한글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의 일과는 그리 연관이 크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글자는 배운 필순에 따라 붓 혹은 연필 등 전통적인 필기도구를 이용해 손으로 쓰면 된다. 인쇄가 등장하면서 글자를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가지런히 문장을 조합해 많은 양의 글을 인쇄하려면 먼저 정리된 글자의 모양을 정하고 그려야 한다. 이것을 단단한 재료에 새겨 넣고 반복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활자라고 한다. 활자를 만들고 인쇄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개인이 글자를 쉽게 쓰도록 고안된 기계가 타자기다. 자판을 누르면 돌음으로 새겨진 여러 개의 금속 막대가 번갈아 종이에 모양을 만든다.

요즘은 컴퓨터 안에 많은 글자 모양이 데이터 형식으로 담겨 있어서 취향이나 목적에 맞는 것을 찾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매번 다르게 쓰는 손 글씨와 달리 미리 만들어진 글자를 서체라고 한다. 이전에는 활자라는 표현이 더 익숙했다. ‘오늘따라 유난히 책의 활자가 크게 보였다.’ 이 같은 문학가들의 표현이 그리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활자는 글자를 인쇄하기 위해 만든 금속 막대를 일컫는 것이니 책 속에 활자가 있을 수 없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서체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원하는 문장은 물론 숫자, 기호 등을 다 작성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서체 한 종류를 만드는 일이란 복잡하고 방대하다. 글자는 말을 시각화한 부호이고 의미를 담은 약속된 기호다.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고 경우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서체들이 만들어진다. 서체를 다루는 전문적인 영역을 타이포그래피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글자의 형태와 의미, 그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토대로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산업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서체 디자인 회사의 등장

‘한글’은 우리말을 옮겨 적는 기호다. 정확한 필법을 지킨다면 글자의 모양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어법에 대응하는 맞춤법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글자의 형태에 대한 문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떤 모양으로 쓸 것인가’가 그것이다. 이는 매체와 글자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에 더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글자는 굵을 수도 가늘 수도 있다. 뜻은 차이가 없지만 보는 느낌은 다르다. 눈으로 식별하는 데도 차이가 있다. 한자 ‘讀’(독)은, 쓰인 글자가 무엇인지 알아본다는 것과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글도 ‘글자’로서의 ‘한글’과 ‘글’로서의 ‘한글’로,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된다.

서예가들에게 글자는 조형적 자유를 발휘하는 기초 자료일 것이다. 쓸 때마다 글자의 본뜻과는 별개로 형태에서 의미가 생긴다. 인쇄 기술이 발명되기 전, 필경사들은 말을 글자로 옮기는 일에 충실했다. 읽기 편하게 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 형태의 글자 모양을 구사할 이유가 없었다. 인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글자의 형태를 디자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이 생겼지만, 글자 크기의 변화를 빼고는 여전히 글자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 이유는 없었다. 글자를 빨리 쓸 수 있도록 고안한 기계인 타자기에서 보듯이 쓴다는 것은 수십 년 전 까지도 그냥 쓰는 행위였다.

1980년대 들어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고안한 개인용 컴퓨터에 다양한 서체를 담으면서 개인이 글자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컴퓨터가 디자이너의 도구가 되면서 서체들이 급속하게 번식하기 시작했다. 현대 서체 중 상당수가 수백 년,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시는 만

든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지역과 다른 문화 속에서 만든 것으로, 지금처럼 여러 가지 서체를 모아 두고 선택할 수 있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붓글씨로 명맥을 이어 오던 한글도 인쇄 시대를 맞아 활자로 만들어 지면서 서체 혹은 폰트의 성격을 구축하게 된다. 책과 신문의 본문에 최적화된 활자가 개발되고, 그것을 기본으로 제목용이나 광고용 글자가 만들어졌다. 디지털 폰트로 다듬어지면서 한글은 단순한 ‘글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체(폰트)라는 새 옷을 입게 된다. 글자의 상업화는 특히 한글에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자 쓰기에 바쁜 서예가들에게도 한글은 호감이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일반의 한글 쓰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필법과 필순을 넘어서지 못한다. 길거리를 뒤덮은 간판과 인쇄물들에 들어 있는 다양한 한글의 모양은 디자인의 산물이다. 디자이너들은 사명감을 갖고 한글 서체를 개발했겠지만 그들이 만든 서체는 곧 돈이 되었기 때문에 글자도 어느 제품처럼 산업의 흐름에 올라탔다.

본문 서체를 만드는 기초적인 발전에 이어, 1980년대에는 서체를 만드는 사업이 태동했다. 개인용 컴퓨터가 수입되면서 영문자 외에 한글 서체도 여러 종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84년 설립된 산돌타이포그래픽스, 1989년 설립된 윤디자인연구소 등이 본문용 한글 활자의 디지털 서체화와 새로운 디스플레이용 서체 개발을 선도했다. 꼭 필요한 서체를 정리하거나 만드는 것으로도 이들 기업의 몫이 벅찰 만큼 한글 서체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게 분출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본문용, 제목용 한글 서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시기였다. 수요는 넘쳤다. 서체 회사들은 신문사, 인쇄소 등에 폰트 꾸러미 상품을 제공하는 일로 수익을 올리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이후 최근까지 국내에는 서체 회사가 30여 개 설립되어 고유한 서체들을 개발하고 있다.

## 2. 미니홈피와 웹 폰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쇄 매체를 중심으로 한 서체 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활판 시대 서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글 서체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서체 회사들이 미래 활로를 열기 위해 노력을 펼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미디어 환경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2000년에 등장한 미니홈피는 한글 서체의 개발 방향을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꾸었다. 개인에게 제공된 미니홈피는 인터넷 사용자들끼리 긴밀하게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었다. 미니홈피는 무엇보다 각각의 사생활과 개성이 중시되는 세태를 반영하고 조성했다. 서체는 말투나 억양, 특징을 표현하는 시각적 도구로 인식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웹 폰트라는 새로운 개인용 글자 만들기가 시도되었다.

2000년대 중반 산돌과 세종 폰트 등을 필두로 여러 서체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서면서 웹 폰트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미니홈피에서 음악과 배경 이미지, 스킨, 아이콘 등 많은 신종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던 10~20대의 젊은 사용자들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폰트라는 새로운 아이템도 취향에 맞게 구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글자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 수용의 기능적方便일 뿐 아니라 자기의 개성과 새로움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대상이었다. ‘싸이월드’의 경우 서체 하나를 웹에서 한정된 기간(1개월 정도) 사용하는 대가로 천 원을 받아 한 해 수십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웹 폰트는 단순히 수직, 수평의 획이나 그 끝의 세리프<sup>1)</sup>로 구분되는 서체가 아니라 자모의 다양한 비례와 장식적인 표현을 지닌 서체로, 매일 교과서에서 보는 명조와 고딕체를 벗어난다는 해

---

1) 편집자 주: 글자에서 획이 시작하거나 끝나는 부분의 작은 돌기.

방감을 주기도 했다. 유효 기간이 지나고 싫증이 나면 웹 폰트를 쉽게 버리기도 하여, 실제로 오래되거나 인기가 없는 웹 폰트들은 사이트에서 영구히 제거되기도 했다. 그 무렵 언론 매체에서 미니홈피 열기와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심을 보이며 웹 폰트의 파급 효과를 확대시켰다.

글자가 돈이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서체 회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글자가 가져야 하는 덕목으로는 가독성을 뺄 수 없으며, 개성과 주목성 등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인데, 짧은 기간에 제작된 많은 웹 폰트는 조형적인 문제와 함께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서체를 상품화하면서 젊은 세대는 물론 상당수 일반인들에게도 글자가 싸고 가벼운 팬시 상품이라는 오해를 갖게 했다. 맞춤법이라는 약속뿐 아니라 세련된 글자 형태와 그 익숙함은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웹 폰트는 한글의 형태를 지나치게 상업적인 면과 연관해 보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 3. 멋글씨(캘리그래피) 혹은 손 글씨

흔히 서체를 본문용과 디스플레이용(제목용)으로 분류한다. 이런 구분 자체가 사실은 서체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영문 서체 중 디스플레이용으로 구분되는 것은 주로 모양이 특이해서 본문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과 본문용 글자체 중에서 획이 굵은 ‘볼드 패밀리’를 통칭한다. 즉, 디스플레이용 글자체와 본문용 글자체의 차이는 굵기나 크기이지 글자의 형태나 기타 장식의 문제가 아니다. 반면 한글 서체에서 ‘디스플레이용’이라는 용어는 조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실험적 형태를 가진 것들에 대해 적당히 실용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경우가 허다

하다. 즉, 한글 본문용 글자체의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의 서체 회사나 디자이너들은 주로 디스플레이용 글자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으로는 글자 하나의 조형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문자로서 한글의 우수성과는 다른, 디자인 차원의 이야기이다.

영문 알파벳이나 일본 문자 등은 같은 글자체 안에서 낱글자 하나의 형태가 어떤 경우에도 변형되지 않고 고유한 크기와 비례 값을 유지한다. 따라서 모든 글자들은 정확하게 다른 글자들과 어울리며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간결하고 유려한 글자체에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정갈한 수학적·공간적 비례를 가진 다양한 서체 개발이 가능하다. 한글은 시각적 무게 중심이 글자의 중앙에서 벗어나거나 좌우 비대칭적으로 조합되어 글자에 통일성과 방향성을 부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제대로 만들어진 본문용 글자체가 불과 서너 종류에 지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멋글씨(캘리그래피)의 부상은 이러한 한글의 구조적 문제와 떼어 놓을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적·문화적 성장과 변화에 따라 수준 높은 디자인과 그 핵심 요소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글자체에 대한 양적·질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체 회사와 디자이너들은 디스플레이용 글자체와 웹 폰트를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해 온 측면이 있다.

수준 높은 글자체에 대한 요구에 답을 준 것이 이른바 멋글씨다. 전통적인 서예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예술적인 행위로 발전시켰다면, 멋글씨는 서예의 예술성에 상업적 감각을 담아 실용화한 글자를 말한다. 전통 서예와는 다른 파격이나 새로운 필체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면서 멋글씨는 글자가 물건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재료라는 것을 알려 주었다. 붓 이외에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손 글

씨로 영역을 열어 두기도 한다.

1990년대 초반, 국내 대학에 신설된 학과에서 공부한 젊은 서예가들의 혁신적 사고에서 시작된 멋글씨는 한글 서체의 조형적 한계와 디자인 수준의 하향화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를 필요로 하던 디자이너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한국 영화의 중흥기와 맞물려 영화 포스터와 홍보물 디자인에 등장하면서 대중에게 빠르게 익숙해졌고 진부한 서체에 한계를 느끼고 있던 책 디자이너들의 숨통을 틔워 주었다. 고급·저급을 막론하고 제품 이름 등 포장에 쓰이는 글자를 비롯해 기업의 상징(CI), 개별 브랜드의 상징(BI), 방송 프로그램·공연·영화·축제 제목과 간판 등 폭넓은 분야에서 디자이너들이 멋글씨를 활용하면서, 급기야 한국직업연구원이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래퍼)를 21세기에 촉망받는 직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필묵’과 ‘술통’이라는 두 필방은 수준 높은 글자를 선보이면서 시장을 열었을 뿐 아니라 강좌를 운영하면서 멋글씨의 보급을 주도했다.

멋글씨는 폰트와 달리 주문자 하나를 위해 단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한 용도가 전제되지 않은 글자를 복제하여 대량으로 판매하는 유통 과정도 없다. 물론 폰트로 제작하는 경우는 다르다. 멋글씨는 적게는 한 글자에서 많게는 열 자를 넘지 않는 디스플레이용 글자에 가장 잘 어울리고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수공예적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각광을 받으며, 기업 상징(CI)과 폰트를 대체하면서 멋글씨 예술가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활동 인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회사 중심의 서체 회사들과 달리 개인이 이름을 알리면서 자유 활동가(프리랜서)나 작가로 활동하는 것이 매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0~30대 세대들은 붓글씨와 거기서 유래한 대부분의 본문용 서체

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그들은 바둑판처럼 생긴 공책에 한 자 한 자 글자를 써 넣는 것보다 컴퓨터나 모바일의 자판을 쉽게 두드리고, 이따금 일기장에 자잘하게 모양을 내서 글자를 쓴다. 미니홈피 웹 폰트의 상당수는 그들의 글씨체와 장식 취미를 반영한 것이다. 세로획을 길게 내려 그을 이유가 없다. 붓이 머무는 지점에서 펜을 멈출 이유도 없다. 문자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변화는 상황에 맞추고, 그 상황은 규범이 아니라 편리함과 습관일 것이다. 연필이나 사인펜으로 끄적거리고 가로로 혹은 방향 없이 써 대는 새로운 세대에게 한글의 전형이 어떤 것이라고 강요할 수 없다. 붓글씨를 기초로 하는 멋글씨도 이젠 또 하나의 전통이나 진부가 되어 가고 있다.

작은 필기도구를 이용한 손 글씨가 새로운 유행으로 부상하면서 더 젊은 세대가 만드는 글자가 나타나고 있다. 뿌리가 없는 글자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세종 이후 수백 년 동안 자기 멋에 따라 글자를 썼던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서체의 뿌리가 된 것처럼, 자잘하고 오글거리는 글자, 때로 염려스럽기까지 한 필순과 표기법이 얼마든지 미래 한글 모양의 뿌리가 될 수 있다. 한글 음소 형태의 전격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한 손 글씨는 책 표지뿐 아니라 포스터, 상품 브랜드 및 기업의 상징 등에서 기존 인쇄 시스템을 전제로 한 폰트를 대신하여 한글의 외형적 표정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 4. 기업 전용 서체와 전자책 전용 서체

인쇄 매체용 서체와 웹 폰트 시장의 한계를 느낀 서체 회사들은 최근 기업과 정부 기관 등의 전용 폰트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활

판 시대에도 주요 신문사들을 중심으로 전용 서체는 있었지만 자사의 상품인 기사를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적 서비스용으로 서체를 제작하려는 기업과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 2007년 제작된 삼성전자의 서체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의 전용 서체는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후 서울시와 아모레퍼시픽의 전용 서체는 다양하게 적용되고 일반에도 무료로 배포되었다. 투자에 비해 높은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전용 서체를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들이 무료 배포를 목적으로 질 높은 서체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서체 회사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좋은 서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키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은 폰트를 개발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서체의 도형에 대한 저작권을 전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어렵게 한글을 디자인하고 폰트로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불법 복제로 소비자들마저 서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애써 개발한 서체와 그 시장에 대한 평가도 큰 짐이 된다. 폰트든 손 글씨든 깊이 있는 연구와 조형적 수준을 유지하려는 의지와 상호 반성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빠르게 뿌리내린 글자 문화의 정체와 퇴보를 막고 새로운 창조와 수익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20여 년간 여름철 꽃처럼 만개한 수많은 한글 서체와 손 글씨들은 또 한 시대를 스스로 개척해 갈 것이다. 전자책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대형 출판사들은 전용 서체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세종대왕이, 또 스티브 잡스가 글자를 통해 했던 것처럼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는 글자를 만드는 사람들의 책임이 지난 어느 때보다도 막중해질 것이다.

## 한글 글꼴의 조형적 변천

박병천 경인교육대학교 명예 교수

### 1. 머리말

이 글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자인 한글이 1443년에 창제된 후 현재까지 570여 년 동안 인쇄-출판용 한글 글꼴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15편의 한글 고전 문헌과 현대 한글 폰트의 서체를 대상으로 변천사적 측면에서 밝힌 것이다.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 곧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언어학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 위상이 높아졌지만, 글꼴 자체의 서체적 가치에 대해 깊이 연구되거나 인정받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훈민정음 창제 이후 현재까지 한글의 서체인 글꼴의 변천을 밝혀 본다는 것은 의의가 크다 하겠다.

한글 글꼴이란 용어는 서체(書體)적인 면, 자체(字體)적인 면, 폰트(font)적인 면 등에서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다. 한글 글꼴은 표현 방법에 따라 인쇄를 위한 활자나 목판에 의해 이루어진 판본체(版本體)가 있고 직접 필기구로 쓴 필사체(筆寫體)가 있다. 전자에는 바탕체[명

조체, 돋움체고딕체 등 글자를 제도화(製圖化)하여 제작한 자체(字體)가 있고, 후자에는 정자체, 흘림체 등 펜글씨나 붓글씨체 등의 서체(書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 시대 한글 창체 이후 현재까지 인쇄·출판을 위해 제작한 목활자, 금속활자, 목판본, 한글 폰트 등의 한글 글꼴을 대상으로 변천사적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한글 글꼴은 조선 초기(15~16세기)의 《훈민정음》 해례본(14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글자인 돋움체 유형의 곧고 딱딱한 글꼴에서 출발하여, 조선 중기(17~18세기)의 《언해태산집요》(1608), 《노걸대언해》(중간본, 1745) 등에 나타나는 작아진 정자체 유형의 유연하고 정연한 글꼴을 거쳐, 조선 후기(19~20세기)의 《여사서》언해(목판본, 1907), 《삼성훈경》(1880) 등에서 보이는 더 작아진 간결한 획형의 글꼴로 변했다. 이후 현대에 이르러 각종 활자 개발 활용 시대를 거쳐 돋움체, 바탕체, 궁체 등 컴퓨터용 서체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하면서 현대화한 한글 폰트의 출판 정보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상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글꼴의 변천사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조선 초기와 중기에 나온 고전 문헌 서체 10종과 조선 후기 고전 문헌 서체 3종 및 현대 폰트 2종 등 전체 15종의 글꼴을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한글 관련 고문헌이나 폰트에 나타나는 ①모음 글꼴, ②자음 글꼴, ③초중성 합자, ④초중중성 합자 등에 대한 집자(集字) 도판을 작성하여 특징을 분석하였다.

- 조선 초기: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언해본, 《몽화상법어약록》언해, 《훈몽자회》, 《경민편》
- 조선 중기: 《언해태산집요》, 《노걸대언해》, 《언해납약중

치방》, 《오륜행실도》, 《고산유고》

- 조선 후기: 《삼성훈경》, 《여사서》 언해, 《조선문지해》
- 현대 폰트: 견고딕체, 이미경궁체

한글 글꼴의 특징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문자의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 결구법(結構法)<sup>1)</sup>과 자모음의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 용필법(用筆法)<sup>2)</sup>이 있다. 이러한 결구법과 용필법을 분석할 때는 고전 문헌의 한글 문자에 나타나는 자모음별 획형을 각각 분석하고, 다시 종합하여 합자별 글꼴의 특징을 찾아내야 한다.

이 글에서는 2장에서 한글 글꼴 변천 자료의 개황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한글 자모음 획형의 시기별 조형적 특징을, 4장에서는 한글 합자 글꼴의 시기별 조형적 특징을 밝히고, 5장에서 한글 글꼴의 변천사적 특징을 요약하고 제안적 의견을 밝혀 보고자 한다.

## 2. 한글 글꼴 자료의 개황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글에서는 한글 창제 이후 현재까지 인쇄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글꼴을 대상으로 한글 글꼴의 변천사적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글 고전 문헌 중 목판본, 활자본 13종과 현대 한글 폰트 2종 등 전

---

1) 결구법: 자모음으로 이루어진 합자의 짜임을 결구라고 하고, 결구하는 방법을 결구법이라 한다. 이러한 합자의 결구 요소로 외형·간가·위치·중심(外形·間架·位置·中心) 등이 있다.

2) 용필법: 자모음의 기본 획형을 쓰는 방법을 용필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음과 모음 획형을 분석하는 요소로 대소·장단·방향·곡직·방원·조세·전절·접필(大小·長短·方向·曲直·方圓·粗細·轉折·接筆) 등이 있다.

체 15종을 표 1과 같이 시기별로 5종씩 선정하였다. 이같이 선정한 한글 고문헌과 한글 폰트 2종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밝혀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글 고문헌 13종의 일반 서지 사항과 규격 및 형식적인 특징, 그리고 서체의 특징을 밝혀 본다.<sup>3)</sup> 고전 문헌 명칭의 특징을 보면 문헌 원전이 순수 한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문본을 언해(諺解)했거나 한문과 한글을 혼용하여 간행한 것으로 밝혀진다. 그것은 문헌명의 앞뒤에 언해, 언해본, 해례본, 직해 등의 용어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고문헌은 국보이며 세계기록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하여 보물로 지정된 《훈민정음》 언해본,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 등으로, 대부분 중요 고문헌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강대학교, 간송미술관, 한독의학박물관, 고산유물전시관, 세종대왕기념관, 동경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귀중본들이다.

간행 시기별로 보면 조선 초기(15~16세기)인 1446년에 최초로 간행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한 5종, 조선 중기(17~18세기)에 간행한 5종, 조선 후기(19~20세기)에 간행한 3종 등을 선정하였다.

한글 글꼴의 판종(版種)은 목판본이 10종, 활자본이 2종, 석판본 1종이며 현대 한글 폰트로는 견고딕체 1종, 필사궁체 1종이다. 이들 고문헌의 문자 서체는 대부분 붓으로 쓴 듯한 부드러운 필사체 유형의 정자체이고, 돌움체(고딕체) 유형의 서체는 적은 편이다.

13종 고문헌의 권수는 1권짜리에서 5권짜리까지 있고, 장수(2면

---

3) 박병천(2011~2013), 한글 서예사적 측면에서 본 고전 자료 해설 연재 1~25회, 《월간 서예》, 서울미술문화원 발행. 한글 서예사적 측면에서 본 고전 자료 해설 연재 1~25회(2011년 9월호~2013년 9월호)에서 인쇄-출판용 서체 연재물 13종을 선정했다.

표 1 한글 글꼴의 변천사적 분석 자료 일람표

구분	서지 사항							규격 및 형식			서체	
	문헌명	한자명	소장처	간행 연도	간행 관계자	판종	권수	장수	규격 cm	행수		
시기	1	훈민정음 (해례본)	訓民正音 (解例本)	국보 70호 간송미술관	1446	세종 정인지 등	목판본	1	33	20.1 29.3	7 8	서체  돋움체
	2	훈민정음 (언해본)	世宗御製訓民正音 (諺解本)	보물 745-1호 서강대	1459	신미 수미 등	목판본	월인석보 1권중부분	15	22.5 32.5	7	정자
	3	몽신회상 법어약록 (언해)	蒙山和尚法語略錄 (諺解)	보물 769호 세종기념관	1472	신미 번역	목판본	1	71	20.0 30.9	8	돋움체 (월인)
	4	훈몽자회	訓蒙字會	교토 예산문고	1527	최세진	활자본	3권 1책	59	20.0 29.2	10	정자
	5	경민편 (언해)	驚民編 (諺解)	규장각	1519	김정국	목판본	1	46	21.8 33.5	10	정자
조선 중기	1	언해태산 집요	諺解胎産集要	보물 1088호 국립중앙 도서관	1608	허준	목판본	1	81	23.3 36.8	11	정자
	2	노걸대언해	老乞大諺解	규장각	(평양김영판) 1745	-	목판본	2권 2책	133	23.0 36.0	10	정자

구분 시기	서지 사항							규격 및 형식				서체
	문헌명	한자명	소장처	간행 연도	간행 관계자	판종	권수	장수	규격 cm	행수		
조선 후기 및 현대	3	인해남약 증지방	諺解蠟藥症治方	규장각	1700년대 말	내의원	목판본	1	37	22.3 33.3	10	정자
	4	오륜행실도	五倫行實圖	세종기념관	1797	이병모 등	활자본	5권 4책	327	19.0 31.5	10	정자
	5	고신유고	孤山遺稿	고신유물 전시관	1796	윤신도 서정수 간행	목판본	6권 6책	17 (제6권)	22.5 34.0	10	정자
	1	삼성훈경	三聖訓經	박병천	1880	최성환	목판본	1	31	14.2 22.4	10	정자
	2	여사서 (언해)	女四書 (諺解)	세종기념관	1907	박민환	목판본	4권 2책	159	19.7 30.5	10	정자
3	조선문지해	朝鮮文直解	박병천	1924	이진환	석판본 추경	1	8	15.0 22.0	8	정자	
4	현대 폰트 서체 개발	견고드체	-	1990년대	-	폰트체	-	-	-	-	-	돋움체
5	현대 폰트 서체 개발	이미경 공체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2004	-	폰트체	1	2,350자	-	-	-	반흘림체

분량)는 8장에서 327장까지 다양하며, 책의 크기 역시 다양하여 가로 크기가 작은 것은 14cm에서 큰 것은 23cm까지 있고, 세로 크기는 22cm인 것부터 36cm가 되는 것이 있다. 책 1면의 판면에 나타나는 행수를 보면 적게는 7행에서 많게는 11행 형식이 있는데 10행짜리가 가장 많은 편이다. 면당 행수가 적은 것은 문자 1개의 크기가 큰 편이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내려올수록 행수가 많아진 반면 문자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 3. 한글 자모음 글꼴의 시기별 조형적 특징

#### 3.1. 모음 획형의 글꼴 변천

한글 모음의 종류와 표기 방법은 최초의 한글 원전인 《훈민정음》 해례본(1446)의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조형적 형태에 의거하여 표기 순서를 약간 바꾸어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훈민정음》 해례본 순서: · ㅡ ㅣ ㅜ ㅓ ㅗ ㅛ ㅝ ㅟ ㅙ ㅞ ㅟ  
(11자)
- 조형적 표기 순서: (점획모음 유형) · ㅡ ㅜ ㅛ ㅗ ㅝ (종모음 유형) ㅣ ㅓ ㅛ ㅛ ㅟ (11자)

조선 시대 13종의 한글 고문헌과 2종의 현대 폰트 문자에 나오는 점모음류 1종, 횡모음류 5종, 종모음류 5종 등 11종의 모음 획형을 조형적 표기 순서로 집자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 문자의 기본 획형도

획형	•	—		/	□	○
관련 자모	ㄱ ㄴ ㄷ ㄹ 등 ㅏ ㅑ ㅓ ㅕ 등	ㅓ ㅕ ㅗ ㅛ	ㅓ ㅑ ㅓ ㅕ	ㅓ ㅑ ㅓ	ㅓ ㅕ ㅗ	ㅇ ㅎ
기본 획형						

### 3.1.1. 한글 글꼴의 생성과 조형적 특징

한글 글꼴은 《훈민정음》 해례본(1446)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한글 생성 원리와 기본 획형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sup>4)</sup>

한글 자모 28자 중 11자가 모음인데, 중성은 하늘(天)의 둥글을 본떠 아래아(•)를 만들고, 땅(土)의 평평함을 본떠 ‘—’를 만들고, 사람[人]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를 만들었다. 이 같은 삼재(三才, 천지인)를 기본으로 서로 조합하여 1차로 ‘ㄱ, ㅋ, ㆁ, ㆁ’를, 2차로 ‘ㄴ, ㄷ, ㅌ, ㄹ’를 만들었다고 한다.

한글 547자와 한자 4,771자를 혼용하여 편찬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글 서체는 전서체형, 한자 서체는 행서체이다. 특히 한글 문자는 서선(書線)을 굵게 나타내어서인지 한자보다 확실하고 크게 돋보인다. 한글의 글자꼴은 《훈민정음》 정인지 서문에 “象形而字倣古篆(상형이자방고전)”이라고 했듯이 한자의 전서체 글자와 비슷하게 나타났다.<sup>5)</sup> 이렇게 만들어진 자모음의 공통적인 기본 획형 ‘•, —, |, /,

4) 박병천(2011), 《훈민정음》 해례본 서체 해설, 《월간 서예》, 2011년 9월호(서울미술문화원 발행)에서 발췌.

ㅁ, ㅇ'의 모양은 그림 1과 같다.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 글꼴의 규격과 획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문자의 서선 획형을 보면 굵기를 일정하게 나타내되 처음과 끝 부분을 둥글게 원 획형으로 나타냈고, 서선의 방향을 가로선은 수평으로, 세로선은 수직으로, 사향 서선은 사향으로 대칭되게 나타냈다. 한글 서체의 획형은 예의편(수정 부분 제외)과 해례편이 서로 같으나 크기는 예의편이 1:1.14~1.20 정도로 조금 큰 편이다.

해례편의 기본 모음 'ㅡ'는 가로 15mm·세로 1.5mm, 'ㅣ'는 가로 1.5mm·세로 14mm 정도로 가로선이나 세로선 굵기를 비슷하게 나타냈고, 기본 자음 'ㅁ'은 가로 13mm·세로 12.5mm, 'ㅇ'은 가로 13mm·세로 12.5mm 정도로 가로 폭과 세로 폭을 각각 규격을 같게 하여 그린 문자같이 나타났다. 이른바 굴림체(환고딕체)로 그린 글자(레터링: lettering) 모양으로 나타났다.

- '·'는 원형의 큰 점은 독립된 '아래야'로 쓰이고 작은 점은 모음의 점으로, 원형이다.
- 'ㅡ'는 수평선으로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은 둥근 모양으로 나타냈고, 방향은 180도 수평이다.
- 'ㅣ'는 수직선으로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은 둥근 모양으로 나타냈고, 방향은 90도 수직이다.
- '/'은 사향선으로 끝 부분은 둥근 모양으로 나타냈고, 방향은 우측 사선과 대칭 방향이다.

---

5) 《훈민정음》의 판각용 한자는 안평대군이 썼고, 한글은 강희안이 작도(作圖)한 것으로 추정한다.

- ‘ㄹ’은 선의 굵기가 일정하고 4각이 직각을 이루되, 좌우 폭이 상하 폭보다 조금 크다.
- ‘ㅇ’은 선의 굵기가 일정한 원 모양을 이루되 좌우 폭을 상하 폭보다 조금 크게 나타냈다.

### 3.1.2. 한글 글꼴 변천의 조형적 특징

#### 3.1.2.1. 조선 초기 모음 획형의 조형적 특징(그림 2 참조)

조선 초기 문자의 기본 획형은 그러서 나타난 환고딕체형의 《훈민정음》 해례본의 글꼴을 시작으로 《월인석보》 1권(1459)의 어제 월인석보 서 부분 글꼴과 유사한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의 글꼴과 이를 더 부드럽게 필사화한 《월인석보》 1권의 석보상절 서 부분과 유사한 《훈민정음》 언해본(1459)의 글꼴이 등장하게 된다. 즉, 기본 획형 서선의 처음과 끝 부분이 둥근 원획으로 이루어진 환고딕체 유형부터 처음 부분은 각이 지게 뾰족하고 끝 부분은 둥글게 원획으로 나타난 첨환(尖圓)고딕형으로 나타난 글꼴까지 출현하게 된다.

그 후 1500년대에는 유연하게 나타난 《훈민정음》 언해본 모음 획형보다 더 유연한 《훈몽자회》(1527)와 《경민편》(1519)의 모음 획형이 나타난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의 ‘ㄴ’나 ‘ㄷ’선은 굵기가 일정하고 직선형이며 운필 방향이 수평-수직이지만 《훈몽자회》나 《경민편》은 선의 굵기가 가운데는 가늘고 처음과 끝 부분은 굵고, 선의 굵기가 곡선적이며, 가로선의 방향이 수평선이 아닌 것으로 더욱 부드럽게 나타났다. 또한 《훈몽자회》나 《경민편》에서 ‘ㄱ, ㅋ, ㆁ, ㆅ’의 짧은 세로 방향의 선이나 점은 방향, 굵기, 길이, 접필 위치 등의 변화가 많고, 처음 부분을 구부러서 뾰족하게 나타났다. 가로선과 세로선의 끝 부분은 둥글고 굵게 나타내되 불규칙하

게 표현한 획형도 보이는 등 해례본 모음 획형보다 큰 변화를 보인다.

한편 모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래아(·)는 창제 직후 《용비어천가》(1447), 《석보상절》(1447), 《월인천강지곡》(1447), 《동국정운》(1448) 등에서는 원형으로 쓰이다가 《월인석보》(1459), 《훈민정음》 언해본(1459) 등의 획형부터는 사향물방울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 3.1.2.2. 조선 중기 모음 획형의 조형적 특징(그림 2 참조)

17~18세기 조선 중기의 한글 문자 모음 중 좌상-우하 방향의 사향점(斜向點) 획형을 보면 17세기 초에 나온 《언해태산집요》(160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한 물방울 모양으로 시작하여 《고산유고》(1798)에 이르기까지 방향의 표현이 약간 바뀌고, 기본적인 획형은 강하거나(《언해납약증치방》), 부드러운(《고산유고》) 느낌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횡모음의 기본인 ‘ㅡ’획은 곡직(曲直) 표현에서 곧게 나타낸 것(《노걸대언해》, 《오륜행실도》)과 곡선적으로 나타낸 것(《언해납약증치방》)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ㅡ’를 기본으로 상하 위치에 세로선을 한 개나 두 개를 접필시켜 나타낸 횡모음이 있는데 두 점획의 길이·방향·접필 위치·깊이·유연성을 다르게 표현하는 등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면서도 문헌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종모음의 기본인 ‘ㅣ’획은 5개 문헌 모두 처음 부분(입필 부분)은 뾰족하게 구부렸다. 끝 부분(수필 부분) 획형은 《언해태산집요》와 《고산유고》는 뾰족하게 나타냈으나, 《노걸대언해》(1745)와 《언해납약증치방》(1700년대 말)과 《오륜행실도》(1797)는 뾰족하게 나타냈다. 5종 고문헌의 종모음인 ‘ㅏ, ㅑ, ㅓ, ㅕ, ㅗ’의 세로획은 각

각의 기본 획형 ‘丨’와 같으나 수평점이나 치킴점은 접필 위치와 크기, 방향 등을 조금씩 다르게 나타냈다.

### 3.1.2.3. 조선 후기 모음 획형의 조형적 특징(그림 2 참조)

19~20세기인 조선 후기 고문헌 《삼성훈경》(1880), 《여사서》 언해(1907)의 모음 획형은 조선 중기의 획형과 유사하나 조금 강하게 느껴진다. 한편 《훈민정음》에 대하여 해설을 한 《조선문직해》(1924)의 모음 글꼴은 현대 한글 폰트인 견고딕체와 유사하게 그린 글꼴로 나타났다.

아래아(·)의 획형은 《삼성훈경》과 《여사서》 언해는 사향물 방울 획형을 강하게 나타냈고, 《조선문직해》는 원형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삼성훈경》과 《여사서》 언해의 횡모음 기본 획인 ‘ㄴ’획은 조선 중기 《오륜행실도》 기본 획과 비슷하되 조금 더 강직한 느낌을 풍기지만, 《조선문직해》는 아주 다른 획형으로 나타났다. ‘ㄴ, ㄷ, ㄹ, ㅁ, ㅂ’의 가로획은 기본 획과 유사하나 짧은 획 표현을 보면 《삼성훈경》은 길이를 길게, 방향을 자유분방하게 나타냈으나 《여사서》 언해는 짧게 정돈된 느낌이 나게 표현했다. 반면 《조선문직해》는 가로획을 일정한 굵기로 현대 폰트 서체인 견고딕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세로획인 ‘丨’획은 《삼성훈경》과 《여사서》 언해는 입필 부분은 뾰족하게 구부렸고, 수필 부분은 가늘어지게 하거나 뚱뚱하게 불규칙적으로 나타났다. 《조선문직해》는 입필-수필 부분을 수평으로 나타냈고, 굵기를 일정하게 수직 방향으로 아주 굵게 나타났다. ‘ㅌ, ㅍ, ㅑ, ㅓ’의 수평 방향 점획은 《삼성훈경》과 《여사서》 언해는 가볍게 사향으로 접필시켰으나, 《조선문직해》는 수평으로 굵게 접필시켜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2 조선 시대 고문헌과 현대 한글 폰트의 모음 획형 비교도

서체	모음		황모음						정모음							
	점	획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ㅣ	ㅈ	ㅊ	ㅋ	
조선 초기	1	훈민정음 (해례본)	·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ㅣ	ㅈ	ㅊ	ㅋ
	2	훈민정음 (인해본)	·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ㅣ	ㅈ	ㅊ	ㅋ
	3	몽신화상 범어약록 (인해)	·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ㅣ	ㅈ	ㅊ	ㅋ
조선 중기	1	경민편 (인해)	·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ㅣ	ㅈ	ㅊ	ㅋ
	2	인해태신 집요	·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ㅣ	ㅈ	ㅊ	ㅋ
	2	노경대언해	·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ㅣ	ㅈ	ㅊ	ㅋ

서체	모음		점	형모음					음모음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ㅑ	ㅓ	ㅕ	ㅗ	ㅛ
조신 후기 및 현대	3	연해남약 증치방	·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ㅑ	ㅓ	ㅕ
	4	오물행실도	·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ㅑ	ㅓ	ㅕ
	5	고신유고	·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ㅑ	ㅓ	ㅕ
	1	삼성훈경	·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ㅑ	ㅓ	ㅕ
	2	여사서 (안해)	·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ㅑ	ㅓ	ㅕ
3	조선문적해	●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ㅑ	ㅓ	ㅕ	
4	현대 폰트 고딕	●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ㅑ	ㅓ	ㅕ	
5	현대 폰트 궁체	●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ㅑ	ㅓ	ㅕ	

현대 한글 폰트인 견고딕체는 수직선, 수평선과 같은 일정한 굵기의 직선 획형으로 나타냈고, 궁체는 반흘림체로 부드럽게 필사체 느낌이 나게 나타냈다.

### 3.2. 자음 획형의 글꼴 변천

한글 자음의 종류와 표기 방법은 최초의 한글 원전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하되 조형적 형태에 의거하여 표기 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훈민정음》 해례본 순서: 아음 ㄱㅋㅇ, 설음 ㄷㅌㄴ, 순음 ㅂ  
ㅍㅌ, 치음 ㅅㅆㅈ, 후음 ㅇㅎㅇ, 반설음 ㄹ, 반치음 △ (17자)
- 조형적 표기 순서: 아음 ㄱㅋㅇ, 설음 ㄴㄷㅌㄹ, 순음 ㅁㅂㅍ,  
치음 ㅅㅆㅈ△, 후음 ㅇㅎㅎ (17자)

17종의 자음 종류 획형 중에서 고문헌이나 현대 폰트 종류에 따라 활용을 하지 않은 ‘ㅇ, △, ㅇ’은 그림 3, 4에서와 같이 집자 자료가 없어 제시하지 못했다.

#### 3.2.1. 한글 글꼴의 생성과 조형적 특징

한글 자모 28자 중 자음 17종은 발음 기관의 어금니 모양을 본떠서 아음(牙音) ‘ㄱ’을, 혀의 모양을 본떠서 설음(舌音) ‘ㄴ’을, 입술 모양을 본떠서 순음(脣音) ‘ㅁ’을, 이의 모양을 본떠서 치음(齒音) ‘ㅅ’을,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후음(喉音) ‘ㅇ’을 만들고 이에 가획하거나 변체(變體)하여 12종을 만들었다고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밝혔다.

따라서 기본 획형(그림 1)의 규격과 형태에 준하여 다음과 같은 특

징의 서선이 조합되어 《훈민정음》 해례본의 자음 17종이 그림 3, 4와 같이 이루어졌다.

- ‘ㅡ’는 수평선으로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은 둥근 모양으로 나타났고, 방향은 180도 수평이다.
- ‘ㅣ’는 수직선으로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은 둥근 모양으로 나타났고, 방향은 90도 수직이다.
- ‘/’은 사향선으로 끝 부분은 둥근 모양으로 나타났고, 방향은 우측 사선과 대칭 방향이다.
- ‘ㄹ’은 선의 굵기가 일정하고 네 각이 직각을 이루되, 좌우 폭이 상하 폭보다 조금 크다.
- ‘ㅇ’은 선의 굵기가 일정한 원모양을 이루되 좌우 폭을 상하 폭보다 조금 크게 나타냈다.

### 3.2.2. 한글 글꼴 변천의 조형적 특징

#### 3.2.2.1. 조선 초기 자음 획형의 조형적 특징(그림 3, 4 참조)

한고딕체형과 유사한 《훈민정음》 해례본(1446)의 자음 획형은 기본 획형 서선의 처음과 끝 부분 획형을 둥근 원획으로 나타내고, 굵기를 일정하게 나타냈으며, 서선 방향을 수직-수평-대칭형 사향으로 나타내되 방향이 바뀌는 부분은 직각으로 꺾어서 나타낸 특징이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자음 획형이 유사한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1472)에서는 처음 부분은 각이 지게 뾰족하게, 끝 부분은 둥글게 원획으로 나타낸 첨환고딕형의 글꼴이 출현하였다. 이후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의 자음 획형과 유사하되 서선의 굵기와 길이를 변화시키고 서선 방향을 다양화한 《훈민정음》 언해본과 《훈몽자회》의 자

그림 3 조선 시대 고문헌과 현대 한글 폰트의 자음 획형 비교도 1

서체	모음			설음					순음			
	ㄱ	ㅋ	ㆁ	ㄴ	ㄷ	ㅌ	ㄹ	ㅍ	ㅂ	ㅃ	ㅍ	
조선 중기	1	ㄱ	ㅋ	ㆁ	ㄴ	ㄷ	ㅌ	ㄹ	ㅍ	ㅂ	ㅃ	ㅍ
	2	ㄱ	ㅋ	ㆁ	ㄴ	ㄷ	ㅌ	ㄹ	ㅍ	ㅂ	ㅃ	ㅍ
	3	ㄱ	ㅋ	.	ㄴ	ㄷ	ㅌ	ㄹ	ㅍ	ㅂ	ㅃ	ㅍ
	4	ㄱ	ㅋ	ㆁ	ㄴ	ㄷ	ㅌ	ㄹ	ㅍ	ㅂ	ㅃ	ㅍ
	5	ㄱ	ㅋ	.	ㄴ	ㄷ	ㅌ	ㄹ	ㅍ	ㅂ	ㅃ	ㅍ
조선 중기	1	ㄱ	ㅋ	.	ㄴ	ㄷ	ㅌ	ㄹ	ㅍ	ㅂ	ㅃ	ㅍ
	2	ㄱ	ㅋ	.	ㄴ	ㄷ	ㅌ	ㄹ	ㅍ	ㅂ	ㅃ	ㅍ

서체	모음	아음			성음				순음		
		ㄱ	ㅋ	ㆁ	ㄴ	ㄷ	ㅌ	ㄹ	ㅁ	ㅂ	ㅅ
3	연해남약 증치방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4	오류행실도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5	고신유고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1	삼성훈경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2	여사서 (안해)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3	조선문지해	ㄱ	ㅋ	ㅇ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4	현대 폰트 고딕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5	현대 폰트 궁체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ㄱ	ㅋ	.	ㄴ	ㄷ	ㅌ	ㄹ	ㅁ	ㅂ	ㅅ

조선  
후기  
및  
현대

그림 4 조선 시대 고문헌과 현대 한글 폰트의 자음 획형 비교도 2

서체	모음				처음				후음				병서자음			
	ㅅ	ㅈ	ㅊ	ㅌ	ㅅ	ㅈ	ㅊ	ㅌ	ㅇ	ㅁ	ㅇ	ㅇ	ㄱ	ㅋ	ㆁ	ㆁ
조선 초기	1	ㅅ	ㅈ	ㅊ	ㅌ	○	○	○	○	○	○	○	ㄱ	ㅋ	ㆁ	ㆁ
	2	ㅅ	ㅈ	ㅊ	ㅌ	○	○	○	○	○	○	○	ㄱ	ㅋ	ㆁ	ㆁ
	3	ㅅ	ㅈ	ㅊ	ㅌ	○	○	○	○	○	○	○	ㄱ	ㅋ	ㆁ	ㆁ
	4	ㅅ	ㅈ	ㅊ	ㅌ	○	○	○	○	○	○	○	ㄱ	ㅋ	ㆁ	ㆁ
	5	ㅅ	ㅈ	ㅊ	ㅌ	○	○	○	○	○	○	○	ㄱ	ㅋ	ㆁ	ㆁ
조선 중기	1	ㅅ	ㅈ	ㅊ	ㅌ	○	○	○	○	○	○	○	ㄱ	ㅋ	ㆁ	ㆁ
	2	ㅅ	ㅈ	ㅊ	ㅌ	○	○	○	○	○	○	○	ㄱ	ㅋ	ㆁ	ㆁ

서체	모음	처음				후음			병서지음		
		ㄱ	ㅋ	ㆁ	ㅇ	ㅇ	ㅇ	ㅇ	ㅁ	ㅂ	ㅅ
3	언해남약 중치반	人	ㄱ	ㄱ	○	ㅇ	ㅇ	ㅁ	ㅂ	ㅅ	ㅅ
		人	ㅋ	ㄱ	○	.	ㅇ				
		人	ㆁ	ㄱ	○	.	ㅇ				
4	오류행실도	人	ㄱ	ㄱ	○	ㅇ	ㅇ	ㅁ	ㅂ	ㅅ	ㅅ
		人	ㅋ	ㄱ	○	.	ㅇ				
		人	ㆁ	ㄱ	○	.	ㅇ				
5	고산유고	人	ㄱ	ㄱ	○	ㅇ	ㅇ	ㅁ	ㅂ	ㅅ	ㅅ
		人	ㅋ	ㄱ	○	.	ㅇ				
		人	ㆁ	ㄱ	○	.	ㅇ				
1	삼성훈경	人	ㄱ	ㄱ	○	ㅇ	ㅇ	ㅁ	ㅂ	ㅅ	ㅅ
		人	ㅋ	ㄱ	○	.	ㅇ				
		人	ㆁ	ㄱ	○	.	ㅇ				
2	여사서 (언해)	人	ㄱ	ㄱ	○	ㅇ	ㅇ	ㅁ	ㅂ	ㅅ	ㅅ
		人	ㅋ	ㄱ	○	.	ㅇ				
		人	ㆁ	ㄱ	○	.	ㅇ				
3	조선문적해	人	ㄱ	ㄱ	○	ㅇ	ㅇ	ㅁ	ㅂ	ㅅ	ㅅ
		人	ㅋ	ㄱ	○	.	ㅇ				
		人	ㆁ	ㄱ	○	.	ㅇ				
4	현대 폰트 고딕	人	ㄱ	ㄱ	○	ㅇ	ㅇ	ㅁ	ㅂ	ㅅ	ㅅ
		人	ㅋ	ㄱ	○	.	ㅇ				
		人	ㆁ	ㄱ	○	.	ㅇ				
5	현대 폰트 궁체	人	ㄱ	ㄱ	○	ㅇ	ㅇ	ㅁ	ㅂ	ㅅ	ㅅ
		人	ㅋ	ㄱ	○	.	ㅇ				
		人	ㆁ	ㄱ	○	.	ㅇ				

조선  
후기  
및  
현대

음 획형이 등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음 획형의 가로 서선은 가늘게, 세로 서선은 굵게 나타내고, 서선을 강하게 하고 운필 방향은 크게 변화시킨 《경민편》의 자음 획형도 나타난다.

### 3.2.2.2. 조선 중기 자음 획형의 조형적 특징(그림 3, 4 참조)

조선 중기에 나온 부드러운 필사형의 5종 고문헌에 나타나는 자음 글꼴 중에서 《언해태산집요》(1608)는 다른 고문헌의 자음 획형 선보다 더 정돈되고 굵은 모양을 보여 준다.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이 나는 《노걸대언해》(1745)의 설음과 순음 종류의 자음 획형은 《오륜행실도》(1797)의 자음 획형과 가장 유사하고, 강하고 날카로움을 풍기는 《언해납약증치방》(1700년대 말)은 《고산유고》(1798)와 유사함을 보여 준다.

5종 고문헌에 나오는 자음 중 설음 ㄷ, ㅌ의 획형 특징을 비교해 보면 《언해태산집요》는 조선 초기 표기 방법과 같이 위 첫 가로선을 아래 ㄴ 부분보다 왼쪽으로 더 나가게 나타냈으나 나머지 4종 자음 획형은 다르게 표현했다. 5종 고문헌 중 《오륜행실도》의 ㅌ 획형은 첫 가로선은 ㄷ 부분과 사이를 띄어서 나타냈다.

그리고 《노걸대언해》와 《언해납약증치방》의 치음 ‘ㅅ, ㅆ, ㅈ’은 다른 3종의 고문헌과는 다르게 마지막 끝 획을 수직 하향 방향으로 운필하기도 했다.

### 3.2.2.3. 조선 후기 자음 획형의 조형적 특징(그림 3, 4 참조)

3종의 고문헌 중 《삼성훈경》과 《여사서》 언해의 자음 획형은 가로 방향의 선을 가늘게, 세로 방향의 선을 굵게 나타낸 경우, 가로선의 방향을 높여서 나타낸 경우, 전체 획형을 간결하고 강하게 나타낸 경

우 등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설음 중 ‘ㄷ, ㅌ’ 획형의 첫 가로선을 ‘ㄴ’보다 왼쪽으로 나가지 않게 나타낸 것은 조선 중기 고문헌의 자음 획형 표현과 같은 것으로 밝혀진다. 그런데 《삼성훈경》의 ‘ㅌ’은 조선 중기 《오륜행실도》의 ‘ㅌ’과 유사하게 첫 가로획을 아래의 ‘ㄷ’ 부분과 떨어져 나타냈고, 순음 ‘ㅂ’의 3, 4번 가로획을 2번 세로획과 떨어져 나타낸 획형은 12종 전체 고문헌의 ‘ㅂ’ 획형과는 다른 점이다.

《훈민정음》의 자음을 해설한 《조선문직해》(1924)의 자음 획형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자음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훈민정음》과 달리 기본이 되는 점과 선 사이를 떨어져 나타냈고,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모음의 기본선을 방획으로 나타낸 것에 반해 《조선문직해》에서는 원획으로 통일성 없이 나타났다. 또 순음 ‘ㅂ, ㅍ’ 획형을 곡선과 직선으로 막힌 도형처럼 나타낸 것도 《훈민정음》 해례본과 다른 점이다. 또 다른 고문헌 12종은 모두 ‘ㅇ, ㅈ, ㅎ’의 첫 점을 접 필시킨 데 반하여 《조선문직해》에서는 떨어져 나타났다. ‘ㅇ’ 획형은 아래 가로선을 좌우 사선과 떨어져 ‘A’ 모양으로 특이하게 나타내기도 했다. 이렇게 《조선문직해》에는 기이한 획형이 많은 편이다.

현대 한글 폰트인 견고딕체는 《훈민정음》 해례본 자음 획형들의 방향, 길이, 외형 등과 비슷하지만,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를 다르게 나타낸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 자음 획형과 다른 점이다. 또한 견고딕체의 설음 ‘ㄷ, ㅌ’의 첫 가로획을 아래 가로획과 길이를 같게 나타낸 것 역시 《훈민정음》 해례본 자음 획형과 다른 점이다.

현대 한글 폰트인 이미경궁체는 반흘림체로 유연하고 연결성의 느낌을 찾아볼 수 있다.

## 4. 한글 합자 글꼴의 시기별 조형적 특징

### 4.1. 초중성 합자의 글꼴 변천

초성을 자음으로, 중성을 모음으로 하여 이루어진 합자의 초중성 조합 방법은 두 가지로, ‘가, 나, 다’ 자와 같이 좌측에 초성 자음을, 우측에 중성 모음을 배회한 좌우 위치 합자, ‘고, 노, 도’ 자와 같이 상측에 초성 자음을 하측에 중성 모음을 배회한 상하 위치 합자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림 5, 6과 같이 고문헌 13종과 현대 폰트 2종에서 좌우 위치 합자를 집자하여 결구적 특징을 살펴본다.

한글 초중성 합자의 종류와 표기 방법은 최초의 한글 원전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하되 조형적 형태에 의거하여 표기 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초성 자음 종류: 아음 ㄱ ㅋ ㆁ, 설음 ㄴ ㄷ ㅌ ㄹ, 순음 ㅁ ㅂ ㅍ,  
치음 ㅅ ㅆ ㅈ ㅊ, 후음 ㅇ ㆁ ㅎ (17종)
- 중성 모음 종류: 종모음 ㅣ ㅏ ㅑ ㅓ ㅕ

좌측에 초성 자음 17종과 우측에 종모음 ‘ㅣ, ㅏ(ㅑ, ㅓ, ㅕ)’가 각각 결합되어 이루어진 합자의 자형을 비교하고자 하지만 15종 고문헌과 한글 폰트에 같은 문자가 공통적으로 고르게 나오지 않아 조선 중기의 합자는 몇 글자씩을 선택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 4.1.1. 조선 초기 초중성 합자의 특징(그림 5, 6 참조)

조선 초기의 좌우 위치 초중성 합자는 초성 자음과 중성 모음의 상하 폭 크기 차이가 작은 외형을 이루고 있는데 간행 연대가 1400년대부

터 1500년대로 갈수록 상하 폭 크기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합자의 좌우 폭 크기도 점점 좁아지는 키가 큰 문자가 등장하고, 자음의 가로선과 세로선의 기울기도 수평, 수직에서 기울어지는 변화의 양상을 보여 주며 일정한 굵기의 서선도 변화를 나타내는 합자로 변화였다.

최초의 합자인 15세기에 나온 《훈민정음》 해례본(1446) 문자의 ① 좌우 폭과 상하 폭의 크기를 나타내는 외형, ② 자모음의 좌우 사이의 간가, ③ 오른쪽 모음에 대한 자음의 상하 위치 등의 자형적 특징은 점점 변화하여 16세기 말에 나온 《정민편》(1519)의 결구 특징은 큰 변화를 보여 준다. 이 같은 합자 자형의 변화 정도는 《훈민정음》 해례본-《몽산화상 법어약록》 언해-《훈민정음》 언해본-《훈몽자회》-《정민편》 순서로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

#### 4.1.2. 조선 중기 초중성 합자의 특징(그림 5, 6 참조)

17~18세기 조선 중기 합자의 자형은 조선 초기 고문헌 5종에 나오는 17종의 비교 문자가 공통적으로 고르게 나오지 않아 초성 자음 아, 설, 순, 치, 후음의 대표적인 합자인 ‘가, 나, 다, 라, 마, 차, 하’ 자를 선택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조선 중기 합자는 조선 초기 합자와 비교할 때 문자의 외형, 자모음의 간가, 서선의 방향과 굵기, 자음의 크기와 위치 등이 크게 달라졌다. 전체적인 운필의 느낌이 직접 붓으로 쓴 듯 필사체의 서풍을 보여 준다.

합자의 상하 폭과 좌우 폭 크기 차이가 점점 커지는 순서, 즉 점점 키가 커진 합자의 외형은 《언해태산집요》(1608) - 《언해납약증치방》(1700년대 말) - 《고산유고》(1798) - 《오륜행실도》(1797) - 《노걸대언해》(1745) 순서로 나타난다.

그림 5 조선 시대 고문헌과 현대 한글 폰트의 초중성 합자 자형 비교도 1

서체		모음		아음류 문자			설음류 문자					순음류 문자				
				ㄱ	ㅋ	ㆁ	ㄴ	ㄷ	ㅌ	ㄹ	ㅍ	ㅂ	ㅃ	ㅅ		
조선 조기	1	훈민정음 (해례본)	꺨	꺩	꺪	꺮	꺱	꺴	꺷	꺸	꺻	꺼	꺾	꺿	꺾	꺿
	2	훈민정음 (안해본)	가	꺨	꺩	나	타	타	타	타	라	라	마	마	바	바
	3	몽신화상 번어양록 (안해)	가	꺨	꺩	나	다	다	다	다	라	라	마	마	바	바
	4	훈몽자회	가	꺨	꺩	꺪	기	기	기	기	그	그	고	고	교	교
	5	경민편 (안해)	가	꺨	꺩	나	타	타	타	타	라	라	마	마	바	바
조선 중기	1	언해태산 집요	가	꺨	꺩	너	디	디	디	타	라	미	미	비	비	
	2	노궤대안해	가			나	다				라	마				

서체	모음	아음류 문자			설음류 문자				순음류 문자			
		ㄱ	ㅋ	ㆁ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ㅈ
조신 혹기 및 현대	3	가			나	다		라	마			
	4	가			나	다		라	마			
	5	가			나	다		라	마	바		
	1	가			나	다		라	마			
	2	가			나	다		라	마			
	3	가	까		겨	기	꺠	그	고	교	구	
	4	가	카	아	나	다	타	라	마	바	파	
	5	가	카		나	다	다	라	마	바	좌	

그림 6 조선시대 고문헌과 현대 한글 폰트의 초중성 합자 지형 비교도 2

서체	모음	치음류 문자				후음류 문자			병서지음류 문자				
		ㅅ	ㅈ	ㅊ	ㅌ	△	○	◌	ㅎ	ㅍ	ㅅ	ㅈ	
조선 조기	1 훈민정음 (해례본)	ㅅ	ㅈ	ㅊ	ㅌ	△	○	◌	ㅎ				
	2 훈민정음 (안해본)	ㅅ	ㅈ	ㅊ	ㅌ	△	○	◌	ㅎ				
	3 몽산회상 범어양록 (안해)	ㅅ	ㅈ	ㅊ	ㅌ	△	○	◌	ㅎ				
	4 훈몽자회	규	비체계적 ←배자										
	5 경민편 (안해)	ㅅ	ㅈ	ㅊ	ㅌ	△	○	◌	ㅎ				
조선 중기	1 안해태산 집요	ㅅ	ㅈ	ㅊ	ㅌ	△	○	◌	ㅎ				
	2 노걸대언해		ㅈ						하				

서체	모음	처음류 문자				후음류 문자			범서자음류 문자				
		ㅅ	ㅈ	ㅊ	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조신 흥기 및 현대	3		자					하			ㅅ	ㅛ	
	4		자					하					
	5		사										
	1		지					하					
	2		자					하					
	3	규	비체계적 ←배자	ㅏ	ㅑ	ㅓ	ㅕ	하	비체계적 ←배자				
	4	사	자	차	ㅏ	ㅑ	ㅓ	하		견고덕 ←배자			
	5	사	자	차	ㅏ	ㅑ	ㅓ	하		이미경 ←공체			

합자에 나타나는 자음과 모음의 접필 정도를 설음 합자인 ‘나, 다, 라’ 자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나’ 자의 경우, 조선 초기 《경민편》(1519)을 비롯하여 조선 중기 5종 문헌과 조선 후기 2종 문헌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접필하였으나 같은 설음 합자인 ‘다, 라’ 자는 고문헌 종류에 따라 접필을 하지 않은 것이 있다.

#### 4.1.3. 조선 후기 초중성 합자의 특징(그림 5, 6 참조)

조선 후기 3개 고문헌 중 《삼성훈경》(1880)과 《여사서》 언해(1907)의 두 초중성 합자의 자형은 조선 중기 고문헌과도 유사하게 서로 비슷하나 《조선문직해》(1924)의 자형은 다르게 보인다.

《삼성훈경》과 《여사서》 언해에서 합자의 초성을 설음으로 쓴 ‘나, 다, 라’ 자 중 ‘나’ 자는 ‘ㄴ’ 과 ‘ㄸ’ 를 접필시켰으나 ‘다, 라’ 자는 ‘ㄸ, ㄹ’ 과 ‘ㄸ’ 를 접필시키지 않았다. 《조선문직해》의 합자 자형은 현대 폰트체인 견고딕과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선 초기 《월인천강지곡》(1447) 자형의 특징을 절충하였다.

현대 폰트 문자인 견고딕체는 설음의 합자인 ‘가, 카’ 자는 초성 자음과 모음의 상하 폭 크기 차이를 적게 나타낸 반면 그 외 문자들은 크기 차이를 크게 나타내는 등 같은 서체의 문자인데도 다르게 나타났다. 견고딕체 합자 중 ‘샤, 아, 하’ 자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결함이 있다. 현대 폰트 문자 중 이미경궁체는 부드러운 필사체의 아름다움을 한껏 풍기는 친근한 서체이다. 약간의 반흘림체인 이 서체는 가로쓰기, 세로쓰기 배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옛문자 중 ‘샤, 아, 하’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4.2. 초중중성 합자의 글꼴 변천

초성을 자음으로, 중성을 모음으로, 중성을 자음으로 하는 초중중

성 조합의 합자에는 좌우하 위치 합자, 상중하 위치 합자, 좌측 상하·우하 위치 합자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첫째 유형의 합자 자형의 시기별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글 초중종성 합자의 종류와 표기 방법은 최초의 한글 원전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조형적 형태에 의거하여 표기 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초성 자음 종류: 아음 ㄱ ㅋ ㆁ, 설음 ㄴ ㄷ ㅌ ㄹ, 순음 ㅁ ㅂ ㅅ, 치음 ㅈ ㅊ ㅅ ㅆ, 후음 ㅇ ㅎ ㅎ
- 중성 모음 종류: 종모음 ㅣ ㅏ ㅑ ㅓ ㅕ
- 종성 자음 종류: 아음 ㄱ, 설음 ㄴ ㄹ, 순음 ㅇ

좌측에 초성 자음 17종과 우측에 종모음 ‘ㅣ, ㅏ(ㅑ, ㅓ, ㅕ)’가 각각 결합되어 이루어진 합자의 자형을 비교하고자 하지만 고문헌 15종과 한글 폰트에 같은 비교 문자가 공통적으로 고르게 나오지 않아 조선 중기의 합자는 몇 글자씩을 선택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 4.2.1. 조선 초기 초중종성 합자의 특징(그림 7, 8 참조)

조선 초기의 좌우하 위치 초중종성 합자는 고문헌 5종에서 초성이 ‘ㄱ, ㄴ, ㄷ, ㅁ, ㅂ, ㅎ’으로 이루어진 ‘간, 날, 만(명), 반(방), 한(흔)’ 자를 선택하여 자형 짜임의 요소인 외형, 간가, 위치, 균형 등의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초성 자음 ‘ㄱ, ㄴ, ㄷ’ + 중성 ‘ㅏ’ + 종성 ‘ㅁ’ 인 합자 ‘감, 남, 담’은 종성 ‘ㅁ’의 좌우 폭을 ‘ㅏ’의 세로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나가게 나타냈으나, 중성이 ‘ㅓ’이고 종성이 ‘ㅂ’인 경우는 ‘ㅓ’의 세로선 오른쪽

그림 7 조선 시대 고문헌과 현대 한글 폰트의 초중종성 합자 지형 비교도 1

서체	모음	아음류 문자			설음류 문자					순음류 문자		
		ㄱ	ㅋ	ㆁ	ㄴ	ㄷ	ㅌ	ㄹ	ㄷ	ㅌ	ㅍ	ㅂ
조선 초기	1	감		엄	남	담	텨	련	밀	범		
	2				남	달		란	말			
	3				늘	틀		틀	를			
	4	각	간	관	갈	감	갸	갓	강	곤		긋
	5	간			난			란	만	반		편
조선 중기	1	간			난	돈			만	반		편
	2				늘	틀			빙	방		

서체	모음		아음류 문자			설음류 문자					순음류 문자				
			ㄱ	ㅋ	ㅇ	ㄴ	ㄷ	ㅌ	ㄹ	ㄺ	ㄻ	ㄼ	ㅍ	ㅑ	ㅓ
3	안해남악 증치방					안	안						방		
4	오류행실도		각			각	각			각			방		
5	고선유고		간			간	간			간			반		
1	삼성호경		각			각	각			각			명		
2	여사서 (안해)		각			각	각			각			명		
3	조선문지해		각	꺾		각	꺾			꺾			꺾		
4	현대폰트 고딕		각	꺾		각	꺾			꺾			꺾		
5	현대폰트 궁체		각	꺾		각	꺾			꺾			꺾		

조선  
후기  
및  
현대

그림 8 조선 시대 고문헌과 현대 한글 폰트의 초중종성 합자 지형 비교도 2

모음		치음류 문자				후음류 문자				병서자음			
		ㅅ	ㅈ	ㅊ	ㅌ	△	○	◌	ㅎ	ㅍ	ㅅ	ㅈ	
서체	1	훈민정음 (해례본)	ㅅ	ㅈ	ㅊ	ㅌ	△	○	◌	ㅎ			
			ㅅ	ㅈ	ㅊ	ㅌ	△	○	◌	ㅎ			
	2	훈민정음 (언해본)	ㅅ	ㅈ	ㅊ	ㅌ	△	○	◌	ㅎ			
			ㅅ	ㅈ	ㅊ	ㅌ	△	○	◌	ㅎ			
	3	문신화상 범어약록 (언해)	ㅅ	ㅈ	ㅊ	ㅌ	△	○	◌	ㅎ			
ㅅ			ㅈ	ㅊ	ㅌ	△	○	◌	ㅎ				
4	훈몽자회	ㅅ	ㅈ	ㅊ	ㅌ	△	○	◌	ㅎ				
		ㅅ	ㅈ	ㅊ	ㅌ	△	○	◌	ㅎ				
5	경민편 (언해)	ㅅ	ㅈ	ㅊ	ㅌ	△	○	◌	ㅎ				
		ㅅ	ㅈ	ㅊ	ㅌ	△	○	◌	ㅎ				
1	언해태산 집요	ㅅ	ㅈ	ㅊ	ㅌ	△	○	◌	ㅎ				
		ㅅ	ㅈ	ㅊ	ㅌ	△	○	◌	ㅎ				
2	노각대언해	ㅅ	ㅈ	ㅊ	ㅌ	△	○	◌	ㅎ				
		ㅅ	ㅈ	ㅊ	ㅌ	△	○	◌	ㅎ				

서체	모음	처음류 문자				뒤음류 문자				병서자음			
		ㅅ	ㅈ	ㅊ	ㅌ	△	○	◡	ㅎ	ㅍ	ㅑ	ㅓ	ㅕ
	3	쌍							한		할	합	헛
	4	쌍						한					
	5	산					안						
조선 후기 및 현대	1	쌍							한		한	성	흔
	2	쌍							한				
	3	쌍							행				
	4	쌍	쌍	쌍	쌍			얌	힘				
	5	쌍	쌍	쌍	쌍			얌	힘				

에 나가지 않게 나타내는 특징을 보여 준다. 이러한 현상은 종성에 ‘ㄱ, ㄴ, ㄷ, ㄹ’이 들어가는 모든 합자에서도 나타난다. 조선 초기 문헌 중 1400년대 고문헌은 딱딱한 느낌의 현대 고딕체 유형에 가깝게 자형을 형성하였고, 1500년대 고문헌은 부드러운 느낌의 정자체 유형에 가까운 자형을 형성하였다. 또한 1400년대 《훈민정음》 해례본(1446)을 비롯한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1472)의 초중종성 합자는 정적인 느낌의 자형이 형성된 반면, 1500년대 《훈몽자회》(1527), 《경민편》(1519)의 합자들은 종성 ‘ㅇ’을 제외하고는 종성 좌우 폭을 지나치게 크게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 4.2.2. 조선 중기 초중종성 합자의 특징(그림 7, 8 참조)

조선 중기 고문헌 5종의 초중종성 합자의 자형은 1600년대 문헌에서는 1500년대 말 문헌의 합자 유형과 비슷하다가 1700년대 말 문헌에서는 종성의 좌우 폭이 점점 좁아지고 각 서선의 굵기와 방향에 변화를 많이 주어 나타냈다.

조선 중기에는 정적이면서도 종성의 좌우 폭을 크게 나타낸 《언해 태산집요》(1608)의 자형에서 종성의 좌우 폭이 좁아진 《오륜행실도》(1797)에 이르기까지 자형 변화의 규칙성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형도 나온다. 특히 《언해납약증치방》(1700년대 말)이나 《고산유고》(1798)의 합자 중에는 종성 ‘ㄴ’의 좌우 폭을 지나치게 크게 나타낸 경우도 있다.

#### 4.2.3. 조선 후기 초중종성 합자의 특징(그림 7, 8 참조)

조선 후기 고문헌 3개의 합자 자형은 《조선문직해》(1924)를 제외한 《삼성훈경》(1880)과 《여사서》 언해(1907)의 합자 자형이 유

사한데 이 중 《삼성훈경》 합자의 키가 큰 편이다. 《삼성훈경》과 《여사서》 언해 합자의 좌우 폭 크기는 조선 중기 합자들에 비하여 작아 보인다.

《삼성훈경》(1880)과 《여사서》 언해(1907)의 합자는 자형의 키를 작게 하고, 서선의 처음과 끝 부분 획형을 각이 생기게 강하게 나타냈고, 가로선은 가늘게 세로선은 굵게 썸기 모양으로 나타냈으며, ‘ㅇ’의 획형을 원형이 아닌 삼각형과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내는 등 방각본(方刻本)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 준다.

현대 폰트 견고딕체는 초중종성 합자의 초성 좌우 폭 크기를 초성 왼쪽 끝에서 오른쪽의 중성 ‘ㄱ, ㅋ’의 수직 서선까지의 폭 크기와 같게 나타냈다. 이러한 중성 크기 배회 규칙은 《훈민정음》 해례본 합자 중 중성에 ‘ㄱ, ㅋ’가 아닌 ‘ㄴ, ㄷ’가 들어가는 문자의 중성 배회 규칙과 같은 것이다.

현대 폰트 궁체인 이미경반흘림체는 중성의 좌우 폭을 작게, 자형의 상하 폭을 크게 나타내되 중성 모음과 중성 자음을 연결하여 유연한 서체가 되도록 개발하였다.

##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조선 시대 초·중·후기에 나온 한글 고문헌 15종과 현대 폰트 2종의 한글 글꼴의 조형적 특징을 변천사적 측면에서 비교 고찰하여 보았다.

모음, 자음, 초중성 합자, 초중종성 합자 등 네 가지로 나누어 고문헌 자료 15종의 한글 글꼴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자모음의 획형은

대소·장단·방향·곡직·방원·조세·전절·접필(大小·長短·方向·曲直·方圓·粗細·轉折·接筆) 등의 요소에 따라, 합자의 자형은 외형·간가·위치·중심(外形·間架·位置·中心) 등의 요소에 따라 분석하였다.

15종의 한글 글꼴 자료가 분량 면에서는 조선 시대 전체 한글 글꼴 변천의 특징을 분석하기에 객관성은 적은 편이나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고문헌들이기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한글 글꼴 변천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자모음 획형 변천의 특징

고문헌에 나타나는 모음 11종과 자음 17종의 기본 획형은 ‘·, —, |, /, ㄱ, ㅇ’으로 분석된다. 기본 획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모음 획형 28종은 조선 초기의 굴림체 글꼴에서 조선 중기와 조선 후기로 오면서 차츰 바탕체 글꼴 유형으로 변하였다.

- 모음의 변화: 《훈민정음》 해례본 ‘ㅏ, ㅑ, ㅓ, ㅕ’의 세로선과 떨어진 둥근 점은 선으로 변하여 세로선과 접필되었고, 일정한 굵기의 세로선은 굵기가 다양한 모음 획형으로 변화되었다.
- 자음의 변화: 자음 획형도 일정한 굵기와 수직, 수평 방향이던 획형이 변하고, 일부의 획형 자체가 변하였다. 가장 많이 변화된 자음은 설음 중 첫 가로선 길이가 변형된 ‘ㄷ, ㅌ’과 서선 방향이 변화된 치음 ‘ㅅ, ㅆ, ㅊ’이다.

#### 둘째, 합자 자형의 변천적 특징

반침이 없는 초중성 합자와 반침이 있는 초중종성 합자는 초성 자음과 중성 모음, 종성 자음의 크기와 위치에 대한 결구 상태의 변화가 컸다.

- 초중성 합자 변화: 초성과 중성의 크기 차이가 작은 합자에서 조선 초·중·후기를 거치면서 초성과 중성의 크기 차이가 커져서 초성 자음이 아주 작아진 글꼴로 변천되었다. 경직된 그림 문자에서 유연한 쓰기 문자로 변천되었다.
- 초중중성 합자 변화: 초중성 부분의 좌우 폭과 중성의 좌우 폭 크기 차이가 아주 작은 합자에서 점점 큰 합자로 변천되었다. 초중성 부분 획형과 중성 부분 획형이 서로 호응하는 느낌의 합자로 변하였다.

### 셋째, 현대 한글 폰트 개발 활용의 제안

조선 초·중·후기 한글 글꼴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조선 시대 고문헌 한글 글꼴의 아름다움과 조형적 가치를 확인했다. 이 고문헌 글꼴을 새로운 한글 폰트 개발에 활용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고전 한글 글꼴 개발: 앞의 내용에서 밝힌 고문헌 13종의 각종 서체를 한글 폰트로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현대 한글 폰트 개발: 고문헌 한글 글꼴의 특징을 잘 반영하여 현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한글 글꼴 개발 사업에 충실을 기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 문헌

- 박병채(1991), 논주 월인천강지곡-원본영인본, 세영사.
- 박병천(1983), 《한글 궁체 연구》, 서울 일지사.
- 박병천(2001), 옛문헌 한글 글꼴 발굴 복원 연구 15, 16세기 문헌,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 박병천(2001), 중국 조선족 한글 글꼴 개발의 실태와 전망, 555돌 한글날 기념 글꼴 학술대회, 한글 글꼴 개발의 미래 논문집,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병천(2002), 《한글 판본체 연구》, 서울 일지사.
- 박병천(2002), 옛문헌 한글 글꼴 발굴 복원 연구 17, 18세기 문헌,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 박병천(2003), 옛문헌 한글 글꼴 발굴 복원 연구 19, 20세기 문헌,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 박병천(2003), 한글 글꼴의 생성-변천과 현대적 전개 고찰, 한중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동양예술학회, 중국연변대학교.
- 박병천(2004), 옛 문헌 한글 글꼴 개발 실용화 방안 연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문화관광부 사업보고서.
- 박병천(2007), 《한글 서간체 연구》, 서울 도서출판 다운샘.
- 박병천(2011~2013), 한글서예사적 측면에서 본 고전 자료 해설, 《월간 서예》(연재 1회~25회, 2011년 9월호~2013년 9월호), 서울 미술문화원.
- 박병천 외(1997), 통합 체계로서의 한글 폰트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홍익대학교 산디연구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04),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의 한글 서체를 컴퓨터 글자체로 개발-최종개발보고서.
- 전학석 외(2000), 중국 조선족 언어 문자 교육 사용 상황 연구, 중국연변대학출판사.

한국글꼴개발원(1998~2003), 《글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문화관광부.

한국글꼴개발원(2000),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학회(1998), 《훈민정음》(영인본), 도서출판 해성사.

## 이론과 자료가 만나는 국어학 연구를 위하여 서강대학교 서정목 교수를 만나다



답변자: 서정목(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질문자: 권창섭(서울시립대학교 강사)

때: 2013. 9. 11.(수)

곳: 교수 연구실과 부임동의 식당

어떤 분야의 학문이든지 현상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대상이 되는 현상들을 꼼꼼하게 관찰하여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학문을 하는 모든 이들의 의무일 것이다.

서강대학교 서정목 교수는 생성 문법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국어뿐 아니라 중세 국어 및 방언에 이르기까지 한국어의 다양한 모습들을 기술하고 설명한 국어학자이다. 40년 가까이 한국어학 연구에 매진하며 《국어 의문문 연구》, 《문법의 모형과 핵 계층 이론》, 《변형과 제약》 등의 저서와 《변형 문법》, 《GB 통사론 강의》 등의 역서를 내며 한국어 통사론에 큰 공헌을 하였다.

퇴임을 한 학기 정도 남긴 지금, 향가와 한문 등을 공부의 대상으로 삼아 바빠 보내시는 서정목 교수를 만나 보았다.

**권창섭** 안녕하십니까? 곧 퇴임을 맞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서정목** 마지막 학기를, 다른 때와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수업에 충실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권창섭** 아쉬움이 있으신가 봅니다.

**서정목** 제 삶이 학교 행정에 관여한 시간이 많고, 국어원에서 4년씩이나 연구 행정을 해서 그런지 깊이 있는 연구에 몰두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연구를 잘 못하면 가르치기라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좋은 학생들 만나서 선생님들께 배운 것과 내 스스로 찾아 낸 사실들을 간추려 잘 전달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되었어요. 아쉬움이 많은 삶이지요. ‘청산여화도(靑山如畫圖)인데 인상모미성(人常慕未成)이로다<sup>1)</sup>가 제 처지에 딱 맞는 말이지요.

**권창섭** 요즘 들어 특별히 하고 계신 일은 없으신지요?

**서정목** 지금 주로 하는 일은 〈모죽지랑가〉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이고, 틈틈이 빨간 책<sup>2)</sup>, 까만 책<sup>3)</sup>을 새로 쓰는 ‘한국어 문장 구조 연구’의 원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요일 선생님을 모시고 배우는 한문 공부에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할 일은 선조들이 남긴 것을 읽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

1) 청산은 그림 같은데, 사람은 이루지 못한 꿈을 그리워한다.

2) 《문법의 모형과 핵 계층 이론》을 말한다. 표지가 빨간색인 까닭에 국어학도 사이에서 흔히 서정목 선생님의 ‘빨간 책’으로 통한다.

3) 《변형과 제약》을 말한다. 표지가 검은색인 까닭에 국어학도 사이에서 흔히 서정목 선생님의 ‘까만 책’으로 통한다.

## 선생님과 선배들이 좋아서 국어학에 입문

**권창섭** 오래전 이야기부터 꺼내 볼까요? 국어학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실 때부터 국어학에 뜻이 있으셨는지요?

**서정목** 그렇지 않습니다. 언감생심, 시골에서는 학문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요. 힘에 겨운 그 꿈을 품게 된 것은 국문학과 입학 후 선생님들을 뵈고 난 후이지요. 그 꿈은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공부를 하고 싶고, 선생님처럼 가르치고 싶다는 어린애 같은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권창섭** 그럼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시게 된 계기는 있으신지요?

**서정목** 기이한 인연이지요. 제가 다닌 마산고등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학년만 가르치시는 독보적인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서울대 문리대를 나오신 정재관 선생님이십니다. 3학년 때 그분이 우리 반 담임이 되셨고 제가 부반장을 맡았는데, 가끔 댁에 부르셔서 채점 합산 등의 일을 시키시면서 문리대 교수들이 집필한 국어 참고서를 주시고 젊은 날 동숭동에서 보낸 세월을 반추하시곤 하셨죠. 입시 때, 다들 하듯이 상대 간다니까 '대학은 돈 벌려고 가는 곳이 아니다. 학문하러 가는 곳이다. 상대는 유학 안 가면 안 된다. 가난한 선생님 아들이 유학 갈 수 있겠느냐? 네 문학적 재능이 아깝다. 국문학, 국사학이 네 사정에는 맞는다. 적성도 그쪽이고. 거기는 합격도 보장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합격도 보장된다는 놀라운 말씀에 끌린 것이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소설도, 시도 써 본 적이 있고, 국어 성적도 좋고 하여 국문과를 지원했습니다.

**권창섭** 그럼 국문과에 입학하셔서 국어학을 전공하시게 된 건 어떤

계기인가요?

**서정목** 입학해 보니 우리 학과가 국어학을 공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968년에 교양과정부가 옛 공대 캠퍼스(공릉동)에 설치되었는데 그때 이병근 선생님께서 그곳에 조교 선생님이로 오셨어요. ‘국어학 개설’을 심약 선생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셨는데 이병근 선생님께서 모시고 강의실까지 오시고 끝나는 시간에 문밖에서 모시고 가시고, 그런 모습이 경이로웠어요. ‘아, 스승과 제자 사이는 저런 것이구나!’ 하는. 곁에 가 볼 수만 있어도 좋으려면 하는 생각을 했지요.

**권창섭** 역시 또 선생님들의 영향이 컸군요.

**서정목** 네, 그러다 1학년 겨울 방학 때 국어학을 공부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니, 아버지께서 ‘그게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싶던 공부였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1940년대에 서울서 중학을 마치고 공부하러 동경에 가셨다가 일제의 학병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되돌아오셔서 초등학교 교편을 잡으셨는데, 그런 꿈을 품으셨던 줄은 몰랐지요. 국어학, 국문학에 관한 책이 집에 좀 있었어요.

**권창섭** 그러시곤 본격적으로 국어학 공부를 시작하셨겠습니까.

**서정목** 승낙을 받고 2학년이 되어 일석 선생님, 심약 선생님, 강신항 선생님, 이기문 선생님, 김완진 선생님, 이승욱 선생님, 안병희 선생님의 강의를 차례로 수강하면서 그 세계 속으로 끌려들어 간 것이지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대한 흡인력 같은 것이 그때 문리대 국어학 분야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기문, 김완진 선생님의 2시간 연속 강의는 메모지 하나 없이 기억 속의 실타래를 풀어내시는 내용인데, 받아 적기에 숨이 가쁠 정도로 한 자도 빠트릴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했고, 나중에 읽어 보면 고칠 데 없는 완전한 문장들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강의를 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권창섭** 그럼 대학원 진학 생각은 언제 하시게 된 겁니까?

**서정목** 심약 선생님께서는 정년 직전이시라, 마지막 제자인 저희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저는 학군단(ROTC)을 했는데, 어느 오후에 총기 손질하고 있는 저희들을 둘러보시면서, 아쉬움과 쓸쓸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언제 제대하느냐? 대학원 진학은 할 것이냐?’ 그러셨어요. 그때는 대학원 진학을 본인이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위기였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와 새로 문리대에 부임하신 김완진 선생님 연구실에 인사를 갔었는데 《중세 국어 성조의 연구》에 제 이름을 정성 들여 써 주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하여라’고 하는 무언의 지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이기문 선생님 연구실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국어 음운사 연구》를 주시면서 제대 후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당연히 이 공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선생님들과 선배들이 좋아서 국어를 선택한 셈입니다.

## 숙명과도 같은 생성 통사론 연구

**권창섭** 선생님의 연구 업적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생성 문법의 적극적 도입입니다. 생성 문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시던 시기와 비교할 때 지금은 생성 문법에 대한 관점의 변화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서정목** 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생성 문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기문 선생님께 3년 동안 무려 5개 과목을 통하여 생성 음운론(SPE), 통사론의 기본적인 것을 다 배웠습니다. 또

3학년 때 심악 선생님께서 중세 국어 문법을 다 가르치셨고요. 거기에 1970년부터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던 서강대학교의 김완진 선생님께서 출강하셔서 촘스키의 《Syntactic Structures》와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Syntax》를 강독하셨습니다. 그리고 ‘문 접속과 구 접속’ 등을 통하여 심층 구조-변형-표면 구조를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강의들 속에서 ‘언어의 표면 현상을 관찰하여 그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심층의 원리를 밝혀라’는 것이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의 문리대 국어학 분야 선생님들 강의의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권창섭** 그걸 바탕으로 초반에는 주로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요?

**서정목** 1970년대 초 학과의 대학원 연구 분위기가 홍윤표 선생님의 ‘중세 국어의 격’으로부터 시작하여 온통 격과 조사에 쏠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류를 따라 ‘속격’을 공부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었습니다. 변형론자 스타일이 그 주제에 통할 리가 없지요. 생성 통사론의 격 이론은 훨씬 후어나 안정이 되는데 그건 국어학의 전통적 격 연구와는 한참 거리가 있지요.

**권창섭** 박사 학위 논문은 의문문을 주제로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요?

**서정목** 1976년에 최명옥 선생님이 경남 방언을 자료로 ‘현대 국어의 문문 연구’를 학술원 논문집에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안병희 선생님의 ‘중세 국어 의문문’과 비교를 해 보았지요. ‘다 한 것은 아니다, 좀 더 해야 할 게 있겠다’ 싶었어요. 음운론 전공자도 하는데 명색이 통사론 전공자가 못하면 안 된다는 오기도 있었어요. 경남 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안병희 선생님 논문 수준만큼 써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지요. 그리하여 1979년에 논문을 쓰면서부터 의문문 공부를 시작하였지요. 격 조사에서 어미로 공부 주제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전체 종결

어미 속에서 의문문을 보려 하였지요. 좁혀서 의문문만 보게 되었는데 전 종결 어미를 다 보려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전체 체계를 짚 수 있었으니까요. 경어법, 시간 표현 등도 종결 어미 전체를 보면서 갖게 된 과제들이지요.

**권창섭** 거기에 생성 통사론을 적용하신 거로군요.

**서정목** 한국언어학회에서 철마다 최신 이론 강독이 있었고, 수요일 밤마다 영어학 교수들과 함께하는 강독회가 있었어요. 그때 중요한 생성 통사론 논문을 거의 모두 읽었습니다. 촘스키(Chomsky 1977)의 ‘On WH- Movement’, 황(Huang 1982)의 ‘중국어 WH-현상’, 니시가우치(Nishigauchi 1985)의 ‘일본어의 논리 형식부’, 호르바트(Horvath 1986)의 ‘헝가리어 WH-현상’ 등을 상세히 읽었고, 래드퍼드(Radford 1981, 번역은 1984, “변형 문법이란 무엇인가”)를 이광호, 임흥빈 선생님과 함께 번역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성 통사론에 경도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요. 저는 방언과 문헌 자료에서 출발했고, 거기에 WH-현상<sup>4)</sup>이 있어서 생성 통사론을 응용하게 된 것이지요. 생성 통사론과 국어 문법 현상이 비교적 불화를 덜 일으키는 편안한 논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세부적으로는 많은 갈등이 있었고, 국어 현상을 위하여 이론을 조절하고 나름대로 생성 통사론을 상당히 수정한 설명 방안을 만들었지만 그런 것은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

4) 서구어에서 의문사가 문장의 가장 앞에 오는 현상을 말한다.(예: What is your name?)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경우, ‘-노, -고/오’의 어미로 문장이 끝나는데, 경상 방언의 의문 어미 ‘-노, -고’의 경우도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만 쓰인다. 이처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그렇지 않은 의문문과 문장 구조상으로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WH-현상이라 일컫는다.

**권창섭** 앞서 ‘빨간 책’, ‘까만 책’이라 언급하신 책들은 어떻게 집필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서정목** 여기에는 첫사랑이 관여되어 있어요. 1979년 강원대학교에 전임 강사로 갔습니다. 첫 강의가 ‘언어학 개론’이었어요. 수강생이 국어교육과 학생들이었지요. 그때 1979년 3월부터 사용할 제5차 교육 과정의 김인정 고교 문법 교과서 5종이 나왔어요. 그중에 다른 4권은 과거의 답습이었고, 김완진, 이병근 선생님 공저의 박영사 책이 제일 나왔어요. 그 교과서가 출판되자마자 선생님께서 주셔서, 그 교과서와 이홍배 교수 등이 쓴 탐출판사의 《언어학 개론》, 선생님들께 배운 강의 노트 등을 늘어놓고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생성 통사론이 중심에 놓이는 강의가 되었지요. 수강생들이 당장 제 별명을 변형 문법, 심층 구조라고 짓더라고요.(웃음) 그런데 그 강의안이 다른 강의에서도 계속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처음 강의 맡아 나간다고 인사 오면 무조건 첫사랑 강의안을 정성 들여 만들라고, 그것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생성 통사론과 맞부딪히게 된 것은 첫 강의가 ‘언어학 개론’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빨간 책, 까만 책도 시원은 그 강의안으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창섭** 계속 첫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신 거로군요.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웃음)

**서정목** 1989년 6월에 하버드-엔칭 방문 교수로 케임브리지대학에 갔습니다. 가서 구노(Kuno) 교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구노 교수는 9월부터 격주로 화요일 오후 3시에 만나서 2시간씩 통사 이론과 한국어 문법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했어요. 마침 첫사랑, 첫 강의로부터 출발하여 그때 이미 서강대학교 교양 작문 책에 ‘국어의 문장 구조’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 원고가 있었지요. 그것을 토대로 영문 요지를 만들어 거의 모

든 문제에 대하여 영어, 일본어와 대조해 가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1년 동안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 공대(MIT)의 중요 강의들을 청강하면서 초스키의 교실에서 래즈닉을 알게 되었지요. 그의 ‘A Course in GB Syntax’(1988)를 얻어서 번역하기로 하고, 원고를 만들어 와서 1992년에 《GB 통사론 강의》로 냈습니다. 그 책은 우리아게레카(Uriagereka)라는 바스크(Basque) 출신 학생이 자기 선생님의 강의를 기록하고 편집해 만든 책이었어요. 이후 토론 요약문과 이 번역본과 래드퍼드 번역서를 통합하여 강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프린트를 모아서 책으로 내자는 결심을 했지요. 래드퍼드(1988)의 번역도 서울에 계시던 두 분 선생님(이광호, 임홍빈)과 함께 진행하여 귀국하자마자 1990년 8월에 을유문화사에서 《변형 문법》으로 발간하였고요. 그리고 귀국 후 대학원과 학부에서 강의한 것이 모여서 1998년의 빨간 책, 2000년의 까만 책으로 나왔습니다.

**권창섭** 주요 저서들이 모두 생성 통사론의 바탕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서정목** 결과를 보면 생성 통사론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들께 배우고 공부해 온 것이 저와 같아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 여건에 딱 맞는 일을 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임홍빈 선생님과 40여 년에 걸친 사귀이 이끌어 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임 선생님은 그 뒤로도 최소주의에 이르기까지 생성 통사론의 자세한 이론적 변화를 다 따라잡아 세세한 이론의 변화와 약점에도 훤히 밝으셨지요. 임 선생님을 가장 좋아하였고 존경하였으며, 다른 누구와 마신 술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요. 더불어 세월을 흘러보낸 선배가 계셨다는 것이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해 준 원동력이

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창섭** 시간이 지나면서 생성 통사론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었겠습니니다.

**서정목** 심약 선생님께서 늘 40세또는 (제 생각에는) 40대까지는 남의 이론을 좇아가서 따라잡고, 그다음부터는 제 것을 써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제 것이 써지나요? 학교 행정 일은 밀어닥치고, 원서 읽어서 대학원에서 강독할 능력도, 상황도 안 되었어요. 참 막막했어요. 그때 안 것이지요. '여기까지다'라고 아픈 마음을 다독겨렸습니다.

**권창섭** 아직 저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는 마음일 것 같은데요.

**서정목** 청산(靑山)은 그림 같아도 생(生)은 유한(有限)한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못다 이룬 한(恨)을 품고 가는 거지요. 남는 것은 청산(靑山)뿐이고, 한국에 산더미 같은 문법론 연구 업적이 있어도 내 흔적은 보이지도 않는 처참한 상태가 되었지요. 그래도 젊은 한 시절, 그렇게 미친 듯이 한곳에 빠져 살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가르침 따라 이 공부를 이 방향으로 한 덕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머리 한 구석에는 이것이 내 본업은 아니고, 국어사나 방언과 관련하여 국어학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는 어떤 큰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성 문법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꺼려했어요. 수업도 조금은 자신의 논지에 대하여 방관하는 듯한 '생성 통사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는 식으로 하였지요.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도 못했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권창섭** 많이 바쁘시기도 하셨을 뿐더러 여건도 되지 않으셨겠지요.

**서정목** 네. 최소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달려갔고, 저는 학교 행정 일에 빠져 이론서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는 촘스키의 진보적 좌파 행보가 싫었던 것도 작용했어요. 제게는 미국에서 잘

먹고 잘사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실상도 모르면서 반전하고, 반정부 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였어요. 또 가르치는 현장에서도 그 내용이 학교 문법과 완전히 다르니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향가 공부와 한문 공부에 집착하는 것은, 그리고 소나무(松)와 심원(心遠)에 집착하는 것은, 이제는 변덕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 공허함을 이겨 보자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성 통사론은 이제 와서 보면 아무리 제가 멀리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공부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할 뿐이지요.

**권창섭**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모죽지랑가>에 대한 글을 쓰시는 등, 향가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서정목** 30년 전부터 순전히 봉사 과목으로, 고전 문학 전공할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마음가짐으로 가르쳐 왔던 향가를 최근에는 주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찰 해독은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는 것이지요. 김완진 선생님의 해독을 소개하고 그 외의 다른 해독과 비교하면서 어떤 해독이 온당한 해독인가를 통사론적으로 가리는 데 치중하였습니다.

**권창섭** 향가에 관한 글을 쓰신 적이 전에도 있으셨는지요?

**서정목** 전에 미국 있을 때 영문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자라는 에세이를 쓰면서 <제망매가>를 소재로 향찰에 대하여 쓴 게 유일하지요. 그런데 성호경 교수가 서강대학교에 부임한 뒤로 자주 향가를 논의하게 되었는데, 술만 먹으면 자기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른다’고 했어요. 자기 향가 공부의 스승은 김완진 선생님이신데, 그분이나 그분의 제자들은 자기를 제자나 형제로 안 본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반성을 많이 하였지요. 저는 그분을 선생님이라 부르면서도 제자다운 제자 구실을

못한 거지요. 30년을 그분의 학설로 향가를 가르치고도 글 한 편 발표하지 않다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향가 강의 30년을 어떻게든 정리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일단 <모죽지랑가>는 거의 다 되었는데 나머지는 또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네요. 선생님께 배운 해독에다 제가 가르치면서 알게 된 역사, 문학적인 해석이 토대를 받치는 구도인데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고향 말을 떠나서는 이뤄질 수 없는

**권창섭** 생성 문법을 수용하시면서도 현대 국어, 서울말만 대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방언이나 국어사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서정목** 1987년의 박사 학위 논문 “국어 의문문 연구”는 완전히 방언 자료와 중세 국어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첫 출발이 고향 말의 의문문을 기술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경상도 말과 같은 질서를 가진 말이 중세 국어였으니 좋은 뒷받침이 된 것이지요. 이 주제를 최초로 손댄 분이 아버지와 함께 경남 초등 교육계에 종사하신 나진석 선생님이라는 것도 기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료가 어떻느니, 이론이 어떻느니, 그런 논의에 끼어들 처지가 못 됩니다. 순전히 운이 좋아, 좋은 자료가 고향에 있었고 선생님들의 연구 결과 속에 있었습시다. 그 자료를 활용한 것뿐이지요. 이런 행운은 쉽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마 1980년대에 누군가가 매사추세츠 공대에 유학 가서 그 내용을 영어로 써서 제출했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가장 잘 입증해주는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높게 평가하였을 것입니다.

**권창섭** 이론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삼아

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서정목**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도 그 자료의 언어학적 가치를 이론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체계적인 연구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이론이면 어떻고 무슨 자료이면 또 어떻습니까? 좋은 이론을 공부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한국어의 특성을 밝혀내면 그것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자료를 사용하든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고 자연 언어로서 한국어라는 보장만 되면 충분한 것이지요. 젊은 분들은 어떤 이론이든 하나를 붙들고 궁극까지 가기를 권합니다. 자료는 가리지 말고 다 다루고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권창섭** 서강대학교에 함께 재직 중이신 곽충구 선생님과도 여러 영향 관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서정목** 사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곽 교수가 곁에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처음 곽 교수가 왔을 때는 의견 충돌이 많았지요. 아무래도 대학원생들의 공부가 이론적 경향이 강한 분위기라서 곽 교수가 볼 때는 자료 쪽이 영 엉성해 보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나 중국 동포들의 언어 자료를 다루다 보니 특이한 현상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통사론을 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신념이지요. 통사론은 정상 이론에 토대를 두고 핵 문법을 설정한 후에, 방언적 변이형을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먼저 이상한 자료 해석을 위하여 골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자연스레 문헌에서 자료를 찾아, 특히 근대 국어 자료의 다양한 변화에 주목하여 논문을 쓰기 시작하였지요. 그 속에서 좋은 논문도 나오고 하여 저도 학생들이 최소주의를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그쪽이 낫겠다 싶어 그냥 두는 상황이 되었죠. 원래는 저도 자료에서

출발했으니까. 자기가 다루는 자료에 마땅한 새 이론이 없으면 과거 이론에 의지하는 것이 옳지요. 문헌 자료로 논문을 써도 문장 구조를 보는 기본 틀은 유지하라는 것이 저의 최소한의 요구이죠. 그러나 지금은 국내 어느 대학에서도 새 통사 이론을 소화하는 데가 없으니 걱정이지요.

**권창섭** 고향인 진해의 방언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정도 깊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국어 연구에서 고향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요?

**서정목** 자부심보다는 애정이라 해야 하겠지요. ‘어머니의 말’, ‘할머니의 말’이니까요. 물론 저희 집안은 여러 대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 고향 말에서 증거를 가져와서 제 논지를 입증하려는 논의를 많이 편 것이지요. 의문문은 말할 것도 없고, 움라우트를 성조와 관련시키는 것도, 경어법에 관한 논문들도 대부분 핵심 논거는 그 방언 자료이지요. 제 공부는 고향 말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권창섭** 고향 말은 자신이 잘 아는 말이니까 자신의 논의에 더 확실한 논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서정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사론은 문장 구조를 이루는 규칙을 찾는 것이다. 그 규칙은 문법적인 문장을 비문법적인 문장과 대조하면서 찾아야 한다. 어차피 내성적 직관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누구라도 자기가 확실히 아는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확실히 아는 언어는 고향 말이다. 내가 통사 구조를 논의할 때는 고향 말이 주자료일 수밖에 없다.’

**권창섭** 또 동남 방언이 가지는 특수성도 득이 될 수 있겠지요.

**서정목** 네, 맞습니다. 들여다보면 고향 말이 중세 국어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중세 국어는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우리말로 상당히 이상적인 언어 체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중세 국어와 비슷한 고향 말이 어찌면 표준적인 한국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

있지요. 그게 자부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표준어를 보면 설명 못할 현상들이 많거든요. 어휘 요소이지만, ‘열대, 쇠대, 열쇠’만 해도 그렇죠. 원래 ‘자물쇠’가 있고 그걸 여는 것은 방언형 ‘열대’거든요. 그런데 표준어는 열쇠가 되었어요. ‘여는 것’과 ‘잠그는 것’이 한 단어에 다 들어와 버렸지요. 우리 고향에서는 주로 ‘쇠대’를 썼는데, 이 말은 ‘쇠를 여는 대’인 셈이니까 참아 줄 만하지요. 그런데 제 고향 외에 다른 동남 방언 지역 대부분에서는 ‘열대’란 말을 씁니다. 그 사물의 기능을 제대로 보여 주는 어휘이지요. 자물쇠를 ‘여는 대’이니까요.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경북 내륙의 ‘가니이더’, ‘가니이껴?’<sup>5)</sup>와 같은 말이 가지는 암시도 그런 것이지요. 이 말이 우리 집안에서는 대대로 사용되었어요. 경북에서 이주한 지 200년쯤 되었는데 말입니다. 어떤 자료든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고 자연 언어로서 한국어라는 보장만 되면 충분한데, 표준 공통어는 자연 언어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기가 어렵다는 걸 강조한 것이 자부심처럼 보였을까요?

## 말 다듬는 일은 쉽지 않은 일

**권창섭** 선생님께서는 국립국어원에서도 여러 일을 맡아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서정목** 1991년 2월부터 거의 4년간 새로 출범한 국립국어연구원의 어문실태연구부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창립 원장이신 안병희 선생님의

---

5) ‘가니이더, 가니이껴’와 같은 말에 들어 있는 ‘-이’는 청자에 대한 존대를 나타내는 형태료, 경상 방언이 중세 국어의 문법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예의 하나이다.

재직 시기와 같은 기간이지요. 제가 재직하던 어문실태연구부는 국어 순화라는 이름의 각종 생활 언어 다듬기, 해외 동포 한국어 보급, 북한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권창섭** 특히 표준 화법을 제정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셨지요?

**서정목** 담당 부장으로서 위원회 회의 때 사회를 보았고, 신문에 내거나 책으로 낼 때 연구원들이 쓴 초고를 손보았으니 제 책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원고를 안 선생님께서 직접 손보고 결재하신 뒤에 공간(公刊)했습니다. ‘표준 화법 제정’은 거의 언어 예절의 표준화 성격을 지닙니다. 제1차적 문제는 가족들끼리의 호칭어, 지칭어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남편을 ‘아빠’, ‘오빠’ 심지어 ‘형’으로 부르고 시아버지를 ‘할아버지’로, 시누이의 남편을 ‘고모부’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논어》의 정명론(正名論)에 비추어 보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시초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초대 문화부 장관이신 이어령 선생님과 초대 국어연구원장 안병희 선생님께서 《조선일보》와 손잡고 생활 언어 전반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혹시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여론 주도층을 형성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호칭, 지칭어에서 인사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실제 언어생활을 대상으로 기준이 될 만한 표준 어형을 논의하여 방향을 잡은 것이지요. 이 위원회는 연령층도 폭넓게, 출신 지역도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서 비교적 많이 쓰이는, 올바른 말을 표준 어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표준화와 표준화된 말 사용에 가장 호응이 컸던 쪽이 방송 드라마들이지요. 가족들 사이의 호칭, 지칭어의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권창섭** 최근에 그걸 다시 다듬는 작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서정목** 표준 화법 제정 20년이 되어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다시 검토하고 손질하는 위원회가 있었고, 그 위원장을 맡아서 20년 동안의 사용 추이를 보니까 거의 그때 정한 말들로 표준 어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공한 언어 정화운동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 5월에 이 일로 인터뷰한 것<sup>6)</sup>이 있으니 그쪽으로 미룹니다.

**권창섭** 해외 동포 우리말 보급이란 건 어떤 일이었습니까?

**서정목** 주로 공산권 동포들에게 표준 어형을 알려 주는 교육 활동입니다. 구소련, 중국의 동포들이 사용하는 말은 옛 함경도 또는 평안도 방언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현대 북한말이 덧입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포 3, 4세대들이 우리말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정부나 민간단체가 공산권 동포들을 돕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니 답답하지요. 그래서 표준어를 가르치러 나가고 언어 사용 실태 조사도 하고 했지요. 저는 주로 알마티,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사할린 이런 데를 갔지요. 거기서 주로 동포인 학교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언어 규범, 문법, 우리말의 역사, 언어 예절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또 현재의 선생님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북한과 말 보급 경쟁 비슷한 심리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권창섭** 북한어도 담당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일이었나요?

**서정목** 북한어는 문화어 때문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얼음 보숭이’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뜻이 아이스크림인데 ‘보숭이’가 황해도 방언에서 ‘콩고물’이에요. 그들은 ‘크림’이 가루인 줄 알았던 것이지요. 《월간 조선》, 《샘터》, 《한국인》 등 제가 칼럼을 쓰던 매체에 “아이스크림을 먹

---

6) “‘표준 화법 제정’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심포, 마침표》 제67호(2011. 6.)에 실려 있다.  
(<http://news.korean.go.kr/online/sec/talk/talk.jsp?id=18&>)

어 보았으면 ‘얼음 보숭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썼지요. 거기서 말다듬기 하는 학자들이 서구 문명사회의 이기(利器)들에 대하여 접해 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무슨 전망이 있어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언어 정책을 수립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지요. 또 얼음 보숭이를 ‘에스키모’라고도 하는데 참 이상했어요. 나중에 보니 이게 상품을 만드는 회사명이었어요. ‘코카콜라’, ‘제록스’나 ‘진로’ 같은 거지요. 민족이나 언어 이름으로는 뜻풀이되지 않고 얼음 보숭이로 뜻풀이되는 ‘에스키모’, 상상이 됩니까? 그 뒤에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다듬은 말이 표제어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또 북한어 규범이 우리와 다르고, 외래어가 러시아식 발음으로 되어 있어서 ‘빨스카(폴란드), 웅그리아(헝가리), 체스코(체코), 슬로벤스코(슬로바키아)’ 등이 특이하였지요. 통일에 대비하여 그런 것을 연구해 두라는 것이었지요. 저는 연구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보았지요. 남북 중, 어느 한쪽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 그 한쪽의 어문 정책이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절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창섭** 그 당시의 국어 순화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국어 순화 관련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죠.

**서정목** 국어 순화는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 철도 등 공공 기관의 안내문을 다듬어 준 것이 기억나고, 의학 전문 용어, 건설 용어 등을 각 전문 분야와 협력하여 일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한때 ‘한가람’, ‘상록수’, ‘달빛’, ‘은빛’으로 간 것이 그때인데, 일반적으로 ‘00동 00아파트’ 하여 회사 이름을 붙였거든요. 회사명 안 된다, 한자 안 된다, 영어 안 된다 했는데 잘 가다가 지금은 ‘래미안, 푸르지오’ 등 국적 없는 말로 더 나쁘게 가 버렸지요.

**권창섭** 재미있는 일화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서정목** ‘갯길’이 화젯거리였는데요, 그때 고속도로 가에 ‘노견 주행

금지'가 있었거든요. “노견'이 뭐냐, 늙은 개냐?” 이랬지요. 원래 영어로는 'shoulder'인데 일본에서 '로가타(路肩)'라 했어요. 물론 '어깨 肩'은 훈독이지요. 북한은 '길썰'이라 했는데, 고속도로를 보면 '갓길' 밖에 '길썰'이 따로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국어 심의회에서 국어원의 연구원들이 제안한 '갓길'이 확정되었어요. 이에겐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순화로 볼 문제가 아니다 싶어요. '주행선', '추월선'이 이미 있는데, 거기에 맞게 '비상선' 정도로 했어야 하는데, 그냥 한자어는 안 쓴다는 강박 관념 같은 것이 작용한 것이지요. 의학 용어 중에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하자는 결정을 했는데, 다른 '00선'을 모두 '00샘'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았지요. 아직 그 상태로 논란이 있습니다.

**권창섭** 국어 순화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비슷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목** 말을 다룬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열린 분위기 돼야

**권창섭** 마지막으로 현재의 전반적인 국어학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후배 연구자들에게 해 주고 싶으신 격려와 질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정목** 저는 행정직 교수로 일한 시간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교수 생활 총 35년 중 23년을 어떤 일이든 공부하는 것 외의 일이 머리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국어사 연구가 상당히 넓고 깊게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헌들이 이용하기

쉽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공부하기에 편해졌습니다. 그 결과 옛날처럼 원전 자료를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풍토가 사라졌습니다. 간접 인용은 틀릴 수도 있고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논문에 인용하는 자료, 주요 논거는 꼭 원전에서 확인하고 사용하는 전통이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창섭** 기술의 진보가 독이 되기도 하지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반성이 많이 됩니다. 자료를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언어학 이론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도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겠지요?

**서정목** 지금은 마땅히 권할 이론도 없는 것 같지요? 이런 때는 이미 있는 이론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처음부터 찬찬히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빨간 책을 쓰면서 일부러 구조 기술 언어학을 선생님들께 배운 노트를 꺼내 놓고 정리하였습니다. 언어학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유행 따라 생성 문법이니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까 봐, 구조 기술 언어학도 누구보다 더 잘 배웠다는 긍지를 가지려 했거든요. 그런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성 통사론, 생성 음운론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그 시대의 고전이다 생각하고 찬찬히 들여다볼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통사론만 말하면 을유문화사의 《변형 문법이란 무엇인가》(1984), 《변형 문법》(1990), 한신문화사의 《GB 통사론 강의》(1992), 해게만(Haegeman)의 《GB 이론 입문》(1991) 정도를 읽어볼 필요가 있지요. 이흥배 교수의 번역도 보기를 권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지요. 지난 시대 이론은 한물갔다, 새 이론은 없다, 그러니 이론 공부 할 것은 없다, 이게 제일 나쁜 것이지요. 당분간 GB 정도의 생성 통사론을 보고, 음운론도 웬만하면 생성 음운론에 토대를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게 썩 좋은 것이 없거든요. 무언가를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 좋을 것입니다.

**권창섭** 언제든, 무엇이든,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로  
균요.

**서정목** 국어학뿐만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풍토 가운데 꼭 바뀌  
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접 학과나 같은 학과 다른 교수  
의 강의를 듣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  
니다. 졸업생들도 필요하면 모교에 가서 전에 배운 선생님이 요새는 어  
떻게 달리 가르치나 하는 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다른 대학 강의도 들  
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대학원생들도 신청한 과목 아니면 안 듣는  
데 참 바보 같은 생각이지요. 인접 과목도 청강하고, 수료한 뒤에도 관  
련 과목은 계속 청강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창섭**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서정목** 매사추세츠 공대의 강의실에는 다른 대학의 교수로 가 있는  
졸업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서로 청강하였습니다. 하버  
드대학교의 강의실에는 품위 있게 예쁘게 나이 드신 호호백발 할머니들  
과 멋쟁이 할아버지들도 보입니다. 얘기를 나누어 보면 학교 이웃에 사  
는데 이 과목 내용이 재미있어서 시간 나면 청강하러 온다고 합니다. 알  
아보니 그 학교에서 은퇴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르친 후배  
교수가 요새는 어떤 연구를 하나? 우리가 쓴 논문은 지금 언급이라도 될  
까? 그런 것이 사람 사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대학이 열려 있는 것이지  
요.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도 퇴임하면 그럴 용기가 없겠지요.

**권창섭**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정목** 고맙습니다.

## 서정이 품어 낸 우리말의 숨결

오태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 교수

### 1. 들어가며

문학 작품 속 우리말은 아름답다. 이때의 아름답다는 말은 미추(美醜)를 거론할 때 말하는 추(醜)의 상대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추를 포함하는 아름다움이다. 더욱 확장한다면 진(眞)과 위(僞)를 포괄하며 선(善)과 악(惡)을 회의(懷疑)하는 아름다움이다. 참과 거짓, 착함과 악함, 아름다움과 미움을 상대화하면서 인생을 성찰하는 아름다움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 속에서는 우리 민족이 겪어 낸 오욕칠정(五慾七情)의 세계가 시대적 풍광과 함께 서사적 압축과 비유를 통해 파란만장하게 그려진다.

한국 문학은 한국어로 한국민의 자화상을 성찰하며 인생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왔다. 그 언어적 절차탁마의 수준은 시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을 연출해 왔다. 하이데거의 말대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고 존재일 수 있다. 그 언어와 씨름하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부수고 다시 짓는 이들은 문인이다. 문인 중에서도 시인은

비유와 상징, 압축과 절제로 자아와 세계를 짧은 텍스트 안에 녹여 낸다.

이제 소월, 만해, 정지용, 윤동주, 김춘수, 김수영 등의 시 6편을 통해 우리 시의 최전선에서 최정상 수준을 만나 보고자 한다. 시대와 함께 혹은 시대와 무관하게 절정의 감각으로 우리말의 넓이와 깊이, 높이를 빚어낸 시인들이 있었기에 우리말의 진경(珍景+眞景)이 빛을 발한다.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말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만천하에 자신 있게 공표할 수 있다.

## 2. '역겨움'의 문학사적 기입

우리 작품 속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탐색하기 위해 필자가 최초로 도달한 지점은 1920년대다. 이 시기는 근대적 개인이 탄생한 19세기 말로부터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국어'에 대한 자의식이 형성되면서 언문일치체가 시험되고, 서구화와 합리화의 물결이 밀려들어오던 시기이다. 20세기를 전후한 개화 계몽 시대를 거쳐 일제 강점기에 접어든 이래로 문인은 전통과 근대의 충돌 속에 혼란기를 경험한다. 거기에서 우리말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경험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시인의 한 사람은 바로 소월 김정식이다.

이때 근대 문학의 가장 앞자리에 놓여 있는 정서는 낮익게도 이별이다. 낮익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교과서의 지식을 통해 소월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의 전통이 <공무도하가>(백수광부의 처)나 <황조가>(유리왕)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이별시의 정서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소월의 이별 감각은 전통적이면서도 새로운 언어적 진경을 보여 준다.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영변에 약산 / 진달래꽃 /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  
 가시는 걸음걸음 / 놓인 그 꽃을 / 사뿐이 즈려뺏고 가시옵소서 //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 <진달래꽃>(1922)

이 시의 문학적 아름다움은 ‘역겨움’의 문학사적 등장에 있다. 이 표현은 1930년대 서정주의 <자화상>에서 ‘아버지’를 ‘애비’로 호출하는 방식이 문학사적 최초로 해당하는 것을 뛰어넘는 장면이다. 민요조의 3음보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전통 서정시에 해당한다는 교과서적 평가와 안목을 일단 접어 두자. 물론 그게 ‘틀린 답’은 아니다. 하지만 필자는 ‘역겨움’의 등장이 제기한 문학적 이질성이 이 시의 문학사적 버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는 이미 너무나 유명하게도 작중 여성 화자가 이별을 고한 남성 화자를 향해 이별 당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을 절절히 정형 율격에 의지해 고백한 시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1연에서 여성 화자가 ‘가정형 어법’에 기대어 ‘만약에 내가 역겨워서 떠나고자 한다면 고이 보내 주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역겨움’이라는 전제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떠나지 말라는 전언이 여성 화자의 핵심적 고백에 해당한다.

2연과 3연에서 벌어지는 화자의 행동 역시 ‘역겨움’이라는 언어의 활용을 세부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진달래꽃을 뿌리는 산화공덕의 행위나 갈 테면 내가 뿌린 꽃들을 ‘가벼이 짓밟고 가라’는 전언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고백에 해당한다. 4연에서 화자는 재차, ‘죽어도 눈물 흘릴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별의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운

심정을 토로한다. 그것은 ‘역겨움’이 ‘죽음’을 건 ‘눈물의 거부’로 연결되어 이별 당하지 않으려는 절절한 애통함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역겹다’는 표현은 사전적으로 ‘역정이 나거나 속에 거슬리게 싫다’는 뜻의 형용사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거부감이 든다는 표현은 소월로부터 문학 작품에 기입되었다. 추의 개념을 시에 도입하여 그것을 전제로 미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말의 문학적 활용 범위를 확대한 소월의 빼어난 언어 감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3. 역설의 미학

만해 한용운은 시대적으로는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투사’ 기질의 스님이지만, 문학을 전공하는 이에게는 더없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시인이다. 만해가 1920년대에 ≪님의 침묵≫을 출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문학적 공백은 너무나도 컸을 것이다. 특히 소월이 소박한 우리말을 활용하여 전통 서정과 율조, 자연 풍경의 내면화를 책임지고 있었다면, 만해는 ‘역설의 미학’을 문학사에 아로새긴 공을 인정받아 마땅하다. 님의 정체에 대해 ‘애인, 조국, 부처, 절대자’라는 다면적 의도를 읽어 내는 교과서적 지식은 잠시 접어 두자. <님의 침묵>이 절창인 까닭은 ‘님’을 다면적으로 독해하도록 만들어 낸 것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님의 침묵>이 우리말의 어떤 측면을 돌올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은 역설이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 푸른 산빛을 깨  
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

다. /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  
 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  
 의 지침(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 나는 향기로  
 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 사랑  
 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  
 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  
 픔에 터집니다. /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  
 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 우리  
 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  
 을 믿습니다. /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1926)

만해 시의 특징은 역설의 수사로 시 전체가 덮여 있다는 점이다.  
 ‘역설(paradox)’은 표면적으로는 자기모순적이고 부조리한 진술처럼  
 보이지만, 올바른 해석을 거치면 ‘진실을 내포한 진술’을 의미한다. 표  
 면적 의미와 이면적 진실의 상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수사  
 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을 가장 탁월하게 근대 문학의 도입  
 부에 활용한 시인이 바로 만해다(소설에서는 <운수 좋은 날> 등을 상재  
 한 빙허 현진건을 들 수 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님의 침묵>은 1행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  
 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로 시작하여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의 역설을 거쳐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로 마무리된다. 님이 현실적으로 내

곁에 부재하지만, 님과의 인연을 곱씹으면서 심리적으로는 님이 항상 내 곁에 자리한다는 역설을 강조하는 시인 것이다. 특히 화자는 님이 사라진 ‘현실적 부재’의 상황을 인정하지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등을 회상하면서 님과의 기억을 되살린다. 그러면서 사랑과 이별의 감각을 추체험<sup>1)</sup>하고 난 뒤, ‘그러나’라는 역접 관계의 접속어를 통해 발상을 전환하기 시작한다. 즉, 이별의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새로운 사랑과 희망의 힘’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이별의 상황과 만남의 추억을 추체험하는 과정을 거쳐 시는 “우리 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역설에 도달한다. 만남과 헤어짐의 동시성, 헤어짐과 새로운 만남의 기대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인생의 진실을 보여 준다. 불교의 인연설적 인식을 통해 관계론적 진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역설의 메타포를 내면화한 화자는 님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자기 다짐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에 겨운 화자의 노래는 역설의 미학을 거치면서 ‘님의 침묵’을 넘어 새로운 사랑과 희망의 도레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 4. 공감각적 이미지의 절창(絶唱)

우리말의 다양한 단일 감각을 공감각으로 이미지화하는 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시인으로 정지용을 꼽을 수 있다. 정지용의 〈향수〉는 ‘전

---

1) 다른 사람의 체험을 자기의 체험처럼 느낌. 또는 이전 체험을 다시 체험하는 것처럼 느낌.

설(傳說)’이라는 한자어를 제외한 모든 시어가 순우리말일 정도로 우리말을 활용하여 고향의 그리움을 정밀하게 탐색하고 있다. 대중가요로도 불려 더 많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이 작품은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라는 구절이 각 연을 구분하면서 그리움의 깊이를 절절하게 포착하고 있다. 이 시는 시어를 조합하면서 머릿속에서 고향 마을의 이미지를 그리며 읽으면 더욱 애뜻하고 정감 어린 감수성을 복원할 수 있다는 데에 가장 큰 강점이 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 옛 이야기 지를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 얼룩백이 황소가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 그곳  
 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 뷔인 발에 밤  
 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 넓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 짚벼  
 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 흙에  
 서 자란 내 마음 /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림어 /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  
 려 /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  
 힐리야. // 傳說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의와 / 아무러치도 않고 여쁠 것도 없는 / 사철 발벗은 안해  
 가 / 따가운 해사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 그곳이 참하 꿈  
 엔들 잊힐리야. / 하늘에는 석근 별 /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 서리 까마귀 우지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 흐릿한 불  
 빛에 돌아 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정지용, <향수>(1927)

고향의 너른 들판을 흘러가는 실개천이 있다. 시인은 그 실개천에

대해 “옛이야기를 조잘대면서 휘돌아 나간다”라고 표현한다. 청각과 시각을 공감각화하면서 시인은 고향 마을의 정겨움(지출땀)과 역사성(옛 이야기)을 일거에 포착하는 탁월한 재주를 지닌 언어 감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어서 이제는 세상에 ‘얼룩 젖소’가 아니라 ‘끓소’로 정확히 알려진 ‘얼룩빼기 황소’의 울음소리를 “금빛 게으른 울음”으로 시각화한다. 청각을 시각화하고 ‘게으름’이라는 형용사로 속도감을 엮음으로써 감각의 교차와 전이를 통해 새로운 독창적 감각과 이미지를 산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겨울날 텅 빈 밭을 스쳐 가는 바람의 이미지를 “말을 달리고”에 비유함으로써 마을과 ‘빈 밭’을 빠르게 휘감아 도는 찬바람의 이미지를 잘 포착하고 있다.

더구나 어린 누이의 검은 귀밑머리를 “전설(傳說)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다고 직유한 대목은 가장 빼어난 비유에 해당한다. 누이의 머리카락을 짚고 검은 밤물결의 이미지에 연결하는 것은 비유 가능한 시적 감수성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설’이라는 낯선 표현을 기입하면 느낌이 사뭇 달라진다. 즉, 화자의 고향 마을이, 누이의 다정한 이미지와 겹쳐짐과 동시에 오래된 전설 같은 이야기(전설)를 품고 있는 광활한 역사적 공간(바다)임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끝으로 하늘의 성근 별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미지의 “모래성으로 밭을 읊기고”라고 표현한다. 고향으로부터 멀어진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면서 미지의 시간이 흘러가는 몽환적 풍경을 포착하여 아련하고 애뜻하고 허탈한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의 시점은 고향 마을의 정경으로 시작하여 아버지, 동심, 누이, 아내와의 추억을 거쳐 집 안으로 이어진다. 마치 카메라가 원거리에서부터 근거리로 이동해 가는 과정을 그려 낸 듯한 이러한 시점은 이렇다면 시에서 원근법적 감각을 도입한 것에 해당한다. 정지용은 〈향수〉를

통해 순우리말과 토속어의 향연 속에서 고향의 이미지와 절절한 그리움을 그 진하고 그윽한 향기로 뽑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말의 진경이자 보배라 아니할 수 없다.

## 5. 부끄러움의 미학

살아생전에 출간된 시집을 가져 보지 못한 대표적인 시인으로 이육사와 윤동주를 들 수 있다. 육사의 경우 이미 우리는 그의 항일 전력과 견결한 의지가 형상화된 시 〈청포도〉나 〈절정〉, 〈광야〉 등을 교과서를 통해 배움으로써 그 절정의 감각을 학습한 바 있다. 육사의 남성적 의지와 태도의 다른 편에 외유내강형의 이미지로 자신의 결벽증적 감각을 버리고 버린 이가 바로 윤동주다. 그의 〈서시〉는 그의 시가 지향하는 기독교적 엄결(廉潔) 의식과 부끄러움의 미학을 오롯이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아름답다. 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품고 노래할 때 아름답다는 점을 〈서시〉는 보여 준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서시(序詩)>(1941)

제목은 한자어지만, 단 하나의 외래어나 한자어도 배제한 채 순우리말만으로 우리 시의 천장을 두드린 작품이 〈서시〉다. 생략된 서술어

‘바라다(願)’를 포함하면 <서시>의 서술어는 ‘바라다, 괴로워하다, 사랑하다, 걸어가다, 스치우다’의 다섯 가지로 드러나는데, 이를 보면 시적 호흡이 5단 구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람(願)’은 화자의 가치관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생을 지향하는 연결적 자의식이 드러난다. 그러나 기대는 좌절된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괴로움’은 화자의 주변 상황을 둘러싼 안타까움의 표현이고, ‘사랑’은 그 괴로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 된다. 그리고 ‘걸어감’은 화자가 지향하려는 생명 의지의 실천을 말하는 것이며, ‘스치움’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기대와 바람→부정적 상황→주체의 의지→행동하는 양심→부정적 상황’으로 시의 서사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인의 기대와 바람(願)이 좌절되고 주체의 의지와 양심이 구속받은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시의 서사 안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광활하고 청결한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희구하는 결벽증의 소유자이다. 그것도 “죽는 날까지” 고결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존재이다. 그러한 연결 의식은 화자에게 앞새를 괴롭히는 바람(風)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고통인 양 내면의 상처를 입게 한다. 그러나 바람(風) 앞에 흔들리는 앞새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화자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고통받는 앞새를 보며 밤하늘의 별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약자를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부끄러움 없는 삶을 지향했고 앞새의 고통에 괴로워할 줄 아는 측은지심의 소유자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넘어 생명 사랑의 정신을 내면화한 화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길을 가겠다는 당위의 다짐을 한다.

그 길은 아마도 수월치 않은 고행 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새를 해집는 바람이 있는 현실을 거슬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모

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걸어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가시밭길은 순교자의 길로 이어져 왔음을 조선의 역사는 증명한다. 화자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마무리한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자신의 안내 지도이자 동경의 좌표 역할을 해 온 별이 바람(風)이라는 외부 조건에 의해 흠집이 나고 있는 오늘 밤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화자는 묵묵히 자신의 생명 사랑을 위한 숙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그것이 그가 맡은 바 소임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바람(願)과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내면화한 채 생명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시인은 후쿠오카 감옥으로 걸어간 것이다.

## 6. 관계론적 존재의 본질 추구

‘존재의 의미’의 궁극을 추구하고자 노력한 김춘수 시인이 없었던 해방 이후 주지주의적 시 세계는 많이 위축되었을 법하다. 시인의 ‘무의미의 시’를 향한 노력은 공교롭게도 존재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남녀 관계에서 연애의 핵심을 파고든 시로 파악되기도 한다. <꽃> 역시 그러한 대중성으로 인해 다수의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에 해당한다. ‘향기’라는 한자어를 제외하고 순우리말로 지어진 이 시 역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높은 수준에서 파고든 작품에 해당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 그에  
게로 가서 나도 / 그의 꽃이 되고 싶다. // 우리들은 모두 / 무엇이 되  
고 싶다. /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1952)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은 ‘이름 부르기’이  
다. ‘이름 부르기’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첫 노력에 해당한다. 시인은  
그 소통 이전의 ‘무관계한 상태’를 “하나의 몸짓”이라는, 존재의 피상적  
현상으로 규정한다. 이를테면 관계 시작 전 무의미한 관계의 표상을 ‘몸  
짓’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에 빗대자면  
‘알맹이(진실)’에 대비되는 ‘껍데기(거짓)’에 비견되는 것이다. 주체의  
타자에 대한 호명이 유의미한 관계의 시발점에 해당한다면, 그 이전에는  
주체와 타자가 서로 교호 작용이 전혀 없는 ‘무관계한 피상적 몸짓’  
으로 서로를 그저 바라볼 뿐인 것이다.

그러나 호명이 시작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체가 타자의 이름을  
부르면 타자는 주체에게 와서 ‘유의미한 꽃’으로 변신한다. 관계가 시작  
되고 주체에게 타자가 그 존재론적 본질을 내비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불러서 피어난 ‘호명의 꽃’은 아직 양방향적이라기보다는 주체의  
시각에 의해 형성된 타자의 이미지에 해당한다. 그렇게 주체가 타자를  
‘꽃’으로 호명했듯, 주체는 타자 역시 주체의 “빛깔과 향기”에 걸맞은  
‘이름’을 불러주기를 고대한다. 그 두 이미지는 타자와 주체의 존재론적  
본질을 꿰뚫는 호명이 된다. 즉, 그것은 ‘꽃’의 화답으로서 ‘빛깔과 향기’  
가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주체는 다시 타자에게 유의미한 ‘새로운 꽃’

으로 피어나게 된다. 이로써 주체의 호명 행위는 ‘꽃’으로, 타자의 호명 행위는 ‘빛깔과 향기’로, 주체와 타자의 상호성은 ‘새로운 꽃’으로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하게 된다.

‘꽃’에서 ‘빛깔과 향기’로, 다시 ‘꽃’으로 이어지는 관계의 흐름, 즉 주체의 호명, 타자의 호명, 주체와 타자의 상호적 자리비움을 통해 상호적 주체라는 존재론적 본질을 승인하면서 관계론의 완성형을 보여 준다. 그리하여 무관계하고 무의미했던 ‘몸짓’이 이제 상호 교감하는 존재의 핵심에 육박하는 ‘의미 있는 무엇’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우리가 되고 싶은 ‘무엇’이란, ‘꽃’이고 ‘빛깔과 향기’이며 ‘다시 꽃’이다. 즉, 주체의 능동적 호명 행위에 의해 도달한 타자의 본질이며, 타자의 또 다른 호명이 빚어낸 존재론적 완성형에 해당한다. ‘피상적인 몸짓’에 불과했던 고립성을 탈피하고 ‘꽃’과 ‘빛깔과 향기’와 ‘다시 꽃’과 ‘무엇’을 거치면서 주체와 타자는 서로에게 불망(不忘)과 불멸의 “하나의 눈짓”을 완성하게 된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란 주체와 타자가 완벽히 서로의 이름을 호명함으로써 도달하게 된 유일무이한 관계론적 본질이 되는 것이다. ‘의미 없는 몸짓’에서 ‘호명’ 행위를 통해 ‘꽃’과 ‘빛깔과 향기’를 거쳐 ‘유일무이한 눈짓’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주체와 타자의 관계론적 본질을 꿰뚫는 사유의 결과물인 것이다.

## 7. 자유와 혁명의 미학

1960년대는 그때 이후 2010년대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4·19의 시대’로 호명된다.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억압되기는 했지만 분단의 질곡을 넘어서고자 노력했으며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대

한국에 아로새긴 혁명의 몸짓을 4·19 혁명이 제시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 분단과 전쟁 이후 폐허적 질곡과 부정부패를 딛고, 1960년대에 새로이 ‘사회적 개인’을 발견하고자 했던 그 시대에 자유와 혁명은 시대적 과제이면서 개인적 의지의 표명일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치열하게 ‘자유와 혁명’의 추구가 지닌 ‘참된 고독’을 예리하게 설파한 이가 김수영이다.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 노고지리가 자유로왔다고 / 부러워하던 /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 자유를 위해서 / 비상(飛翔)하  
여 본 일이 있는 / 사람이면 알지 / 노고지리가 / 무엇을 보고 / 노래  
하는가를 / 어째서 자유에는 / 피의 냄새가 섞여있는가를 / 혁명은 /  
왜 고독한 것인가를 // 혁명은 /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김수영, <푸른 하늘을>(1960)

김수영의 시에서는 순우리말이 밀바탕을 이루고 그 위에 한자어를 적절히 활용하여 시적 정조가 강화된다. ‘시인, 자유, 비상, 고독, 혁명’이라는 표현은 우리말이지만 한자어이다. 특히 한자를 병기한 “비상(飛翔)”은 ‘높이 날다’라는 의미를 통해 우리 시대의 자유가 낭만적 자유가 아니라 의지적 자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통찰하고 있다. 김수영은 개인적 자유가 낭만적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시를 시작한다.

시인은 “푸른 하늘을 제압”하면서 비행하는 노고지리를 보면서 자유로움과 부러움을 토로하던 낭만적 서정 시인의 시각이 ‘수정되어야 할 감각’이라고 파악한다. 전통 서정에 익숙한 시인이라면 지상의 존재인 인간이 하늘을 제압하며 날아가는 조류에게서 자유의 비상과 부러움을 충분히 느낄 법하다. 하지만 부정부패를 일삼고 개인의 자유를 억

압하는 독재 정권의 시대에 낭만적 자유로움은 족쇄 채워질 수밖에 없음을 시인은 알고 있다. 따라서 시인은 ‘개인적이고 낭만적 자유’가 아니라 ‘해방적 자유와 평등’을 위해 비상해 본 ‘선구자적 개인’의 ‘앓이’ 중요함을 갈파한다.

시인은 ‘(해방적) 자유를 위해 비상한 사람’은 네 가지를 알고 있는 존재라고 추론한다. 첫째, 노고지리가 지상의 “무엇을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존재이다. 아마도 ‘지상의 무엇’은 질곡에 허덕이는 민초들의 모습일 것이다. 둘째, 자유에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는 존재이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국민의 희생적 자유라는 피를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셋째, ‘자유에 섞인 피의 냄새’를 파악한 사람은 동시에 혁명이 고독한 이유를 알고 있는 존재이다. 신념을 위해 개인의 안위를 희생하는 선각자는 고독한 결단의 순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넷째, 혁명이 고독해야 하는 당위적 이유를 알고 있는 존재다. 고독한 결단을 위한 충분한 사색과 고민의 순간이 없다면 혁명은 독단이나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수영의 〈푸른 하늘을〉은 낭만적 자유의 부러움을 수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노고지리가 부르는 노래의 진정성을 거쳐 자유의 피 냄새와 혁명의 고독, 혁명적 고독의 당위성까지 이른다. 독재와 억압의 시대를 자유롭게 비상하며 해방적 자유를 구가하고자 했던 시인은 그 자유가 고독한 혁명일 수 있음을 주목한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합리적 신념을 수반해야 한다. 합리적 신념에 따른 용기 있는 결단이라면, 시대적 질곡을 넘어설 해방적 자유의 추구라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게 바로 혁명적 고독의 당위이다. 1960년대 이래 30년 가까운 군부 독재의 시간은 우리에게 해방적 자유를 위해 목숨을 담보

해야 했던 시기임을 증거한다. 201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자유와 혁명과 고독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 8. 나오며

김소월에서 김수영까지를 살펴보았다. 신경림의 〈농무〉 등이 보여 준 1970년대 농촌 공동체의 쇠락한 표정, 1980년대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등이 보여 준 변혁에의 열정, 박남철이나 황지우가 보여 준 1980년대 초엽의 해체시적 열정, 1990년대 초엽의 유하, 장정일, 하재봉 등이 보여 준 발랄한 언어 감각과 풍자 의식, 2000년대 미래파에 이르기까지 근대시의 각개 약진은 지금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언어적 내용과 형식의 수준과 가치는 경험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에 과도기적 근대를 체험한 선구자들로부터 놀이로서 시를 쓰는 21세기 초의 시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말이 지 나온 역사를 짧은 글 안에 담기는 애초에 무리였을 것이다. 명멸해 간혹은 생존해 있는 시인들의 이름만 나열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원고가 넘치고도 남을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원고는 아직 다 쓰이지 않은 채 여전히 쓰고 있는 진행형의 미완성 원고이다.

우리말의 서정은 시대와 함께 발언한다. 때로 그것은 시대를 앞서서 보여 주는 예언자적 지성으로 빛나기도 하고, 때로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울림으로 향유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시는 시대와 함께 발언하고 공감하고 변화한다. 그것이 우리가 6편을 통해 서정시의 풍경을 스케치하면서 확인한 진리일 것이다. 소월의 역겨움의 문학사적 기입, 만해

의 역설적 자의식, 지용의 공감각적 이미지화, 운동주의 외유내강형 부끄러움, 김춘수의 존재론과 관계론, 김수영의 자유와 혁명과 고독 등은 우리 시의 절정의 감각을 보여 준다. 그리고 서정이 품어 낸 우리말의 울림이 시대를 넘어 깊고 넓게 퍼져 있음을 알게 한다.

## 중앙아시아 고려말을 찾아 떠난 여정

이기갑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일없소

1999년 여름, 난생처음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였다. 연해주에 살던 우리 동포들이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떠나던 중앙아시아로 옮겨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 사람, 즉 고려 사람들의 말을 조사할 겸 이 지역을 찾았던 것이다.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니 여섯 시간 만에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도착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중앙아시아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김포-알마티’의 비행기는 일주일에 두 차례밖에 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비행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그 지역에 선교하러 떠나는 기독교인들이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 겸 봉사 활동을 떠났다가 인질로 잡혀 죽임을 당한 기독교 선교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일찍부터 이처럼 선교 활동에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 10시경 비행기는 알마티 공항에 도착하였다. 생소한 곳이라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세관을 통과하게 되었다. 세관 신고서에는 가지고 있는 외국 돈을 신고하게 되어 있었다. 마침 조사 비용을 달러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액수를 적었다. 그런데 세관원은 내 신고서를 보더니 갑자기 지갑을 보자고 했다. 신고한 액수가 맞는지 직접 돈을 세어 보겠다는 것이다. 지갑을 보자는 세관원은 처음인지라 잠시 당황하였지만 지갑을 건네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갑 안에는 2,000달러 정도의 미국 돈과 약간의 한국 돈이 있었다. 세관원은 달러를 세어 보다가 갑자기 20달러짜리 한 장을 빼내더니 “No problem?”이라고 묻는다. No problem?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가도 괜찮은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큰 소리로 “No!”라고 외치자, 이 세관원은 돈을 다시 집어넣더니 이제는 달러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세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신고서에 적은 액수와 지갑 안의 돈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관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완전히 날강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일행 4명 가운데 3명은 모두 70달러를 카자흐스탄 세관원에게 빼앗겼다. 당시 카자흐스탄 대학 교수의 한 달 봉급이 100달러 정도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날 하루 서울에서 오는 비행기 한 대에서 알마티 공항 세관원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둬들인 것일까? 너무도 황당하고 무서운 경험을 한지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까지 하였다. 우리 일행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침내 악몽의 알마티 공항을 빠져나왔다.

2003년, 다시 카자흐스탄을 찾을 기회가 생겼다. 이때도 목적은 고려 사람들의 언어를 조사하는 것이었지만 1999년의 기억도 있고 해서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알마티 공항을 빠져나올 때까지 이전과 같은 부패 세관원은 만나지 못했다. 그동안 이 나라도 많이 깨끗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역시 비행기는 밤 10시경에 도착하였고,

알마티 공항에서 시내에 이르는 도로의 가로수는 얼음꽃으로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한겨울에 알마티를 찾았던 것이다.

며칠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카자흐스탄을 떠나게 되었다.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던 사람이 가방에 넣어 두었던 디지털카메라를 잃어 버렸다고 해서 녹음기 등 중요한 물건들은 직접 비행기 안에 가지고 들어갔고, 화물로 맡긴 가방 안에 든 것은 옷가지 정도가 전부였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수하물을 찾고 일행들과 헤어진 뒤 우연히 가방을 열어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가방에 넣어 두었던 파카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아뿔싸! 카메라나 녹음기 같은 귀중품은 엄두에 두었지만 설마 입던 옷을 훔쳐 가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가방을 잘 잠그지 못한 내 탓도 있었지만, 이제 보니 그 추운 카자흐스탄의 날씨 때문에 아마도 공항에서 수하물을 다루는 일꾼들이 가방 안의 두툼한 거위털 파카를 탐냈던 모양이었다. 내 파카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지는 모르지만 아무쪼록 따뜻하게 입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No problem?’ 카자흐스탄을 떠올릴 때마다 언제나 생각나는 이 말을 우리말로 가장 정확히 옮긴다면 ‘일없다’가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 고려말에서도 흔히 쓰이고, 함경도나 평안도 등 북한 지역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 말은 ‘괜찮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여행에서 돌아온 뒤 그때 만났던 할머니들에게 국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면 그네들은 한결같이 “일없소, 우리 일없이 사오”라고 대답하신다. ‘아무 탈이 없이 잘 지낸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라도에서는 똑같은 말을 전혀 다르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너는 머털라고 일없이 그런 것을 모투냐?”(=너는 뭐 하러 쓸데없이 그런 것을 모으니?)라고 물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나 목적 없이’ 또는 ‘괜히’의 뜻이다. ‘헐 일 없이’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밖에도 “일없는 사람들이 고런 디를 댕 기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댕기겔소?”라고 할 때의 ‘일없는’은 ‘할 일이 없어 시간이 많거나 걱정 근심이 없는’의 뜻을 갖는다. 또 “제가 어깨 주 물러 드릴까요?”라고 애교를 떠는 딸아이에게 “일없다!”라고 대답했다 면, 그때의 아버지는 심기가 몹시 불편한 상태에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처럼 ‘일없다’는 경우에 따라 고려말처럼 ‘괜찮다’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못마땅함이 잔뜩 담긴 말로 해석되기도 한다.

## 2. 아שמ체이오

우리에게는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마땅히 이웃집에 음식을 돌려야 하는 풍속이 있다. 무릇 어느 문화에서나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에게는 일종의 기득권이랄까, 텃세라는 것이 있는 법이니, 이는 새로 그 권역에 들어오는 사람이 음식을 대접하여 인사치레를 함으로써 텃세를 무마시키고 함께 잘 지내보자는 뜻이 담겨 있는 일종의 신고식에 해당하는 풍속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풍속이 자연의 이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 떡을 받는 사람이 그저 그 인사치레를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네 정서이다. 바쁜 와중에도 이웃을 챙겨 주는 마음에 그저 미안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이런 때에 쓰는 말로 전라도말에는 ‘아심찬허니’ 또는 ‘아שמ찮게’가 있다. “뭘 이런 것을 아שמ찬허니 갖고 오신 게라우?”처럼 쓰이는 이 말의 뜻은 아마도 ‘받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고맙게’ 정도일 것으로 짐작되는데,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진 말로 전라도 지역의 젊은이들 대부분은 난생처음 들어 본 말일지도 모른다.

1999년에 카자흐스탄을 찾아 그곳 고려 할머니들과 함께 고려말을 조사하면서, 하루 일이 끝나고 돌아갈 때쯤이면 고마움의 표시로 미국 돈 10달러씩을 드리곤 했다. 우리로서는 별로 큰돈이 아니지만 카자흐스탄 대학 교수의 한 달 봉급이 100달러이니, 연금에만 의존해 사시는 고려 할머니로서는 적지 않은 액수일지도 모른다. 이 돈을 받으신 할머니들이 으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아슴채이오”였다. 물론 ‘아슴채이오’의 모음 /ㅐ /에는 콧소리가 없힌 것이어서 글로 쓰면 그 말맛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아슴채이오’야말로 전라도말 ‘아심찬허니’와 그 기원이 같은 것이다. 전라도와 카자흐스탄의 그 엄청난 거리,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아심찬허니’와 ‘아슴채이오’는 우리가 한겨레임을 여실히 보여 주는 징표였으니, 그것은 마치 수십 년 만에 만나게 된 이산가족들이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 오직 가족만이 알 수 있는 특유한 흉터, 버릇을 묻고 물어 찾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아슴채이오’와 전라도말 ‘아심찬허다’에 대응하는 표준말은 ‘안심찮다’이다. 국어사전에는 ‘안심찮다’를 ‘남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로 의미를 풀이하고 있어, 의미와 형태상으로 방언형과 완전한 대응을 보인다. ‘안심찮다’는 물론 ‘안심하다’의 부정형으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와 같은 기본적 의미에서 출발한 낱말이다. 남으로부터 호의를 받아 송구스럽고 미안하여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뜻이니, 이것이 확대되어 단순히 ‘고맙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표준어의 ‘안심찮다’는 단지 사전에만 실려 있을 뿐 실제 사용되는 예가 거의 없는 듯하니,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고려말의 ‘아슴채이오’와는 그 위치가 다르다고 하겠다.

### 3. 흘글거리고 사오

알마티에서 만난 많은 제보자 가운데 아직까지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 있는 분은 신로사 할머니다. 신 할머니는 당시 일흔네 살이었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다. 연해주 지방에서 태어난 신 할머니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개가하면서 큰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다가 열 살 무렵 중앙아시아로 실려와 집단 농장에서 고된 일을 하며 살게 되었다. 어찌어찌하여 결혼은 하였지만 낳은 딸은 죽어 버렸고, 남들의 조언에 따라 입양한 자식들은 성장한 후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신 할머니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신로사 야. 자식 한내 딸으 하나 마흔다서 해 낳다가 그저 그것두 채 사지 못하구 죽구. 그래 이날 이때까지 거저 이래 헐헐 혼자 혼자 이래 있소. 고상~느 그 어간에 말꺼 없소. 지게 야 더 어디다 말할 데 없지. 남들은 불부게 이렇게 살지라도 어시 사랑~이란 거 모르지. 남편이 사랑~이란 거 모르지. 자식 사랑~이란 거 미네 없소. 야. 그래 어떤 적에 느 남들이 이래지. 냄이 자석으 재리울 그렇다 해서 그래 냄이 자석으 내서으 재레왔소. 딸 한나 아들 둘으 재레왔소.

= 예, 자식 하나 딸을 하나 1945년에 낳았다가 그저 그것도 채 살지 못하고 죽고 그래 이날 이때까지 그저 이렇게 힘들게 혼자 혼자 이렇게 있소. 고생은 그 무렵에 말할 것 없소. 그것이야 더 어디에다 말할 데 없지. 남들은 부럽게 이렇게 살지라도 부모 사랑이란 것 모르지, 남편 사랑이란 것 모르지, 자식 사랑이란 것 전혀 없소. 예. 그래 어떤 때에는 남들이 이러지. 남의 자식을 키우면 그렇다고 해서 그래

서 남의 자식을 내가 셋을 키워 왔소. 딸 하나 아들 둘을 키웠소.

신로사 할머니의 말은 모두 함경도 방언에 바탕을 둔 고려말이다. 그래서 함경도 방언과 함께 러시아말도 눈에 띈다. 밀줄 친 ‘미네’가 바로 그 러시아말로 ‘전혀’의 뜻이다. 그 밖에 표준어와 비교해 봐도 다른 말들이 많이 눈에 띈다. 1945년을 ‘마흔다섯 해’라고 말하는 것이 특이하고, ‘부럽다’를 ‘불부다’, ‘기르다’나 ‘키우다’를 ‘재리우다’ 등으로 말하는 것은 모두 함경도 방언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힘들다’는 뜻으로 ‘헐헐하다’라는 독특한 말을 쓰기도 한다. ‘헐헐하다’는 ‘결결하다’라고도 하고, 힘들게 지내는 모양을 형용할 때는 ‘흘글거리다’라고 하기도 한다. 역시 신로사 할머니의 말 속에 이러한 표현이 나타난다.

[신로사 고생~느 더 말 없소. 야 내 고상~느 어렸일 때부터 이때꺼정 일흔네살으 먹을 때꺼정 그저 재빌루 그저 흘글거리구 사오. 개 이래 말으 내 말으 하는 것 알아들겠지?

= 고생은 더 말 없소. 예 내 고생은 어렸을 때부터 이때까지 일흔네 살 먹을 때까지 그저 스스로 그저 힘들게 사오. 그래 이렇게 말을 내 말을 하는 것 알아들겠지?

할머니는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홀로 죽음을 맞지 않을 까 늘 걱정하신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에는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지낸다. 혹시 몸이 아파 죽음을 맞이할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나 이웃 사람들이 자신의 주검을 거두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다시 신 할머니의 말이다.

[신로새 일흔너인 게 어떠 적에느 아픈 때도 있지야~? 아픈 때 있으  
아무 사람도 없다가나이 빈집에 있소. 인데 이 셋가에 딱 붙여서 괴래 있  
소. 괴래 모진 앓을 적에느 대문 들어오는 문 싹 열어 놓소 내. 아~ 니 곁  
오. 혹은 괴래두 그 안에서 숨 없이 살다가 혹은 죽은 녀에느 밋 칠이 아  
~니 뭘 한질 아~니 내 멩기무 혹은 타국 사람이라도 문을 열고 들오라는  
이거 개 동삼 같은 때느 벌써 우리 깔립까 여가레야~ 자리 없잖겠? 사  
람 발자기들이 없으무 그 쏘시에뜨 노치네들이 거그 와선 어부작으 치  
오. 어 있는가 없는가 괴래 그래 나가서 있다 하무이 어째 니 상기도 일  
어나서 눈으 치재~ 였냐 이럼 누가 치겠소? 칠 사람 없지. 야 괴래 어떠  
적에느 쏘시에뜨 그 러시아 사람들에 그 들오는 질으 쳐 주구 어떠 적에  
느 그게 다 녹아 절로 빠질 때꺼져 이르게 그렇게 내 시장~ 있소.  
= 일흔넛인 것이 어떤 때는 아플 때도 있지. 아플 때 있으면 아무 사  
람도 없으니까 빈집에 있소. 그런데 식당방(?)에 딱 누워서 그렇게 있  
소. 그래서 모질게 앓을 때에는 대문 들어오는 문 싹 열어 놓소. 내가  
끄지 앓소. 혹은 그래도 그 안에서 숨 없이 살다가 혹은 죽을 때에는 며칠  
아니 되면 내가 한길 다니지 않으면 혹은 타국 사람이라도 문을 열고 들  
어오라는 이것 그래 겨울 같은 때에는 벌써 우리 셋문 쪽에 자리 없잖  
겠소? 사람 발자국들이 없으면 그 이웃 노인네들이 거기 와서는 큰소  
리를 치오. 어 있는가 없는가? 그래 그래서 나가서 있다 하면 이 왜 너  
아직도 일어나서 눈을 치우지 않았니? 그럼 누가 치우겠소? 치울 사  
람이 없지. 야, 그래 어떤 적에느 이웃 러시아 사람들이 그 들어오는  
길을 치워 주고 어떤 때에는 그게 다 녹아 저절로 빠질 때까지 이렇게  
그렇게 내 지금 있소.

위의 구술 발화에서도 러시아말이 두 차례 쓰였다. 대문에 있는 작

은 문, 또는 울타리에 있는 셋문을 가리키는 ‘칼립까’와 ‘이웃’을 뜻하는 ‘쏘시에뜨’가 그것이다. 그 밖에 흥미로운 고려말로는 ‘여가리’와 ‘어부작’을 들 수 있다. ‘여가리’는 ‘부근’이나 ‘근처’의 뜻을 갖는 낱말인데, 아마도 공간을 뜻하는 ‘넙’에 접미사 ‘-아리’가 붙은 말로 추정된다. 한편 ‘어부작’은 동사 ‘치다’와 어울려 쓰이는데 문맥으로 보아 ‘큰소리를 치다’ 또는 ‘악을 쓰다’ 등의 뜻을 나타낸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방언을 조사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그 지역의 말만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흔히 제보자의 삶을 엿보게 된다. 방언 조사 과정에서 만난 많은 할머니들은 자신의 고단한 삶이나 고생했던 일들을 책으로 묶는다면 수십 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한다. 이 점은 이국땅을 떠돌며 살아야 했던 고려 할머니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어찌면 고려 할머니들의 삶이야말로 파란만장한 영화와 같은 것이 대부분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과 격동의 현대사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아시아의 고려말을 조사하면서 겪은 조사자의 여정은 곧 우리 민족이 겪은 현대사의 단편을 간접 체험하는 귀한 기회이며 보람이었음이 틀림없다.

## 중국의 소수 민족 어문 정책\*

이종열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1. 중국 소수 민족과 민족 정책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우리나라도 사회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하나로써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오랫동안 다문화 사회를 경험해 온 중국의 다문화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중국은 예부터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현재 중국에는 한족(漢族)과 소수 민족 55개 부족이 거주하고 있다. 2010년 제6차 전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인구는 1,339,724,852명이다. 이 중 한족이 1,220,844,520명으로서 약 91.5%이며, 소수 민족은 118,880,332명으로 약 8.5%에 해당한다.

중국 소수 민족은 분포 지역이 넓고 점유 면적이 광대하고 주체 민족인 한족과 함께 널리 흩어져 뒤섞여 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소수

---

\* 이 글은 이종열·범령령(2009), 다문화 시대의 언어 정책: 중국의 소수 민족 어문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3), 41~57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민족이 고원, 산맥, 평원, 삼림 지대에서 생활하는데 이곳은 지하자원 특히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이다. 소수 민족 거주지 중 상당수는 목축업이 발달했고 농작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러한 지역들은 변경 지대에 있어서 주변 국가와 인접해 국방과 주변국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다.

중국 소수 민족들은 60여 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민족은 거주지가 달라서 두 가지 혹은 몇 가지 언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60여 종의 언어는 5개 어계(語系), 10개 어족(語族), 16개 어지(語支)로 나누어진다. 또한 중국 소수 민족의 종교는 매우 다양하며, 종교가 여러 민족의 사회·경제 제도 및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소수 민족의 종교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영향력이 큰 종교는 이슬람교와 불교이다. 그 외에 개신교와 도교, 샤머니즘, 천주교도 있다. 이슬람교는 회, 이글, 카라르 등 10여 개 민족이 신봉하고 있고, 불교 특히 라마교는 티베트족, 몽고족 등이 많이 믿고 있는데 그 신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 소수 민족 중 기독교 신자는 1,000만 명, 천주교 신자는 400만 명, 이슬람교 신자는 1,80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중국은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차 전국 대표 대회 이후 민족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민족 문제의 실질은 민족 평등의 견지, 민족 단결의 강화라는 기본 원칙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후 중국은 효과적인 민족 정책을 추진하여 민족 관계와 민족 차별 문제를 극복하고 있으며 평등, 단결, 협조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민족 정책에서 선언되는 주요 내용은 ① 민족 평등 정책, ② 민족 단결 정책, ③ 민족 구역 자치 정책, ④ 사회 개혁 정책, ⑤ 경제 문화 사업 정책, ⑥ 언어 문자 존중 정책, ⑦ 풍속 습관 존중 정책, ⑧ 종교 신앙 자유 정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중국 민족 정책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인 중국’이라는 ‘조국의 대가정(祖國의 大家庭)’에는 56개 민족이 살고 있으며, ‘민족 평등은 민족 단결의 전제 조건이며, 민족 단결은 민족 평등을 실현하는 담보’라는 인식 아래, ‘민족 구역 자치라는 구체적 실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 구역 자치를 통해 중국의 소수 민족은 중국 정부의 사회주의적 개혁과 경제 문화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며, 언어· 문자· 풍속 습관· 종교·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

## 2. 중국 소수 민족 문자와 언어 현황

### 2.1. 중국 소수 민족 문자 현황

과거부터 내려온 중국의 민족 문자는 모두 21개 민족, 28개 종류였다. 이 가운데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는 문자는 12개 민족의 17종이다. 중국 소수 민족의 문자 제도와 체계에 근거하여 문자를 분류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상형 문자(象形文字), 한자 및 한자의 변체(變體), 음절 문자(音節文字)와 표음 문자(表音文字)이다. 상형 문자에는 남서족동파문(納西族東巴文)이 있고, 한문(漢文), 장자(壯字), 동자(侗字), 수서(水書), 백문(白文)이 한자 및 한자의 변체(變體)에 속한다. 음절 문자에는 남서문가파문(納西族哥巴文)과 이문(彝文)이 해당되며, 표음 문자에는 ① 인도 자모 체계인 장문(藏文), 태문(傣文), ② 아라비아 자모 체계인 구유오이문(舊維吾爾文), 구합살극문(舊哈薩克文), 오자별극문(烏孜別克文), 가이극자문(柯爾克孜文), 탑탑이문(塔塔爾文), ③ 유오이(維吾爾) 자모 체계인 몽고문(蒙古文), 석백문(錫伯文), ④ 조선(朝鮮) 자모 체계인 조선문(朝鮮文),

표 1 중국 소수 민족 문자의 분류

상형 문자	납서족동파문(納西族東巴文)
한자 및 한자의 변체(變體)	한문(漢文), 장자(壯字), 동자(侗字), 수서(水書), 백문(白文)
음절 문자	납서족가파문(納西族哥巴文), 이문(彝文)
표음 문자	(一) 인도 자모 체계: 장문(藏文), 태문(傣文)
	(二) 아라비아 자모 체계: 구유오이문(舊維吾爾文), 구합살극문(舊哈薩克文), 오자별극문(烏孜別克文), 가이극자문(柯爾克孜文), 탑탑이문(塔塔爾文)
	(三) 유오이(維吾爾) 자모 체계: 몽고문(蒙古文), 석백문(錫伯文)
	(四) 조선(朝鮮) 자모 체계: 조선문(朝鮮文)
	(五) 라틴 자모 체계: 장문(壯文), 경파문(景頗文), 납호문(拉祜文), 와문(佯文), 울속문(僮僮文), 신유오이문(新維吾爾文), 신합살극문(新哈薩克文), 포의족(布依族), 묘족(苗族), 여족(黎族), 납서족(納西族), 동족(侗族), 합니족(哈尼族) 등 문자
	(六) 슬라브 자모 체계: 아라사문(俄羅斯文)

출처: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누리집 2013년 기준(<http://www.seac.gov.cn/>)

⑤ 라틴 자모 체계인 장문(壯文), 경파문(景頗文), 납호문(拉祜文), 와문(佯文), 울속문(僮僮文), 신유오이문(新維吾爾文), 신합살극문(新哈薩克文), 포의족(布依族), 묘족(苗族), 여족(黎族), 납서족(納西族), 동족(侗族), 합니족(哈尼族) 등 문자, ⑥ 슬라브 자모 체계인 아라사문(俄羅斯文) 등은 모두 표음 문자에 해당된다(표 1 참조).

## 2.2. 중국 소수 민족 언어 현황

현재 중국 소수 민족의 언어를 언어의 친족 관계를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5개 어족, 10개 어군, 72종류의 언어로 구분된다. 즉, 중국의 소수 민족은 회족과 만족들이 한어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그들 모두가 고유한 민족 언어를 가지고 있다.

표 2 중국 소수 민족 언어의 분류

중국-티베트 어족	중국어군	회족(回族), 만족(滿族)들이 일반적으로 사용
	티베트-버마 어군	티베트어: 장어(藏語), 가용어(嘉戎語), 문파어(門巴語)
		이어: 이어(彝語), 남서어(納西語), 율속어(傣僳語), 합니어(哈尼語), 남호어(拉祜語), 기낙어(基諾語)
		경파어(景頗語)
		면어(緬語, 버마어): 아창어(阿昌語)
	미확정어: 강어(羌語), 독룡어(獨龍語), 노어(怒語), 백어(白語), 토가어(土家語), 낙파어(珞巴語), 보미어(普米語)	
	장-통 어군	장태어(壯傣語): 장어(壯語), 포의어(布依語), 태어(傣語)
		동수어(侗水語): 동어(侗語), 무모어(仂佬語), 수어(水語), 모남어(毛南語), 랍가어(拉珈語)
		여어(黎語)
		흘료어(仡佬語)
미야오-야오 어군	묘요어(苗瑤語, 미야오어): 묘어(苗語), 포노어(布努語, 부노어)	
	야오어: 요어(瑤語, 야오어), 면어(勉語, 미안어)	
	미확정어: 여족(黎族)	
알타이 어족	튀르크 어군	서돌궐어(西突厥語): 우오이어(維吾爾語), 할살극어(哈薩克語), 오자별극어(烏孜別克語), 탐탐이어(塔塔爾語), 샬랍어(撒拉語)
		동돌궐어(東突厥語): 서부유고어(西部裕固語)
	몽골 어군	몽고어(蒙古語), 달간이어(達幹爾語), 토가어(土家語), 동향어(侗響語), 보안어(保安語), 동부유고어(東部裕固語)
	만주-통구스 어군	만주어(滿州語): 만어(滿語), 석백어(錫伯語), 혁철어(赫哲語) 통고사어(通古斯語, 통구스어): 악룬춘어(鄂倫春語, 오로첸어), 악온극어(鄂溫克語, 예벤키어)
남아 어족	와덕양어	와어(瓦語), 덕양어(德昂語), 포랑어(布朗語)
인도 어족	슬라브 어파	아라사어(俄羅斯語)
	이란-인도 어파	탐길극어(塔吉克語)
남도 어족	인도네시아인 어파	고산족언어(高山族言語)
고립 언어	경어(京語), 조선어	

출처: 중국언어문자망 누리집 2013년 기준 (<http://www.china-language.gov.cn/>)

중국 소수 민족 언어는 고립 언어를 포함해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중국-티베트 어족, 알타이 어족, 남아 어족, 인도 어족, 남도 어족과 고립 언어이다. 그중에서 중국 어군, 티베트-버마 어군, 장-통 어군, 미야오-야오 어군은 중국-티베트 어족에 해당되고, 튀르크 어군, 몽골 어군, 만주-통구스 어군은 알타이 어족에 해당되며, 와덕양어는 남아 어족에 해당하고 슬라브 어파와 이란-인도 어파는 인도 어족에 속하며, 인도네시아 어파는 남도 어족에 속하고 경어(京語)와 조선어(朝鮮語)는 고립 언어에 해당한다(표 2 참조).

### 3. 중국 소수 민족 언어 및 문자 정책 주요 내용

다민족, 다언어, 다문자의 국가인 중국에서 소수 민족에 대한 언어 및 문자 정책은 민족 정책의 상징적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중국 55개 소수 민족 중 어느 한 민족이 언어 및 문자의 사용에서 차별 대우나 억압을 받는다면 그 민족은 다른 민족과 평등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중국 소수 민족 언어 및 문자 정책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민족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언어 문자 사용의 자유를 강조한 정책이고, 둘째는 소수 민족 문자의 제정과 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이며, 셋째는 민족 언어 교육과 한어 교육의 상호 학습 권장 정책이고, 넷째는 소수 민족 언어 및 문자 연구에 종사하는 인재 양성의 지원 정책이다.

### 3.1. 민족 평등 원칙을 바탕으로 언어 문자 사용 자유 강조

중국은 1949년 9월 29일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제1기 전체 회의(12개 소수 민족 대표도 참가)에서 통과시킨 ‘공동 강령’에서 ‘언어 및 문자를 발전시킬 자유’를 규정한 이래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4조 민족 언어 및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 동법 제121조 자치 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역에서 통용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언어 및 문자의 사용, 동법 제134조 민족 언어 및 문자로써 사법적 권리 행사 등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법제화는 중국의 소수 민족 언어 및 문자는 중국어(한어) 및 중국 문자(한문)와 평등한 위치에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국가 모법인 헌법으로 언어 및 문자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 민족 평등의 원칙을 구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헌법 규정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법’에 헌법과 상응한 규정을 만들었다. 즉, 동법 제10조(헌법 제4조에 상응), 제21조(헌법 제121조에 상응), 제47조(헌법 제134조에 상응)와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6조의 ‘소수 민족들의 통용하는 문자로써의 교육 실시’ 등이 있다.

또한, 1982년 ‘중화 인민 공화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조직법’ 제19조 전국 인민 대표 대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 소수 민족 대표들에게 필요한 민족 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과 1955년 ‘중화 인민 공화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 대표 대회 선거법’ 제22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에서 선거에 관한 공문이나 명단, 명찰, 도장을 만들 때, 현지에서 통용하는 민족 언어 문자를 써야 함 등도 민족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언어 문자 사용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2001년 1월에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언어 문자 전문 법률인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 통용 언어 문자법'을 반포하였으며 이 법에서도 소수 민족 언어 문자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한다. 이러한 법 규정들은 민족 평등의 원칙을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내 소수 민족들이 그들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민족 언어 및 문자의 사용에 대해 국가의 보호와 협조를 보장받는다.

### 3.2. 소수 민족 문자의 제정과 개혁 추진

문자 제정과 개혁에 대한 논의는 1951년부터 제기되었다. 1951년 2월 중국 정부원(政務院)은 중앙 민족 사무 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민족 사무에 관한 6개항을 결정하였는데, 그중 다섯째 항의 내용을 보면, “정부원의 문화 교육 위원회 내에 ‘민족 언어 및 문자 연구 지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수 민족 언어 및 문자에 관한 연구 사업을 지원한다. 아직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는 문자를 제정하도록 도와주고 문자가 완전하지 못한 민족에게는 점차적으로 그 문자가 보장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베이징에 ‘민족 언어 문자 연구 지도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1954년 5월 정부원에 ‘아직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문자 제정을 도와주는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민족의 언어는 있어도 아직 문자가 없거나 혹은 통용되는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는 스스로 선택한 문자를 근거로 그들에게 일종의 표음문자를 제정하여 주거나 또는 그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한 종류의 문자를 스스로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건의하였다(謝慶奎 1993:303). 정부원은 이 건의를 허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그 당시 중국에 언어 문자를 연구하는 최고의 학술 기구인 ‘중국 과학원 언어 연구소(中國科學院語言研究所)’와 민족 사무를 주관하는 ‘중앙 민족 사무 위원회’에 맡겼다.

1955년 12월 베이징에서 ‘전국 민족 어문 과학 토론회’를 시작한 이래 민족 문자의 제정과 개혁을 위한 전면적인 계획이 착수되어 1960년에 이르기까지 민족 언어 및 문자에 대한 조사 및 개혁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었다. 전 중국을 대상으로 한 소수 민족 언어 및 문자 조사는 1956년부터 중국과학원과 중앙민족사무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전후 700여 명의 전문가가 동원되어 16개 성과 자치구를 상대로 하여 조사하였다. 2년여 동안의 조사 연구를 통해 약 40개에 달하는 소수 민족의 언어 및 문자를 계통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민족 문자를 제정하고 개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언어 및 문자에 대한 조사 연구는 중국 역사상 처음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였다(中國大百科全書(民族) 1986:556, 전인영 1994).

### 3.3. 민족 언어 교육과 한어 교육의 상호 학습 권장

1951년 9월 개최된 제1차 전국 민족 교육 업무 회의에서 “몽고, 티베트, 조선, 위구르, 허사크의 민족과 같이 통용되는 문자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민족은 모든 교육 현장에서 그들의 민족 언어 및 문자로써 가르쳐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대부분 소수 민족의 거주 지역에서 모두 준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내몽고자치구의 초등학교에서는 몽고어로써 수업을 하고 있는데, 몽고족은 7세부터 11세까지 어린이의 입학률이 96.8%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몽고어로 교육을 받고 졸업한 학생은 91%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는 이 지역의 한족 학교 비율보다도 높은 것이다(謝慶奎 1993:309).

한편, 중국은 민족 어문 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각 민족 문자로 쓰인 각종 교과서, 교재의 편찬을 독려하고 있다. 즉 소수 민족 밀집 지역에서의 정부 조직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통한 각종 교과서와

교재의 번역, 출판, 발행 이외에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과 각 인민 정부는 민족 지구의 문맹 퇴치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농촌과 소수 민족 지구를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문맹 퇴치 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였다. 1988년 2월 국무원은 ‘문맹 퇴치 업무 조례’를 반포하기도 하였다. 이 활동에는 민족 어문의 보급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내몽고 자치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1950년대 초 문맹 및 반문맹률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8년 조사에 의하면 문맹률이 13.7%로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전인영 1994).

그런데 한어는 중국에서 통용하는 언어로서 또한 중국 주류 사회에서 쓰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중국의 각 소수 민족이 본 민족의 언어 및 문자로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중국어로도 교육을 받는 것은 각종 사회 활동에 참가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그리하여 소수 민족 밀접 지역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 한어 교육 과정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수 민족 밀접 지역의 이중 언어 교육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내몽고 지역, 몽고족의 일부분,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과 연변 지역의 조선족은 민족 언어 교육을 위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한어 과목을 개설하고, 광서 지역 장족의 일부분, 양산 지역 이족과 서쌍판납과 덕홍의 타이족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민족 언어를 위주로, 고학년이나 중학교 단계에서 한어 위주 교육을 시행한다. 민족 문자가 없거나, 통용되지 못하는 소수 민족 지구의 경우는 한어나 해당 지역의 기타 민족 문자로 된 교과서를 사용하여, 본 민족의 언어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된다.

표 3 소수 민족 지구 이중 국어 교육의 유형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진행 방법	민족 언어 교육 위주, 초등학교 2학년부턴 한어 과목 개설	초등학교 저학년 민족 언어 위주, 고학년이나 중학교 단계에서 한어 위주	한어나 해당 지역 기타 민족의 문자로 된 교과서를 사용, 본 민족의 언어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됨
대표 지역과 민족	내몽고 지역 몽고족의 일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연변 지역의 조선족	광서 지역 장족의 일부, 양산 지역 이족, 서쌍판나와 덕홍의 타이족	민족 문자가 없거나 통용되지 못하는 소수 민족 지구

출처: 謝慶奎(1993:311)

### 3.4. 소수 민족 언어 및 문자 연구에 종사하는 인재 양성 지원

1949년 수립된 중국 공산당 정권은 1950년 11월 24일 정무원(政務院) 제16차 정무 회의에서 중앙민족학원 건설 준비 시행 방안을 의결했다. 중앙민족학원 시행 방안에서 소수 민족 언어 및 문자 학과를 설립하는 것을 규정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로서 소수 민족 사업을 희망하는 한족 학생이나 같은 학력의 소수 민족 학생’에게 ‘각 소수 민족 언어 및 문자를 특별히 전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시행 방안에 의해 중앙민족대학과 서남(西南)·서북(西北)·중남(中南)·동북(東北)·광둥(廣東)·광서(廣西)·귀주(貴州)·운남(雲南)·호북(湖北) 등 13개 민족 대학에 언어 및 문자학과 또는 단기 특별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각 소수 민족 언어 및 문자에 대한 교육, 과학 연구, 번역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게 되었다.

중앙과 각 지방의 민족 대학뿐만 아니라 민족 자치구의 단과 대학과 종합 대학, 예를 들면 내몽고 몽고족 자치주에 있는 내몽고대학(內蒙古大學), 신장위구르족 자치주에 있는 신장대학(新疆大學), 티베트

자치주에 있는 티베트 대학,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연변대학(延邊大學) 등에도 모두 민족 언어 및 문자와 관련된 학과나 과정 그리고 연구소를 개설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었다.

#### 4. 중국 소수 민족 어문 정책의 평가

1970년 이래 중국은 소수 민족 문화 사업 발전을 위해 각종 전항 자금(專項資金), 사업 보조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다. 1990년대 분세제(分稅制) 개혁 이후 중국은 민족 자치 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일반적 재정 이전 지급, 전항적 재정 이전 지급, 민족 우대 정책 재정 이전 지급 등을 통하여 민족 자치 지역의 경제, 교육, 위생, 문화, 사회 복지 분야의 발전을 지원한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이전 지급 규모는 461억 위안에서 9,144억 위안까지 18.8배가 늘어났다.

각급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중국의 소수 민족 문화 발전에 근본적인 보장이 되는 셈이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민족 자치 지역에 대한 지방 재정 지출 중 문화 교육과 과학 위생에 대한 지출은 289억 8천만 위안에서 848억 3,600만 위안까지 증가하였다. 2000년 민족 자치 지역 지방 재정 지출의 24.7%와 2006년 민족 자치 지역 지방 재정 지출의 22.7%를 문화 교육 지출비가 차지하였다. 그와 동시에 민족 자치 지역 1인당 평균 문화 교육 지출은 172위안에서 480위안까지 1.8배가 늘어났다(中國民族工作年鑒 2007:334, 426).

2006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민족 자치 지역에는 대학교 167개, 고등학교와 중학교 12,695개, 초등학교 63,149개가 있다. 대학교는

1952년보다 15.2배가 늘어났고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1952년보다 23배가 늘어났다. 대학교 재학생은 113만 명,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재학생은 1,245만 명이다. 각 민족 자치 지역의 대학교는 소수 민족 문화 교육 관련 소수 민족 인재를 양성하는 주요 수단이다. 2006년 전국 민족 자치 지역 대학교 졸업생은 23만 9,000명이었다.

2009년 9월 27일 출판된 《중국민족정책백서》에 의하면 중국 소수 민족 중 약 6,000만 인구가 본 민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수 민족 총 인구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약 3,000만 명은 본 민족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민족 자치 지역에서 민족 언어로 방송을 하는 방송 기구는 154개로, 중앙과 지방 방송국에서 매일 21종의 민족 언어로 방송을 하고, 민족 출판사도 1978년에 17개에서 2009년에는 38개로 늘었으며 베이징 등 14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분포되어 있다. 출판된 소수 민족 문자의 종류는 5종에서 현재 26종이 되었다. 2008년 소수 민족 문자로 출판된 도서는 5,561종에 6,444만 권이고 이는 1978년보다 각각 6.41배와 6.37배가 증가했다. 약 4만 3천 백 명이 이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언어의 사회적 기능과 언어경제학 이론의 관점으로 보면 총 인구수의 9%만 차지하는 소수 민족은 60% 이상이 본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민족 경제와 문화의 발전, 나아가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인 중국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어는 사회 통합의 도구로써 민족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나아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저우다이핑(周大平 1986)은 법에 의해 소수 민족 어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중국 각 민족의 단결과 민족 번영 및 진보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해 존중과 인정을 하면서 사회 안정을 구현해야만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후진타오(胡錦濤)는 오랫동안

안의 실천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 민족 이론과 중국 민족 문제의 실재를 적당히 결합하여 중국의 국정을 운영하고 중국적 민족 정책을 찾아 평등, 단결, 협조의 민족 관계를 착실하게 발전시켰으며 이에 따라 민족 자치 지역의 경제, 사회도 안정적으로 번창하고 발전했다고 평가했다(中國少數民族文化事業發展報告 2008).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언어적 권리의 관점으로 보면 중국의 민족 어문 정책은 소수 민족들의 모국어 사용권, 교육권, 전파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통해 언어적 인권, 나아가 정치적 참여권도 함께 부여한다. 양젠우(楊健吾 2006)는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민족 어문 정책이 중국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과학적 정책이라 평가했다. 중국 소수 민족 어문 정책은 어떤 특정한 면에 중국 각 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추진하여 효과적으로 중국 소수 민족의 인권을 보호했다고도 평가를 내렸다.

중국은 소수 민족의 언어 및 문자의 사용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 법적, 인적 원조를 할 뿐만 아니라 다언어 방송, 다언어 의사소통, 다언어 문서, 다언어 및 다문화, 다민족 교육 등을 추진하고 사적 영역에서도 소수 민족 학교나 이중 국어 교육을 지원하기도 한다. 소수 민족 언어의 사용을 격려하기 위해 행정 기관, 사법 기관, 병원, 학교 등에서도 통역이나 다언어 직원을 배치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주류 사회 및 지배 사회의 시민들에게도 다언어 및 다문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전인영(1994), 중국의 소수 민족 정책 분석: 어문풍습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3(4).
- 謝慶奎(1993), 《當代中國的民族工作(上, 下)》, 北京:當代中國出版社.
- 楊健吾(2006), 中國政府的民族語文政策與中國少數民族人權保護, 《畢節學院學報》, 年第一期.
- 中國大百科全書民族卷編委會(1986), 《中國大百科全書(民族)》, 北京: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葛忠興·李曉超 主編(2007), 《中國民族工作年鑒》, 北京:民族出版社.
- 金星華·張曉明·蘭智奇 主編(2008), 《中國少數民族文化事業發展報告北京》, 北京:民族出版社.
- 周大平(1986), 我國少數民族語言文字健康發展, 《科教文化》.
- 中國語言文字網 [www.china-language.gov.cn](http://www.china-language.gov.cn)
- 中華人民共和國國家民族事務委員會網站 [www.scac.gov.cn/gjmw/index.htm](http://www.scac.gov.cn/gjmw/index.htm)
- [www.gov.cn/zwgk/2005-05/26/content\\_1131.htm](http://www.gov.cn/zwgk/2005-05/26/content_1131.htm)
- [www.scac.gov.cn/gjmw/zt/2009-06-02/1243138871166203.htm](http://www.scac.gov.cn/gjmw/zt/2009-06-02/1243138871166203.htm)

## 국립국어원 소식



## I . 국립국어원 주요 행사

### 1. 2013년 제 6기 국외 세종학당 교원 초청 연수 실시

- 20개국 36개 세종학당 교원 45명, 외국인 교원 11명 참가
-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미국, 프랑스 등 세계 20개국 소재 36개 세종학당에 근무하는 한국어 교원 45명을 초청하여 '제6기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대표 조규형) 주관으로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었다.

지난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초청 연수는 세종학당 교원들에게 체계적인 한국어 교수법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교육함으로써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교원들은 이 연수를 통해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현지 학습자들에게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안내자이자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를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약 250여 명의 세종학당 교원들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특히 이번 연수에는 중국, 몽골, 베트남,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11명의 외국인들이 세종학당 교원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어 교육과 실습, 한국 문화 답사 및 체험, 세계 한

국어 교육자 대회 참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연수 참가자들은 △한국어 교수법 △모의 수업과 한국어 수업 참관 △한국어 교수 학습 설계 및 한국어 교재 개발 실습 △한국 역사문화 탐방(북촌 한옥마을 등) 등의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7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된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에 참가했다.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는 한국어·한국 문화 관련 다양한 특강뿐 아니라, 세종학당 운영 및 교재 관련 교육, 세종학당 운영 사례 발표 및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국외 한국어 학습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세종학당 교원으로서 한국어 교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 세종학당을 연차적으로 확대 개설하는 한편 한국어 교육 기초 연구,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한국어 전문 교원의 양성, 교원 재교육 및 파견 사업 확대를 통해 세종학당 운영의 질적인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II. 국립국어원 주요 활동

### 1. 국립국어원, KBS와 함께 드라마와 노래로 배우는 <두근두근 한국어 2> 제작, 전 세계로 방송

- 7월 5일 첫 방영, 지구촌 안방에서 배우고, 즐기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 드라마, 케이팝(K-pop), 개그 콘서트까지 교육 소재는 넓히고, 전문가 협업으로 내용은 체계적으로

#### **전 세계 안방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즐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과 한국방송공사(사장 길환영, 이하 KBS)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방송 강좌 <두근두근 한국어 2>를 7월 5일부터 KBS 월드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방영한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한류 콘텐츠를 소재로 간단한 한국어 표현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방송을 제작함으로써 외국인들의 한류 열기를 한국어 학습과 문화 이해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 방송의 제작 목적이다.

<두근두근 한국어>는 세종학당 등 국외 현지에서의 한국어 학습 열기와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처음 제작방영되었으며, 올해에는 전년도보다 더욱 풍부한 문화 콘텐츠와 전문화된 교육 내용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다가간다.

이를 위하여 <두근두근 한국어 2>에서는 드라마와 케이팝(K-pop)

은 물론 개그 콘서트 등 오락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였다.

- 활용 콘텐츠: 〈매리는 외박 중〉, 〈학교 2013〉, 〈내 딸 서영이〉 등 인기 드라마,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등 케이팝(K-pop), 〈개그 콘서트〉, 〈뮤직 뱅크〉 등

특히, 이번에는 국립국어원과 KBS,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협업하여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주 시청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어 초급에서 중급 초반까지의 수준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본을 작성함으로써 양질의 한류 콘텐츠로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로써 전 세계 88개국 5,200만 가정에서 TV만 켜면 양질의 콘텐츠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

### **전 세계 88개국 5,200만 가구에 송출, 누리집, DVD 등 자료 접근성 강화**

〈두근두근 한국어 2〉는 7월 5일(금)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1편씩 KBS 월드 채널을 통해 10분간 전 세계 88개국 5,200만 가구에 방영됐다. 전년도에 방영된 〈두근두근 한국어(12편)〉가 국외 시청자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었던 것에 힘입어 올해는 40편으로 확대 제작하게 되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BS 가애란 아나운서가 진행자로 나서 쉽고 간결한 설명으로 한국어 표현과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

올해에는 방송을 보기 어려운 지역의 거주자나 지속적 체계적인 학습을 원하는 시청자를 위하여 누리세종학당 및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방송 동영상과 학습 자료를 실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방송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별도로 학습 자료집과 다국어 디브이

디(DVD)를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제작하여 전 세계 세종학당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외에 있는 한국어 교사가 <두근두근 한국어 2>를 교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두근두근 한국어 2>에서는 시청자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가칭 <두근두근 한국어 따라잡기>)도 마련하였다. 방송에서 소개된 방송 콘텐츠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청자가 그대로 재연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지정된 누리소통망(SNS)에 올리면, 연기·발음·준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케이팝(K-pop) 스타의 사인이 담긴 시디(CD), KBS 월드 티셔츠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한국어 교육 자료를 개발할 예정**

지금까지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내 다문화 가정 구성원, 국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국내외 한국어 교원 등을 위하여 책자, 방송,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여러 부처·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 향상과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에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개발·보급함으로써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모쪼록 이번에 방영되는 <두근두근 한국어 2>를 통하여 한류로 시작된 한국어·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두근두근 한국어 2> 시작 화면



가애란 KBS 아나운서가 <두근두근 한국어 2>를 진행하는 모습

<두근두근 한국어 2>에 활용된 드라마(왼쪽부터): <매리는 외박 중>, <학교 2013>



## 2.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사업을 위한 동영상 공모 결과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사업을 널리 알리고 우리말 사랑의 필요성을 일깨우고자 국립국어원에서 펼친 동영상 공모전 응모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동영상 심사 결과

- 버금상(1명)
  - 김\*형: 행복한 사회 만들기의 시작은?
- 딸림상(1명)
  - 김\*영: 아름다운 한국어, 우리말 꽃이 피었습니다.

### 시상식

표어 수상자와 함께 우리말 사랑 동아리 설명회(7월 13일) 때 시상

## 3. 2013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개최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는 21세기 세종 계획 사업에서 구축된 국어 언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어 정보화 인력 양성 및 저변 확대를 유도하는 등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수준을 높이는 촉매 역할을 해 왔다.

2013년도 경진 대회는 지정과 일반의 두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지정 분야는 국어 형태소 분석 및 태깅이고, 일반 분야는 말뭉치 분석 및 활용 도구, 국어 문법 및 언어 현상 검색·추출 소프트웨어,

언어 학습 도구 등 국어 정보 처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함했다.

- 일자: 2013년 10월 11일(금)
- 장소: 국민대학교
- 참가 분야

지정 분야	일반 분야
국어 형태소 분석 및 태깅 (시스템 학습을 위한 학습 말뭉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말뭉치 구축 도구</li> <li>• 국어 말뭉치 분석 및 활용 도구</li> <li>• 국어 문법 및 언어 현상 검색·추출 소프트웨어</li> <li>• 기타 독창성이 있는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등</li> </ul>

- 참가 자격
  - 개인 또는 팀
  - 대학교, 고등학교, 연구소, 기업 등
- 심사 일정
  - 2013년 7월 15일~8월 23일: 참가 신청서 제출
  - 2013년 9월 2~13일: 최종 출품작 제출
  - 2013년 9월 23~27일: 출품작 예심
  - 2013년 9월 28일: 본선 진출자 통보
  - 2013년 10월 11일: 본선 발표 및 최종 심사
- 시상 내역
  - 대상(1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상금(300만 원)
  - 금상(1팀): 상장 및 상금(200만 원)
  - 은상(1팀): 상장 및 상금(100만 원)
  - 동상(2팀): 상장 및 상금(50만 원)
  - 장려상(2팀): 상장 및 상금(20만 원)

#### 4. “십 대의 언어 습관, 여든까지 가요”

##### —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공익 광고 줄거리 공모전 시상

“스ㅅ 대신 솔직하고 부드럽게, 스ㄴ 대신 정겹게 나긋나긋이, 모ㅅ 대신 맵시 있고 차분하게. 비어 있는 우리 사이, 아름다운 말로 채워주세요.”(강해리, 대상 수상작)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은 지난 8월 31일(토) 국립국어원 대강당에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공익 광고 줄거리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공익 광고 줄거리 공모전’은 청소년의 욕설, 비속어 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익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스토리보드와 시나리오를 공모하였다. 일반인 부문과 청소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 청소년 부문 411편, 일반인 부문 227편에 달하는 응모작이 몰렸다. 국립국어원에서 3회째 개최하고 있는 청소년 언어 개선 공모전 중 가장 많은 작품이 출품되어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응모작 가운데 청소년들이 욕설의 의미로 사용하는 ‘스ㅅ’, ‘스ㄴ’과 같은 초성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고운 말 사용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강해리 씨의 스토리보드가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십대에 생긴 잘못된 언어 습관이 성인이 되어 이성과 교제할 때, 결혼하여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 손주를 둔 할머니가 되었을 때에도 계속되어 청소년기에 형성된 언어 습관의 중요성을 익살스럽게 그려 낸 마민지 양의 시나리오와, 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연

시상 내역

		분야/부문	수상자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스토리보드/일반인 부문	강해리
우수상	국립국어원장상	시나리오/일반인 부문	박현재, 송재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상	시나리오/청소년 부문	마민지, 유연주
장려상	국립국어원장상	시나리오/일반인 부문 스토리보드/일반인 부문	김지수, 이자연, 정단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상	스토리보드/청소년 부문	류한설, 박보혜, 정재현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공익 광고 줄거리 공모전 수상자 단체 사진



주 양의 시나리오가 청소년 부문 우수상(국립국어원장상)을 수상하였다. 이 외에도 우수상 2명(일반인 부문), 장려상 6명(일반인 부문, 청소년 부문 각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권일남 교수(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는 응모작을 심사하면서 응모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에 대해 신선한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깊이 고심한 흔적을 작품에서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은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공익 광고 즐거리 공모전’ 수상작을 공익 광고로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 5. “주문하신 커피가 나오셨다고요?”

### — 국립국어원, 경어법 혼란 개선을 위해 동영상 제작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쪽에서 계산하고 가실게요.”

‘커피 나오셨습니다’, ‘전 상품 매진되었어요’처럼 사물을 높이는 ‘-시’의 사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와 함께 병원, 상점, 미용실 등에서는 ‘들어가실게요’, ‘받으실게요’처럼 손님을 친절히 대하려는 의도에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을 남발하기도 한다. 무한 서비스 경쟁 속에서 손님을 최대한 공대하려는 점원과 점원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손님으로 인해 사물에 ‘-시’를 붙여 말하거나, ‘들어가실게요’처럼 문법에 어긋난 공대 표현을 쓰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다. 이 같이 우리말을 왜곡하는 잘못된 언어 사용을 방지할 경우 우리말의 바

른 경어법이 무너지고 사람이 사물과 동격이 되고 마는 등 언어생활에 혼란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은 사물을 높이는 ‘-시’와 부적절한 호응인 ‘-실게요’와 같은 표현을 개선하고자 경어법 개선을 위한 동영상 두 편을 제작하였다. 사물을 높이는 ‘-시’ 편에서는 높임의 대상이 된 사물을 과장되게 드러내 잘못된 표현임을 익살스럽게 나타냈다. 또한 부적절한 호응인 ‘-실게요’ 편에서는 주체를 높이는 ‘-시’와 화자의 행동에 대한 약속, 의지를 담은 ‘-크게(요)’가 함께 쓰여 잘못된 표현임을 알리고 바른 표현을 제시하였다.

국립국어원은 이번에 개발한 두 편의 동영상을 통해 사물을 높이는 ‘-시’와 부적절한 호응인 ‘-실게요’가 잘못된 언어 표현임을 알려 더 이상 이러한 표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홍보 방안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널리 보급하고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 전국의 초·중·고교, 국어 관련 단체 등에 알려 국민들이 올바른 높임 표현을 바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할 예정이다.

## 6. 낯선 어휘를 봐도 이제 당황하지 마세요!

— 북한 이탈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필수 어휘  
자료집 개발

###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필수 생활 어휘 자료집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은 북한 이탈 주민이 실생활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필수 생활 어휘 자료집’을 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필수 생활 어휘 자료집》 내용 중 일부(출간 예정)

생계 원천 표현	
마당밭	 일간업계가 넓어서 폭넓게 활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그> 사람은 마당밭이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
마마보이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소년이나 남자를 가리키는 말. <그> 사람은 마마보이야.
알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낱말이 이르는 말. <알뜰해달라> 생지치 하지 말고 웃을 겁니다.
당당하다	약한 것이 만만해 볼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강하다.
센스가 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감각이나 판단력이 뛰어나다. <센스>명사하다. 알리하다.
설명하다	1. 서술할 기운이 있어 고을 추운 못하다. 2. 재미없거나 이상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어색해지다. <그>가 농담을 하자 분위기가 설명해졌다.
알건하다	성품이나 태도가 길작하고 단정하다.
카리스마가 있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따르게 하는 능력이 나 자질이 있다.
티프하다	성격이 거칠이 없고 잘하다. <비수>남자답다
유머러스하다	남은 웃기는 경우가 있다. <익살스털다.> 유머: <유모아>

헤어 용품	
샴푸	머리를 감는 데 쓰는 비누, 주로 액체로 되어 있음. <샴푸>부사하다
린스	머리카락을 향주는 세제. 머리카락에 적당한 기름기를 주어 윤기 있고 부드럽게 함.
트리트먼트	손상된 모발에 영양분을 주는 행위, 또는 그 제품. <트리트먼트> 했더니 머리가 더 부드러워졌다.
헤어팩	머리의 비효는 영양제. <머리가 너무 상해서 헤어팩을 했다.>
헤어 드라이어	 속속한 머리카락을 가깝거나 따듯한 공기로 말리는 집가 기기. 머리 모양을 내는 데도 씀. <머리 건조기 [일상]드라이기>
투스	머리에 달라 붙히는 대로 머리 모양을 고정하는 데 쓰는 거품 모양의 크림. <고>착제
헤어 스프레이	 머리에 뿌려 머리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액체. <비수>스프레이
왁스(wax)	머리 모양을 고정하기 위해 머리카락에 바르는 제품.
겔(gel)	얇은 투한 장판을 내기 위해 머리카락에 바르는 제품.

발하였다. 이 사업은 2011년에 개발되고 2012년에 출간된 《북한 이탈 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1, 2, 3》의 휴대용 필수 생활 어휘 자료집 개념의 연구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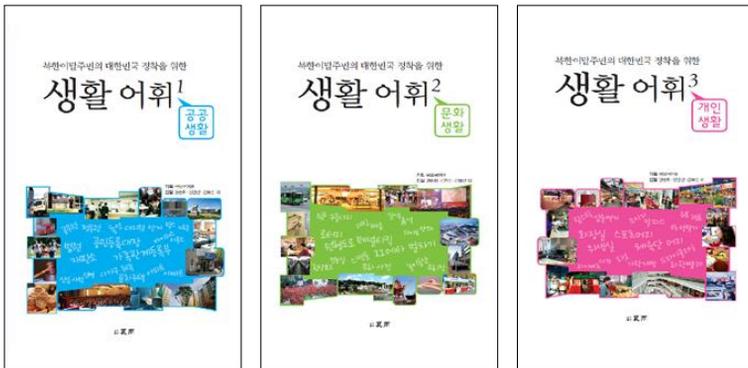
북한 이탈 주민들은 초기 정착 과정에서 수많은 낯선 어휘와 표현에 부딪히게 된다. 이때 느끼게 되는 문화적·언어적 이질감은 북한 이탈 주민이 원활하게 대한민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립국어원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표준어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였다. 지난해 발간된 《북한 이탈 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1, 2, 3》이 상세한 설명과 풍부한 보조 자료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 이번 《필수 생활 어휘 자료집》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낯설고 새로운 어휘를 찾아보고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어휘와 정보만을 추려 실어 휴대성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이 어휘 자료집은 실수요자인 북한 이탈 주민에게 직접 원고 검토를 하게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교재의 완성도를 높였다. 대한민국에 온 지 2년이 되지 않은 비교적 초기 단계 정착민들의 시각을 통해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휘와 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실었으며, 뜻풀이 외에도 실제 쓰임을 파악할 수 있는 관용 표현이나 일상 발음을 함께 넣어 현실 언어생활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그 밖에도 북한어에 대응되는 단어가 있는 경우 북한어를 함께 실어 낯선 표준어 어휘를 받아들이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재 개발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금까지 국립국어원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다양한 언어 적응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05년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를 시작으로, 《언어 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2009), 《어휘 학습용 실물 교재 개발》(2011), 《새터민 구어 학습용 교육 자료 개발》(2012)까지 다양한 기

《북한 이탈 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1, 2, 3》(2012년 출간)



초 연구와 교재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 과정을 2010년부터 매년 2회씩 운영해 왔으며, 여러 북한 이탈 주민 관련 단체에 언어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는 일 등 북한 이탈 주민의 원활한 초기 정착을 위하여 언어 교육을 지속해 왔다.

### **여러 형태의 지속적인 교재 개발과 보급의 확대**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물을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생활 어휘 자료집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활 어휘 교재 내용을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여 좀 더 많은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통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 **7.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대중투자’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다듬은 말로 ‘대중투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크라우드펀딩’은 ‘누리소통망(SNS)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일반 개인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3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크라우드펀딩’을 같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146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 위원회에서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대중투자’를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 **‘스타트업(startup)’은 ‘새싹기업’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스타트업(startup)’의 다듬은 말로 ‘새싹기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스타트업’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 기업’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3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스타트업’을 갈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158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에서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새싹기업’을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는 ‘초단열주택’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의 다듬은 말로 ‘초단열주택’을 최종 선정하였다. ‘패시브하우스’는 ‘첨단 단열 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12일까지 ‘패시브하우스’를 갈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133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에서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초단열주택’을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 **‘제로에너지하우스(zero energy house)’는 ‘에너지자급주택’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제로에너지하우스(zero energy house)’의 다듬은 말로 ‘에너지자급주택’을 최종 선정하였다.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주택의 연간 에너지 사용 및 그에 따른 탄소 배출 효과가 0이 되는 에너지 자립형 주택’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제로에너지하우스’를 같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135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에서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자급주택’을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 **‘그린루프(green roof)’는 ‘옥상정원’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그린루프(green roof)’의 다듬은 말로 ‘옥상정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그린루프’는 ‘지붕을 중심으로 건물 외관을 나무나 꽃과 같은 식물로 꾸며 주는 방식’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12일까지 ‘그린루프’를 같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191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에서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옥상정원’을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 **‘블랙아웃(blackout)’은 ‘대정전’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블랙아웃(blackout)’의 다듬은 말로 ‘대정전’을 최종 선정하였다. ‘블랙아웃’은 ‘전기가 부족하여 갑자기 모든 전력 시스템이 정지하는 현상, 즉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블랙아웃’을 같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170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에서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대정전’을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 **‘잇 아이템(it item)’은 ‘매력상품’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잇 아이템(it item)’의 다듬은 말로 ‘매력상품’을 최종 선정하였다. ‘잇 아이템’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상품 혹은 각광 받는 물건으로 유행을 선도하는 소비재’를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3년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잇 아이템’을 갈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176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에서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매력상품’을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 **‘핫 플레이스(hot place)’는 ‘뜨는곳’ 또는 ‘인기명소’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핫 플레이스(hot place)’의 다듬은 말로 ‘뜨는곳’ 또는 ‘인기명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핫 플레이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인기가 많은 곳으로 주로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장소나 유행하는 장소’를 이르는 말이다. ‘핫 플레이스’는 문맥에 따라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장소를 가리킬 때는 ‘뜨는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인기가 많은 곳을 가리킬 때는 ‘인기명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8월 5일부터 16일까지 ‘핫 플레이스’를 갈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176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에서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뜨는곳’ 또는 ‘인기명소’를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 **‘원 플러스 원(one plus one)’은 ‘(하나에) 하나 더’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원 플러스 원(one plus one)’의 다듬은 말로 ‘(하나에) 하나 더’를 최종 선정하였다. ‘원 플러스 원’은 ‘마트나 상점에서 하나의 물건을 사면 동일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판매 방식’을 이르는 말이다. ‘원 플러스 원’은 ‘하나 더’로 쓰되, 상품의 수량에 따라서 ‘2+1’은 ‘둘에 하나 더’, ‘3+1’은 ‘셋에 하나 더’와 같이 ‘(하나에) 하나 더’로도 쓸 수 있다.

지난 2013년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원 플러스 원’을 갈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184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에서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하나에) 하나 더’를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 **‘시즌오프(season off)’는 ‘계절마감’ 또는 ‘계절할인’으로**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시즌오프(season off)’의 다듬은 말로 ‘계절마감’ 또는 ‘계절할인’을 최종 선정하였다. ‘시즌오프’는 ‘계절이 바뀌어 남은 물품을 정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2013년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시즌오프’를 갈음해 쓸 우리말을 공모한 결과 183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립국어원의 말다듬기위원회에서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들 가운데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검토한 결과, ‘계절마감’ 또는 ‘계절할인’을 다듬은 말로 선정하였다.

## 8.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 제109차 회의 후 실무소위원회 심의 확정안 모음

(2013. 6. 28. ~ 2013. 8. 23.)

#### [인명]

- 던, 로라 (\*엘리자베스) Laura (Elizabeth) Dern 1967~ 미국 여성 배우·감독·제작자. 제50회 골든글로브상 텔레비전 미니 시리즈·영화 부문 여우주연상(1993. 1.), 제66회 골든글로브상 텔레비전 부문 여우조연상(2009. 1.), 제69회 골든글로브상 텔레비전 비드라마 연속극 부문 여우주연상(2012. 1.) 수상. 영화배우 브루스 던(Bruce Dern)의 딸.
- 던, 조지 (헨리) George (Henry) Dern 1872~1936 미국 정치가·실업가. 전쟁 장관(1933. 3. ~ 1936. 8.). 유타(Utah) 주지사(1925. 1. ~ 1933. 1.). 영화배우 브루스 던(Bruce Dern)의 친조부. 양친은 독일 출신 이민자.
- 모루아, 피에르 Pierre Mauroy 1928~2013 프랑스 정치가. 총리(1981. 5. ~ 1984. 7.). 릴(Lille) 시장(1973. 1. ~ 2001. 3.). 민주사회주의 정당 국제협회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의장(1992~1999). 사회당(PS) 제일 서기(1988~1991). 핵폐절론자(核廢絶論者).
- 베티게, 루츠 Lutz Bethge 1955~ 독일 경영인. 필기구·장신구 제조사 몽블랑(Montblanc) 최고 경영자(CEO)(2007~).
- 패스크렐, 빌 Bill Pascrell 본명 윌리엄 제임스 패스크렐 (2세) William James Pascrell, Jr. 1937~ 미국 정치가. 하원 의원(민주·뉴저지)(1997. 1. ~ ). 패터슨(Paterson) 시장(1990. 7. ~ 1997. 1.). 뉴저지 주하원 의원(1988. 1. ~ 1997. 1.).

- 페이지, 패티 Patti Page 본명 클래라 앤 파울러 Clara Ann Fowler 1927~2013 미국 가수·배우. 1950년대 미국의 대표적 여성 가수. 대표곡 '테네시 왈츠(Tennessee Waltz)'(1950)는 1950년 초반 싱글 음반으로서 700만 장에 이르고, 2013년 현재 통산 1,500만 장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기록. 음반 〈카네기 홀 실황: 50주년 기념 음악회 (Live at Carnegie Hall: The 50th Anniversary Concert)〉(1998)로 제41회 그래미상 전통 대중음악 부문 가수상(1999. 2.), 제55회 그래미상 특별 부문 평생 공로 연주자상(2013. 2.) 수상.
- 후수리 胡舒立 Hú Shūlì 1953~ 중국 여성 언론인. 복합 언론 기업 재산(財新) 미디어 및 동사 경제 주간지 《신세기(新世紀)》 설립자·편집장(2010. 1.~). 격주 경제지 《재경(財經)》 설립자·편집장(1998. 6.~2009. 11.). 《공인일보(工人日報)》 국제부 편집인·기자(1982~1985).
- 벨러드, 로버트(두에인) Robert (Duane) Ballard 1942~ 미국 해양학자·지질학자. 로드아일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Rhode Island, URI) 해양학 교수(2004~), 동대 해양학 대학원 내 해양 탐사·해양 고고학 연구 센터(Center for Ocean Exploration and Archaeological Oceanography), 해양 고고학 연구소(Institute for Archaeological Oceanography) 소장. 해군연구국(ONR) 연락 장교(1967~1970). 영국 호화 여객선 타이태닉(Titanic)호(1985), 독일 군함 비스마르크(Bismarck)호(1989), 미 해군 항공모함 요크타운(Yorktown)호(1998) 등의 난파선 잔해 발견자.
- 부시, 리처드 (3세) Richard C. Bush (Ⅲ) 1947~ 미국 정치학자·행정가.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 북동아시아 정책 연구 센터(CNAPS) 소장 겸 외교 정책 선임 연구원(2002~). 외교 단절 후 사

실상 타이완 소재 미국 재외 공관 기능을 담당하는 '타이완 주재 미국 협회(AIT)' 이사장(1997~2002).

- 브루킹스, 로버트 (서머스) Robert S(omers) Brookings 1850~1932 미국 실업가·자선가. 워싱턴 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이사장(1895~).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1927~)의 전신인 정부 연구소(IGR, 1916~1927) 설립자.
- 스노든, 에드워드 (조지프) Edward (Joseph) Snowden 1983~ 미국 간첩 용의자. 전 중앙정보국(CIA) 정보 기술(IT) 보안 직원. 국가안전보장국(NSA)의 극비 정보 수집 활동을 영국 《가디언(The Guardian)》 등을 통해 폭로, 미연방 검찰에 의해 간첩 행위 혐의로 소추.
- 윌리엄스, 에스터 (제인) Esther (Jane) Williams 1921~2013 미국 여성 영화배우. 1939년 전미 수영 선수권 대회(AAU National Swimming Championships) 100미터 자유형 경영 우승자.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1940년 제12회 도쿄 하계 올림픽 대회 취소로 올림픽 대회 출전이 무산되자 영화배우로 전향, 1940~1950년대 뮤지컬 영화 등에서 활약. 제9회 골든글로브상 세계 영화 인기 배우상(Henrietta Award) 수상 (1952. 2.).
- 지어마티, (앤젤로) 바틀렛 A(ngelo) Bartlett Giamatti 애칭 바트 Bart 1938~1989 미국 문학자·문학가, 체육 지도자. 메이저리그(MLB) 협회장(1989. 4.~1989. 9.). 내셔널리그(NL) 협회장(1986~1989).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 총장(1978~1986), 비교 문학 교수. 친 조부모는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
- 지어마티, 폴 (에드워드 밸런타인) Paul (Edward Valentine) Giamatti 1967~ 미국 배우. 제66회 골든글로브상 텔레비전 미니 시리즈·영화 부문 남우주연상(2009. 1.), 제68회 골든글로브상 영화·비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2011. 1.) 수상. 문학자 바틀릿 지어마티(Bartlett Giamatti)의 둘째 아들.

- 타와드루스 2세 Tawāḍrū s[Tawadros] ath Thānī 아랍 어명: تواضروس الثاني ‘테오도로스 2세(Theodōros II)’의 아랍 어명.
- 테오도로스 2세 Theodōros [Theodoros] II 콥트 어명: Θεόδωρος 본명 와기흐 수브히 바끼 술라이만 Wajīh Ṣubḥī Bāqī Sulaymān(아랍 어명: وجيه صبحى باقى سليمان) 1952~ 이집트 성직자. 알렉산드리아 콥트 정교회(Coptic Orthodox Church of Alexandria) 제118대 교황(2012. 11. ~ ). 부하이라(al Buḥayrah[Beheiral) 주 부주교(1997. 6. ~2012. 11.). 약사 출신으로, 1989년 사제로 서품.
- 다르시, 스티브 Steve Darcis 1984~ 벨기에 테니스 선수. 리에주(Liège) 태생. 2013년 7월 현재 남자 프로 테니스 협회(ATP) 세계 랭킹 단식 135위, 복식 228위.
- 르클레르, 시몽 Simon Leclerc ?1966~ 캐나다 지휘자·작곡가·편곡가. 몬트리올 교향악단(OSM) 등 관현악단의 객원 지휘자로 활동. 영화·방송·뮤지컬 음악 등을 작곡, 대중음악을 관현악곡으로 편곡.
- 모를로, 루도비크 Ludovic Morlot 1974~ 프랑스 지휘자. 미국 시애틀 교향악단 음악 감독(2011~2017). 벨기에 국립 오페라단(La Monnaie(프), De Munt(네)) 음악 감독(2012~2017).
- 아자란카, 빅토리아 (표다라우나) Viktoryya (Fyodarawna) Azaranka [Victoria (Feodorovna) Azarenka] 벨라루스 어명: Вікторыя Фёдарыўна Азаранка 1989~ 벨라루스 테니스 선수. 2013년 7월 현재 여자 테니스 협회(WTA) 단식 세계 랭킹 2위. 러시아 어명은 ‘빅토리아 표도로브나 아자렌코(Виктория Фёдоровна Азаренко)’.
- 테워드로스, 아드하눔 거브러여수스 Tewodros 'Ādhanom Gäbräyāsus

- [Tedros Adhanom Ghebreyesus] 암하라 어명: ተዎደሮስ አደገኛዎም  
ገብረኛሱስ 1965~ 에티오피아 정치가·보건학자. 외무 장관(2012. 11. ~ ), 보건 장관(2005. 10. ~2012. 11.), 보건 차관(2003~2005).
- 피셰르, 아담 Ádám Fischer 1949~ 헝가리 지휘자. 교향악단 오스트리아·헝가리 하이든 필하모니 [Osztrák-Magyar Haydn Zenekarnak (형), Österreichisch-Ungarische Haydn-Philharmonie(독)] 설립자 겸 음악 감독(1987~ ). 덴마크 라디오 신포니에타(RUO) 수석 지휘자(1998~ ). 헝가리 라디오 교향악단(Magyar Rádió Szimfonikus Zenekarának) 음악 감독(2008~ ). 지휘자 겸 작곡가 이반 피셰르(Iván Fischer)의 친형.
  - 피셰르, 이반 Iván Fischer 1951~ 헝가리 지휘자·작곡가.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관현악단 [BFO, Budapesti Fesztiválzenekar(형)] 공동 설립자 겸 음악 감독(1983~ ). 영국 계몽주의 시대 관현악단(OAE) 지휘자(2006~ ).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음악 감독 겸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관현악단(Konzerthausorchester Berlin, 전 베를린 교향악단 Berliner Symphonie-Orchester) 수석 지휘자(2012~2015). 미국립 교향악단(NSO, 워싱턴 시 소재 \*케네디 센터(Kennedy Center 소속) 수석 지휘자(2008~2010).
  - 나가노, 켄트 (조지) Kent (George) Nagano 1951~ 미국 지휘자. 캐나다 몬트리올 교향악단(OSM) 음악 감독(2006~2016). 독일 바이에른 국립오페라단(Bayerische Staatsoper) 음악 감독(2006~2013). 일본계.
  - 다벵와, 두미소 Dumiso Dabengwa 1939~ 짐바브웨 정치가·군인. 사회주의계 정당 ‘짐바브웨 아프리카 인민 연합(ZAPU)’ 당수(2008. 12. ~ ). 내무 장관(1992~2000).

- 매클라클런, 세라 (앤) Sarah (Ann) McLachlan 1968~ 캐나다 가수, 작사·작곡가. 제40회 그래미상 대중음악 부문 여자 가수상, 악기 연주상(1998. 2.), 제42회 그래미상 대중음악 부문 여자 가수상 (2000. 2.) 수상.
- 무콰지, 키스노트 Kisnot Mukwazhi ?1970~ 짐바브웨 정치가. 짐바브웨 개발당(Zimbabwe Development Party) 당수(2008. 2. ~ ).
- 바흐러, 클라우스 Klaus Bachler 본명 니콜라우스 바흐러 Nikolaus Bachler 1951~ 오스트리아 연극배우. 독일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단 (Bayerische Staatsoper) 총감독(2008~ ).
- \*케네디, 더글러스 Douglas Kennedy 1955~ 미국 소설가.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가 최근 25년의 프랑스 문학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외국 작가에게 일회성으로 수여한 ‘피가로지 대상(Grand prix du Figaro Magazine)’ 수상(2009. 11.). 프랑스 정부에서 2007년 예술·문학 훈장(Ordre des Arts et des Lettres) 기사(Chevalier)작 수여. 대표작 ‘빅 픽처(The Big Picture)’(1997), ‘행복의 추구(The Pursuit of Happiness)’(2001).
- 페트렌코, 키릴 Kirill Petrenko 러시아 어명: Кирилл Петренко 1972~ 러시아 지휘자. 독일 바이에른 국립오페라단(Bayerische Staatsoper) 음악 감독(2013~ ). 독일 베를린 희극극단(Komische Oper Berlin) 음악 감독(2002~2007).
- 후쿠나가, 케리 (조지) Cary (Joji) Fukunaga 1977~ 미국 영화감독·각본가. 오�클랜드(Oakland)에서 일본인 부친과 스웨덴인 모친에게서 출생. 대표작 ‘신 نوم브레(Sin Nombre)’(2009), ‘제인 에어(Jane Eyre)’(2011).
- 모아벤자데, 프레드 Fred Moavenzadeh 1935~ 미국 공학자. 아랍

에미리트 아부다비 대학원 대학교 ‘마스다르(Maşdar [Masdar], مصدر) 연구소’ 총장(2010. 6. ~ ). 매사추세츠 공대(MIT) 시스템·도시 환경 공학 교수. 이란 태생.

- 사이그, 아흐마드 알리 ?Aḥmad ʿAlī aṣ Ṣāyigh [Ahmad Ali Al Sayegh] 아랍 어명: أحمد علي الصايغ ?~ 아랍 에미리트 경영인. 아부다비 국영 미래 에너지 기업 마스다르(Maşdar [Masdar], مصدر) 회장(2006~ ). 아부다비 천연가스 회사 돌핀 에너지(Dolphin Energy, دولفين للطاقة) 최고 경영자(CEO)(1999~ ).
- 올릴라, 요르마(야코) Jorma (Jaakko) Ollila 1950~ 핀란드 경영인. 영국·네덜란드 석유·천연가스 회사 셸(Shell) 회장(비상임)(2006. 6. ~ ). 노키아(Nokia) 회장(2006~2012), 회장 겸 최고 경영자(CEO)(1999~2006), 최고 경영자(1992~1999).
- 와지후딘 아마드 Wajihuddīn Ahmad [Wajihuddin Ahmed] 우르두어명: وجيه الدين احمد 1938~ 파키스탄 법조인. 대법관(1998. 5. ~ 1999. 10.). 2013년 8월 대통령 선거(간접) ‘파키스탄 정의운동(PTI)’ 당 입후보자.
- 자비르, 술탄 아흐마드 Sulṭān ?Aḥmad al Jābir [Sultan Ahmed Al Jaber] 아랍 어명: سلطان أحمد الجابر 1973~ 아랍 에미리트 경영인·경제학자. 국무 장관(2013. 3. ~ ). 아부다비 국영 미래 에너지 기업 마스다르(Maşdar [Masdar], مصدر) 최고 경영자(CEO)(2006~ ). 에너지·환경 문제 전문가.
- 칸(니야지), 임란 Imrān Khān (Niyāzī) [Imran Khan (Niazi)] 우르두어명: عمران خان نيازی 1952~ 파키스탄 정치가·자선가. 중도 정당 ‘파키스탄 정의운동(PTI)’ 당수(1996. 4. ~ ). 크리켓 선수 출신.
- 포저, 페터 (로베르트) Peter (Robert) Voser 1958~ 스위스 경영인.

- 영국·네덜란드 석유·천연가스 회사 셸(Shell) 최고 경영자(CEO) (2009. 7. ~ ).
- 가도넥스, 피에르 Pierre Gadonneix 1943~ 프랑스 경영인·경제학자. 세계 에너지 협의회(WEC) 의장(2007~ ). 프랑스 전력(EDF) 회장(2004~2009). 구 프랑스 가스(GDF) 회장 겸 최고 경영자(CEO) (1996~2004), 최고 경영자(1987~1996).
  - 갈리바프, 모하마드 바게르 Mohammad Bagher Ghalibaf 페르시아어명: محمدباقر قالیباف 1961~ 이란 정치가·군인·지정학자. 테헤란 시장(2005. 9. ~ ).
  - 네스테렌코, 타티야나 겐나디예브나 Tat'yana Gennad'evna Nestereenko 러시아어명: Татьяна Геннадьевна Нестеренко 1959~ 러시아 여성 행정가. 재무 제1 부장관(2012. 10. ~ ), 재무 부장관(2007. 9. ~ 2012. 10.), 재무청(Казначейство России) 청장(2005. 1. ~ 2007. 9.), 재무 부장관 겸 재무청 청장(1998. 1. ~ 2004. 5.).
  - 노바크, 알렉산드르 (발렌티노비치) Aleksandr (Valentinovich) Novak [Alexander (Valentinovich) Novak] 러시아어명: Александр Валентинович Новак 1971~ 러시아 정치가. 우크라이나 태생. 에너지 장관(2012. 5. ~ ). 재무 부장관(2008. 9. ~ 2012. 5.).
  - 매클리시, 앤드루 Andrew MacLeish 1838~1928 영국·미국 실업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Glasgow) 태생, 1856년 미국에 이주. 시카고 대(University of Chicago) 공동 설립자. 미국 시인·극작가 매클리시(Archibald MacLeish)의 부친.
  - 바드리, 압둘라 (살림) ʿAbdullāh S(ālim) al Badrī [Abdalla S(ālim) El-Badrī] 아랍어명: عبد الله سالم البدری 1940~ 리비아 경영인·행정가. 석유 수출국 기구(OPEC) 사무국장(2007~ ). 리비아 석유 공사(NOC)

회장(2004~2006, 1983~1990). 부총리(2000~2004), 에너지 장관(1993~2000), 석유 장관(1990~1992).

- 브루사드, 이즈리엘 Israel Broussard 1994~ 미국 영화배우. 대표작 ‘블링 링(The Bling Ring)’(2013).
- 엑하트, 에런 (에드워드) Aaron (Edward) Eckhart 1968~ 미국 배우. 대표작 ‘다크나이트(The Dark Knight)’(2008). 부친은 독일계.
- 프라이, 크리스토프 Christoph Frei 1969~ 스위스 에너지 정책학자. 세계 에너지 협의회(WEC) 사무총장(2009. 4. ~).
- 버더리, 벤저민 Benjamin Verdery 애칭 벤 Ben 1955~ 미국 기타 연주자. 예일(Yale)대 음악대학원 기타과 학과장(1985~).
- 버더리, (찰스) 스투어트 (2세) (Charles) Stewart Verdery (Jr.) 1967~ 미국 법조인· 정치활동가. 정부 문제 자문 회사 ‘모뉴먼트 정책 그룹(Monument Policy Group)’ 설립자 겸 공동 운영자(2006~). 국토안보부 차관보(정책· 기획 담당)(2003~2005). 텔레비전 정치 논평가로 활동.
- 시시, 압둘팻타흐 (사이드 후사인 칼릴) ʿAbduľfattaḥ (Saʿīd Ḥusayn Khalīl) as Sīsī [Abdel Fattah (Saeed Hussein Khalil) el-Sisil] 아랍어명: عبد الفتاح سعيد حسين خليل السيسي 1954~ 이집트 정치가· 군인. 부총리 겸 국방 장관 겸 군 총사령관(2013. 7. ~), 국방 장관 겸 군 총사령관(2012. 8. ~2013. 7.).
- 카심 이브라힘 Qasim Ibrahim 디베히 어명: قاسم إبراهيم?~ 몰디브 실업가· 자선가· 정치가. 복합 기업 빌라 그룹(Villa Group) 설립자 겸 회장(1986. 4. ~). 내무 장관(2008. 11.), 재무 장관(2005. 7. ~2008. 7.). 공화당(JP) 당수(2008~2013), 국회 의장(2005~2008).
- 커티스, 사이러스 (허먼 코치마) Cyrus H(ermann Kotschmar) Cur-

tis 1850~1933 미국 출판업자·자선가. 구 커티스 출판사(Curtis Publishing Company, 1891 ~?1969) 설립자.

- 클렝겔, 율리우스 Julius Klengel 1859~1933 독일 첼로 연주자, 작곡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Gewandhausorchester Leipzig) 수석 첼로 주자(1881~?1924). 라이프치히 왕립 음악원(Königliches Konservatorium der Musik zu Leipzig) 교수.
- 포이어만, 에마누엘 Emanuel Feuermann 1902~1942 오스트리아 첼로 연주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콜로메아(Kolomea, 현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집안에서 출생, 1907년 빈(Wien), 1917년 독일, 1933년 영국 런던, 1937년 미국에 이주. 미국 커티스 음악원(Curtis Institute of Music) 교수(1941~1942). 베를린 음악 대학(Staatliche akademische Hochschule für Musik zu Berlin) 교수(1929~1933).
- 갈, 잔드라 Sandra Gal 1985~ 독일 골프 선수. 2013년 8월 현재 세계 여자 골프 랭킹(Rolex Rankings) 52위, 엘피지에이 투어(LPGA Tour) 통산 1회 우승.
- 래스킨, 세라 블룸 Sarah Bloom Raskin 1961~ 미국 여성 법조인·행정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RB) 이사(2010. 10. ~ ). 메릴랜드(Maryland) 주 금융규제국장(2007~2010). 재무부 부장관 지명자.
- 래스킨, 제이미 Jamie Raskin 본명 제이민 래스킨 Jamin B. Raskin 1962~ 미국 법조인·법학자·정치가. 아메리칸대(AU) 법학대학원(WCL) 교수. 메릴랜드(Maryland) 주의회 상원 의원(2007. 1. ~ ).
- \*루스벨트, (애나) 엘리너 (Anna) Eleanor Roosevelt 1884~1962 미국 인권 활동가. 대통령 여성 지위 자문 위원회(PCSW) 위원장(1961. 1. ~1962. 11.). 유엔 총회 미국 대표(1946. 12. ~1952. 12.). 유엔 인권 위원회(UNCHR, UNHRC의 전신) 초대 위원장(1946~1951). 프

- 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전 대통령 영부인(1933. 3. ~1945. 4.).
- 브래들리, 오마 (넬슨) Omar (Nelson) Bradley 1893~1981 미국 군인. 육군 원수(1950. 9.~1981. 4.). 합동 참모 본부(JCS) 초대 의장(1949. 8.~1953. 8.). 육군 참모 총장(1948. 2.~1949. 8.). 제2차 세계 대전 독일 서부 전선 침공 미 지상군 지휘(제12 총군(Army Group) 사령관: 1944. 7.~1945. 5., 제1군 사령관: 1944. 6.~1944. 7.).
  - 위너펠드, 제임스 (\*알렉산더 2세) James A(lexander) Winnefeld (Jr.) 애칭 샌디 Sandy 1956~ 미국 군인. 해군 대장. 합동참모본부(JCS) 부 의장(2011. 8.~).
  - 장게네, 비잔 남다르 Bijan Namdar Zangeneh 페르시아 어명: *بیژن نامداری زنگنه* 1953~ 이란 정치가. 석유 장관(2013. 8.~ , 1997. 8.~ 2005. 8.), 에너지 장관(1988. 9.~1997. 8.), 농업 장관(1983. 11.~ 1988. 9.).
  - 퍼싱, 존 (조지프) John J(oseph) Pershing 1860~1948 미국 군인. 육군 장군. 제1차 세계 대전 유럽 원정 미군(AEF) 지휘(1917. 5.~1918. 11.). 초(超)육군 대장(General of the Armies, 1945년 이후 5성 장군보다 상위의 계급으로 인식됨)(1919. 9.~1948. 7.).
  - 가오광치 高廣圻 Gāo Guǎngqí 1950~ 대만 군인. 군 참모 총장(2013. 8.~). 국방 부장 대행(2013. 8. 7.). 국방 부부장(군비 담당)(2012. 9.~2013. 8.).
  - 라잔, 라구람 (고빈다) Raghuram (Govinda) Rajan 힌디 어명: *रघुराम गोविंदराजन* 1963~ 인도 경제학자. 인도 중앙 은행(RBI) 총재(2013. 8.~). 국제 통화 기금(IMF) 최연소 수석 경제학자(2003. 10.~2006. 12.). 미국 금융 협회(AFA) 피셔 블랙상(Fischer Black Prize)

- 최초 수상자(2003).
- 몽게레라, 마거릿 Margaret Mungherera 1957~ 우간다 여성 의학자. 세계 의사회(WMA) 회장(2013. 10. ~ ). 우간다 의사 협회 회장(2010 ~, 1998~2005).
  - 블랙, 피셔 (셰피) Fischer (Sheffey) Black 1938~1995 미국 경제학자. 파생 투자 상품을 포함하는 금융 시장을 수학적으로 모형화한 블랙·솔스 모형(Black-Scholes model)을 마이런 솔스(Myron S. Scholes)와 공동으로 정립. 그 외에 다수의 경제 이론을 정립.
  - 스톤, (윌리엄) 올리버 (William) Oliver Stone 1946~ 미국 영화감독·각본가·제작자. ‘미드나이트 익스프레스(Midnight Express)’(1978)로 제51회 아카데미상 각색상(1979. 4.), ‘플래툰(Platoon)’(1986)으로 제59회 아카데미상 감독상(1987. 3.), ‘7월 4일생(Born on the Fourth of July)’(1989)으로 제62회 아카데미상 감독상(1990. 3.) 수상. 기타 대표작 ‘제이에프케이(JFK)’(1991).
  - 시하비, 이합 ?īhāb ash Shihābī [Ehab Al Shihabi] 아랍 어명: إيهاب الشهابي 1970~ 팔레스타인·미국 방송 경영인. 카타르 기반의 다국적 복합 미디어 기업 알자지라 미디어 네트워크(Al Jazeera Media Network)가 미국에서 개국하는 24시간 뉴스 채널 알자지라 아메리카(AJAM, Al Jazeera America) 임시 최고 경영자(CEO)(2013. 8. ~ ).
  - 양넨쭈 楊念祖 Yáng Niànzǔ 1955~ 대만 정책·안보학자, 행정가. 국방 부장(2013. 8. 1.~2013. 8. 6.). 국방 부부장(군정 담당)(2009. 9.~2013. 7.). 2007년에 출판한 논문에서 타인의 저작을 도용했음을 시인, 사의를 표명. 영어명은 ‘앤드루(Andrew)’.
  - 옌밍 嚴明 Yán Míng 1949~ 대만 군인. 국방 부장(2013. 8. 8. ~ ). 군 참모 총장(2013. 1.~2013. 8.).

- 죄네, 장피에르 Jean-Pierre Jeunet 1953~ 프랑스 영화감독·각본가·제작자. 대표작 ‘아멜리에(Le Fabuleux Destin d'Amélie Poulain)’ (2001).
- 코스키넨, 존 John A. Koskinen 1939~ 미국 경영인·행정가. 정부 지원 기관(GSE) 연방 주택 담보 대출사(FHLMC, Freddie Mac) 회장 (2008. 9.~2011. 12.), 최고 경영자(CEO)(2009. 3.~2009. 8.). 워싱턴(Washington) 시 부시장,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 부국장 역임. 국세청(IRS) 청장 두 번째 지명자(2013. 8.).
- 휘피에, 사미 Sami Hyypiä 1973~ 핀란드 축구 지도자·선수. 독일 프로 축구 팀 레버쿠젠(Bayer 04 Leverkusen) 감독(2012. 5.~). 수비수 출신.

## [지명]

- 롱쥐모 Longjumeau ①프랑스 중북부 에손(Essonne) 주 북부 팔레조(Palaiseau) 군 동부의 면(canton). ②롱쥐모 면의 면도(commune).
- 팔레조 Palaiseau ①프랑스 중북부 에손(Essonne) 주 북부의 군(arrondissement). ②팔레조 군 중북부의 면(canton). ③팔레조 군의 군도, 팔레조 면의 면도(commune).
- 라에톨리 Laetoli 탄자니아 고고학 발굴지. 신생대 플라이오·플라이스토세에 속하며, 발굴 당시에는 원인(猿人)의 최고(最古)의 두 발 보행 증거였던, 플라이오세 원인(猿人)의 발자국이 발굴됨.
- 차우퉁 Kyaukpyu 버마 어명: ကျောက်ဖြူ, 미얀마 서부의 항구 도시.

## 제110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

(2013. 8. 28.)

### [인명] - 실무소위 부결

- 누아이미, 알리 (빈 이브라힘) ṢAlī (bin ʔIbrāhīm) an Nuṣaymī  
[Ali (bin Ibrahim) Al-Naimi] 아랍어명: علي بن إبراهيم النعيمي 1935~ 사우디아라비아 행정가·경영인. 석유·광물 자원 장관(1995. 8.~). 국영 석유·천연가스 회사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ʔArāmkū as Saṣūdiyyah) 사장 겸 최고 경영자(CEO)(1983~1995).
- 메이헨, 헌터 (마일스) Hunter (Myles) Mahan 1982~ 미국 골프 선수. 2013년 6월 현재 피지에어 투어(PGA Tour) 통산 5회 우승, 세계 골프 랭킹(Official World Golf Ranking) 22위.
- 바트에르테네, 바드마남부긴 Badmaanyambuugiin Bat-Erdene 몽골어명: Бадмаанямбуугийн Бат-Эрдэнэ 1964~ 몽골 정치가, 레슬링 선수. 국회 의원(2004~). 인민당(MPP, M A H) 소속.
- 번스, 어설라 Ursula M. Burns 1958~ 미국 여성 경영인. 제록스(Xerox) 회장 겸 최고 경영자(CEO)(2010. 5.~), 최고 경영자(2009. 7.~2010. 5.). 양친은 파나마 출신 이민자.
- 스네데커, 브랜트 Brandt N. Snedeker 1980~ 미국 골프 선수.
- 에를리흐, 이갈 Yigal Erlich 히브리어명: יגאל ערליך 1940~ 이스라엘 실업가. 투자 기금 운용 집단 요즈마(Yozma) 그룹 설립자 겸 회장(1993~).
- 은쿠베, 웰시먼 Welshman Ncube 1961~ 짐바브웨 정치가·법학자. 상공 장관(2009. 2.~). '민주적 변화 운동(MDC)' 당수(2011~). 짐바브웨대 법학 교수(1992~).

- 치머, 한스 (플로리안) Hans (Florian) Zimmer 1957~ 독일 작곡가, 음악 제작자. 미국 영화 제작·배급사 \*드림웍스(DreamWorks) 영화 음악 부서 총괄. 미국 샌타모니카(Santa Monica)에 설립한 영화 음악 관련 회사(회사명: Remote Control Productions)도 운영. 그래미상 4회, 골든글로브상 2회, 아카데미상 1회 수상.
- 코시위스코모리제, 나탈리 (준비에브 마리) Nathalie (Geneviève Marie) Kosciusko-Morizet 별칭 엔카엠 NKM 1973~ 프랑스 여성 정치가. 폴란드계 정치 명문가 출신. 하원 의원(2012. 3. ~ ). 생태·지속 개발·교통·주택 장관(2010. 11. ~2012. 2.). 파리 근교 롱쥬모(Longjumeau) 시장(2008. 3. ~2013. 2.), 2014년 3월 파리 시장 선거 대중 운동 연합(UMP) 입후보자.
- 코치마, 허먼 Hermann Kottschmar 1829~1908 독일·미국 오르간 연주자. 독일 태생, 19세에 미국에 이주. 피아노 주자, 지휘자, 작곡가로도 활동.
- 쿠엘료, 앤드루 Andrew Coelho 1987~ 오스트레일리아 테니스 선수. 남자 프로 테니스 협회(ATP) 세계 랭킹 최고 성적 단식 281위(2008. 11.), 복식 207위(2007. 11.).
- 크보이카, 에리크 Ěrik Chvojka 1986~ 캐나다 테니스 선수. 몬트리올(Montreal) 태생. 2013년 7월 현재 남자 프로 테니스 협회(ATP) 세계 랭킹 단식 328위, 복식 336위.
- 톱게, 체링 Tshering Topgye [Tshering Tobgay] 중가 어명: རྩེ་མོ་ལྷོ་མཚོ། 1965~ 부탄 정치가. 총리(2013. 7. ~ ). 인민민주당(PDP) 당수.
- 팔리흐, 칼리드 (빈 압둘아지즈) Khālid (bin ʿAbdulʿazīz) al Fāliḥ [Khalid A. Al-Falih] 아랍 어명: خالد بن عبد العزيز الفالح 1960~ 사우디아라비아 경영인. 국영 석유·천연가스 회사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 ʔArāmkū as Saʔūdiyyah) 사장 겸 최고 경영자(CEO)(2009. 1. ~ ).
- 패리소, 딘 Dean Parisot 본명 알도 패리소 Aldo L. Parisot ?~ 미국 영화 감독. 제61회 아카데미상 단편 영화 작품상 수상(1989. 3.). 대표작 ‘뻔뻔한 딕 & 제인(Fun with Dick and Jane)’(2005), ‘레드: 더 레전드(RED 2)’(2013). 브라질 · 미국 첼로 주자 알도 패리소(Aldo Parisot)의 아들.
  - 패리소, 알도 Aldo Parisot 1921~ 브라질 · 미국 첼로 연주자. 브라질 나타우(Natal) 태생, 1946년 미국에 이주. 예일(Yale)대 음악대학 원 교수(1958~ ).
  - 프란체티, 리사 Lisa M. Franchetti 1964~ 미국 여성 군인. 해군 준장(2013. 8. ~ ). 주한 미 해군 사령관에 임명(2013. 8. ~ ). 지중해 · 북대서양 등지에서 구축함 함장 역임.
  - 후사인, 맘눈 Mamnūn Husain [Mamnoon Hussain] 우르두어명: ممنون حسنى 1940~ 파키스탄 정치가. 인도 아그라(Agra)의 우르두어 사용 집안에서 출생, 1949년 카라치(Karachi)에 이주. 대통령(2013. 9. ~ ). 신드(Sindh) 주지사(1999. 6. ~ 1999. 10.). 중도 우파 정당 ‘파키스탄 이슬람교도 연맹(PML-N)’의 부총재로서 2013년 7월 대통령 선거(간접)에서 당선.

#### [지명] - 실무소위 부결

- 모오레아 섬 Mo'orea [Mooreal 남태평양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서부 소시에테 제도(Îles de la Société) 중의 화산섬. 타히티(Tahiti) 섬으로부터 북서쪽 17킬로미터에 위치.

#### [일반용어] - 실무소위 부결

- 안트러프러너 entrepreneur 기업가.

[인명] - 새로 심의 <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 참석자>

- 니야디, 마타르 하미드 Maṭar Ḥāmid an Niyādī [Matar Hamed Al Neyadi] 아랍 어명: مطر حامد النيادي 아랍 에미리트.
- 다셀레이르, 윌리엄 William D'Haeseleer 벨기에.
- 더직, 존 (폴) John (Paul) Drzik 미국.
- 룩커먼, 크리스 (하트윅) Chris H(artwick) Luebke만 미국.
- 마즈루아이, 수하일 무함마드 Suhayl Muḥammad al Mazrūʿay [Suhail Mohamed Al Mazrouei] 아랍 어명: سهيل محمد المزروعى 아랍 에미리트.
- 무프티, 야시르 Yāsir Muftī [Yasser Mufti] 아랍 어명: ياسر مفتي 남아프리카 공화국.
- 부타르파, 누룻딘 Nūruddīn Būṭarfah [Noureddine Boutarfah] 아랍 어명: نور الدين بوطرفة 알제리.
- 샤이크 루후, 힐라 Hilā Shaykh Rūḥū [Hela Cheikhrouhou] 아랍 어명: هिला شيخ رحو 튀니지. 여성.
- 샤희리스타니, 후사인 Ḥusayn ash Shahrīstānī [Hussain al-Shahrīstani] 아랍 어명: حسين الشهرستاني 이라크.
- 스테이섬, 브라이언 Brian Statham 남아프리카 공화국.
- 슬라이, 핀턴 Fintan Slye 아일랜드.
- 시그월드슨, \*오스카 Oskar Sigvaldason 캐나다.
- 시디비, 비라마 (부바카르) Birāmā (Būbakar) Sīdībī [Birama (Bou-bacar) Sidibe] 아랍 어명: براما بوبكر سيديبي 사우디아라비아.
- 시하부딘, 아드난 ʿAdnān Shihābuddīn [Adnan Shihab-Eldin] 아랍 어명: عدنان شهاب الدين 쿠웨이트.
- 아비브, 오즈마 Osmar Abib 크레디 스위스(Crédit Suisse) 투자 은행 부

문(Investment Banking division) 글로벌 에너지 그룹(Global Energy group, 미국 휴스턴) 소속.

- 아와지, 살리흐 (빈 후사인 빈 압둘라) Ṣāliḥ(bin Ḥusayn bin ʿAbdullāh) al ʿAwājī [Saleh H. Alawajj] 아랍 어명: صالح بن حسين بن عبد الله العواجي 사우디아라비아.
- 아이브스 싱어, 크리스틴 Christine Eibs Singer 미국. 여성.
- 아흐마드 이브라힘, 함 마흐무드 al Hām Maḥmūd ʿAḥmad ʿIbrāhīm [Elham Mahmoud Ahmed Ibrahim] 아랍 어명: أحمد إبراهيم محمود 에티오피아. 여성.
- 야브후니, 알리 우바이드 ʿAlī ʿUbayd al Yabhūnī [Ali Obaid Al-Yabhouni] 아랍 어명: علي عبيد البهوني 아랍 에미리트.
- 오레슈친, 타지 Tadj Oreszczyn 영국.
- 유수피, 유수프 Yūsuf al Yūsufī [Youcef Yousfi] 아랍 어명: يوسف اليوسفي 알제리.
- 이트 프랭 Ith Praing 캄보디아.
- \*제르긴, 압둘함이드 ʿAbdulḥamīd Zerqīn [Abdelhamid Zerguine] 아랍 어명: عبد الحميد زرقين 알제리.
- 탄 테 Than Htay 버마 어명: ထန်:ဧ: မိအ်မာ.

#### [인명] - 재심의

- \*마르티넬리, 리카르도 Ricardo Martinelli 파나마 정치가(1952~ ).  
-회의 84차
- 아메드, 파크루딘 Fakhruddin Ahmed 방글라데시 과도 정부 수반.  
-회의 75차

### Ⅲ. 국립국어원 교육과 홍보

#### 1. 2013년 국어문화학교 운영

##### 1.1. 2013년 하반기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좌 신청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어원 안에서 시행하는 '국어전문교육과정' 교육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소 도시, 낙도, 벽지를 가리지 않고 무료로 국어 전문가들이 찾아가 여러분의 국어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방문 강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기간: 2013년 하반기(7~12월 중)
- 신청 지역: 전국
- 수강 인원: 1회에 30명 이상
- 개최에 따른 강사료 등 국립국어원 부담(연 2회)
  - 교재: 무료 제공(인원수에 맞게 신청 바람)
- 개최 장소: 해당 지역 소재 공공장소(강의실, 강당, 구민회관 등) 활용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edu.korean.go.kr) '국어문화학교'에서 온라인 신청
- 연락처: 02-2669-9752, 02-2669-9729 / 전송: 02-2669-9787

## 1.2. 2013년 하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 계획

2013년 하반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가. 교육 개요

- 내용: 어문 규범, 공문서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국어 관련 과목 20강좌 35시간
- 장소: 국립국어원(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지하철 5호선 중점 방화역 2번 출구에서 3분 거리)
- 기간: 5일간(월~금), 비합숙

### 나. 교육 일정(2013년 하반기)

- 9월 1기: 2013. 9. 9.(월)~9. 13.(금)
- 9월 2기: 2013. 9. 23.(월)~9. 27.(금)
- 10월 1기: 2013. 10. 14.(월)~10. 18.(금)
- 10월 2기: 2013. 10. 21.(월)~10. 25.(금)
- 11월 1기: 2013. 11. 11.(월)~11. 15.(금)
- 11월 2기: 2013. 11. 18.(월)~11. 22.(금)

다. 수료생에게는 교육 훈련 점수(선택 전문 교육 훈련 과정, 35시간 부여)

라. 교육비: 120,000원(수강료+교재비: 100,000원, 점심값(5일): 20,000원)

### 1.3. 2013년 9월 국어문화학교 운영

2013년 9월(제285기, 제286기)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가. 수강자 명단: 제285기, 제286기

나. 교육 기간

- 제285기: 2013년 9월 9일(월)~9월 13일(금)  
(5일간 35시간, 비합숙)
- 제286기: 2013년 9월 23일(월)~9월 27일(금)  
(5일간 35시간, 비합숙)

다. 이수 강좌: ‘국어 어문 규정’ 등 국어 관련 약 20개 강좌

라. 교육 내용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 우리말 다듬기,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협력적 의사소통, 훈민정음의 이해, 공문서 바로 쓰기, 생활 글쓰기 등

마. 교육 장소: 국립국어원(1층 강당, 중1층 세미나실, 3층 강의실)

## 2. 2013년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 2.1. 2013년도 제2차 한국어 교원 개인 자격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2차 한국어 교원 개인 자격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1. 자격 심사 대상(요건) 및 제출 서류

### 가. 1급 심사 신청

대상	신청 등급-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한국어 교원 2급을 취득한 후에 제13조 제 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12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1급-12번」: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제13조 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 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나. 2급 심사 신청

대상	신청 등급-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2005. 7. 28. 후에 대학(원) 입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영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2급-9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6급 합격증 * 외국 국적자에 한함.
2005. 7. 28. 전에 대학(원)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2급-1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6급 합격증 * 외국 국적자에 한함.
한국어 교원 3급인 자(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2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는 자 (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라목)	2급-13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대상	신청 등급-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한국어 교원 3급인 재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어 교육능력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 한국어 교육 경력이 800시간 이상인 자로서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 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는 자 (영 제13조 제1항 제2호 마목)	2급-14번 (경력에 따른 승급)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2급-13번」, 「2급-14번」: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영 제13조 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 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3급 심사 신청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8.) 이후에 대학 입학(부전공), 양성 과정 등록

대상	신청 등급-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2005. 7. 28. 후에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부전공자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3급-10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6급 합격증 *외국 국적자에 한함.
2005. 7. 28. 후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후,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나목)	3급-11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 (시행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③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합격 확인서(필기, 면접)

- ※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합격 확인서는 <http://www.q-net.or.kr/site/koreanedu>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합격 확인서 (필기, 면접)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1. 필수 이수 학점 미취득자의 자격 부여 조치

- ① 대상: 시행령(제정) 시행 이후(2005. 7. 28.)부터 2010년 12월 14일 까지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어 교육 분야를 전공, 복수 전공, 부전공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자
  - ② 내용: 졸업 후에 부족한 필수 이수 학점을 취득한 경우 심의하여 자격 부여
  - ③ 기준: 교과목의 영역 착오, 필수 이수 학점 계산 착오 등의 실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최소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대학 6학점, 대학원 3학점 이내)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8.) 이전에 대학(원) 입학 등(경과 조치 적용 대상)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학과)의 개설 시점이 시행령 시행(2005. 7. 28.) 이전인 경우에 한함.

대상	신청 등급-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2005. 7. 28. 전에 대학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부전공자 (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마목)	3급-2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졸업(학위) 증명서 ③ 성적 증명서 ④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6급 합격증 * 외국 국적자에 한함.

대상	신청 등급-유형	제출 서류 (자격 심사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출력)
2005. 7. 28. 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경력이 800시간 이상인 자(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	3급-5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강의 기간 및 시수를 명시한 경력 증명서(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해외 경력의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반드시 해당 언어로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번역하여 공증받은 것만 인정함.
2005. 7. 28. 전에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실시한 '한국어 교육 능력 인증 시험(2002~2004)'에 합격한 자(영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	3급-6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육 능력 인증 시험 합격 증명서
2005. 7. 28. 전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에 등록 또는 이수한 자로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2006년 이후)'에 합격한 자(영 제13조 제1항 제3호 사목)	3급-7번	① 자격 심사 신청서(직접 출력) ②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시행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③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합격 확인서(필기, 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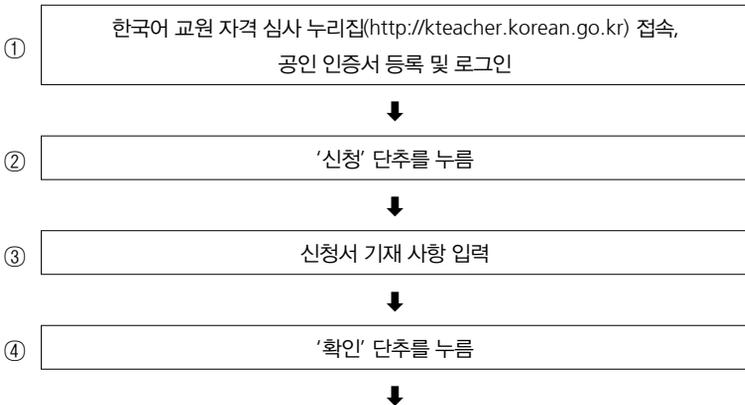
※ 「3급-5번」: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영 제13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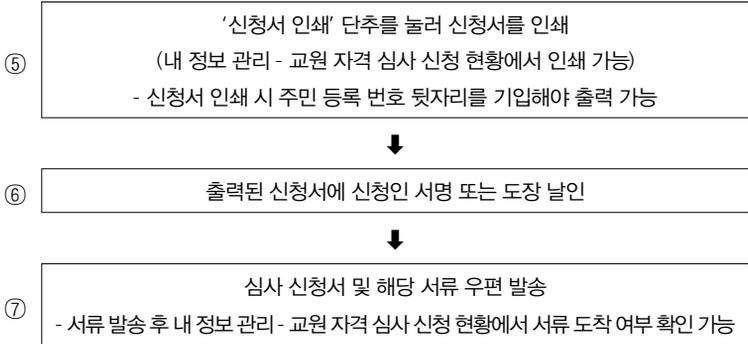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 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2. 심사 신청 절차





### 3. 신청 접수 기간

2013. 8. 26.(월)~2013. 9. 6.(금)

### 4.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후 우편 접수

- 해당 기간 안에 반드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됨.
-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 바람.(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여 서류가 분실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2013. 9. 6.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므로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 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함.
- 주소: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국립국어원 205호

한국어교육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혹은 전자 우편 ([kteacher@korea.kr](mailto:kteacher@korea.kr))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서류 작성 및 신청 시 유의 사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참조)

### 가. 심사 신청서상 내용 누락 시

예시) 사진(신청서 작성 시 사진 첨부이 어려울 경우 인쇄된 신청서에 사진 부착), 신청인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호 13자리, 신청 등급, 자격증 번호(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등

### 나. '1급-12번', '2급-13번', '3급-14번', '3급-5번': 경력 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는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첨부 문서 참조)에 맞게 작성된 것만 유효합니다.(이외 서식 인정 불가)
- 해외 경력의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받고,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는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번호 및 전자 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 전화, 개인 전자 우편 계정)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연락처 기재 요망.)

### 다. '3급-11번':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양성 과정 개설 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이수 증명서는 '시행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첨부 문서 참조)에 맞춰 이수 기간, 영역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총 이수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니다.(이외 서식 인정 불가)

## 6.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을 검토하고,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
- 심사 결과 발표: 2013. 10. 18.(금)/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
- 자격증 교부 시기: 2013년 11월 초
  -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후에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 예정

## 7. 기타 사항

-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만 인정됩니다.  
(단, 한국어 교육 능력 인증 시험 합격 증명서 및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성적 증명서는 사본 인정 가능)
-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성적 증명서만을 인정합니다.
-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IV. 국립국어원 인사 발령

### 1. 신규 임용

정혜선(학예연구사): 언어정보팀(7월 25일)

### 2. 전보 발령

백진숙(행정서기): 국어능력발전과 → 국립중앙박물관(7월 19일)

이경숙(기능7급): 한국예술종합학교 → 국어능력발전과(7월 19일)

구지민(학예연구사): 언어정보팀 → 한국어교육진흥과(7월 25일)

유병도(사서주사): 어문연구팀 → 국립중앙도서관(8월 12일)

이순화(사서주사): 국립중앙도서관 → 어문연구팀(8월 12일)

### 3. 복직

최보영(행정서기): 기획관리과(9월 4일)

### 4. 퇴직

조원형(학예연구사): 공공언어지원단 → 의원 면직(7월 15일)

